

건축사

Korean Architects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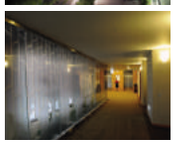
아버지의 꿈
이화 여대의 숨겨진 캠퍼스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호텔
역삼동 페트라 빌딩
리조트 디자인

469
http://www.kira.or.kr
200805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8년 05월호 통권 469호

Contents


17


30


36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8 05 469호

칼럼	아버지의 꿈	김형수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이화 여대의 숨겨진 캠퍼스	심재호 · 도미니크 페로	16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	상대정 · 홍태선 · 김진욱	26
	역삼동 페트라 빌딩	김휘열	32
작품노트	리조트 디자인	강승우 · 유 찬	38
계획작품	비엔동 메리디안 타워	안길원	46
현상설계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52
	중구청 보훈회관		58
연재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응용 친환경건축 방향(1)	윤종호	63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7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3)	신재욱	73
건축마당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안내		79
	협회소식		83
	건축계소식		85
	2008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87
	통계		88
지상강좌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임정의	90
	해외잡지동향		93
	백민석_책을 말하다		104

발 행 인 한명수
편 집 위 원 백민석 · 김형수 · 임영석 · 유대근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주)현대문화사 Tel : (02)2278-4482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협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4


47


52

Korean Architects

Vol. **469**
May 2008

Column
- Father's Desire — Kim, Hyung-soo — 12

Cartoon — Yoo, Won-jai — 15

Works
- The hidden Campus of Ewha — Shim, Jae-ho · Dominique Perrault — 16
- Hotel Ibis Ambassador Suwon — Sang, Dae-jung · Hong, Tae-sun · Kim, Jin-wook — 26
- Yoksam-dong PETRA building — Kim, Hwi-yeol — 32

Design Note
- Resort Design Architecture — Kang, Seung-woo · Yoo, Chan — 38

Process Work
- Viendong Meridian Tower, Vietnam — An, Kil-won — 46

Competition
- National Sports Center & Weight traning Center — 52
- Junggu Bohun Assembly Hall — 58

Serial
- For Sustainable Futurewith Sustainable Architecture(1) — Yoon, Jong-ho — 63
- 2008 Korean århitecture Award — 70
-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3) — Shin, Jae-woog — 73

Architects' Plaza
- Kira News — 83
- Archi-Net — 85
- Statistics — 88

Lecture
-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 Lim, Chung-eui — 90
- Overseas Journal — 93
- Book Review — 104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Baek, Min-seok & Kim, Hyung-soo & Im, Yeong-seok & You, Dae-geu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김형수 / 정회원, CDS 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 공학박사
- 건축시공기술사 / PMP
-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행정위원장

아버지의 꿈

Father' s Desire

필자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의 장래희망은 건축사다. 그림도 곧 잘 그리고 또 아버지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아 와서인지,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는 건축사가 자신의 천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조사하는 장래 희망란에는 항상 스스로 '건축사' 라고 써놓곤 한다.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주고 또 본인도 그 길을 따라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데서 느끼는 든든함과 뿌듯함이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미치는 건축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며, 어느 직업보다도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큰 직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아들의 뜻에 동의한다.

그러나 또한 이처럼 척박한 한국의 설계시장의 현실과 한없이 추락하는 건축사들의 위상을 바라보면 마음속 한구석에서 아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 분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머뭇거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가 겪어온 어려움을 아들이 또 겪게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일감이 없어 폐업 아닌 폐업을 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무수한 건축사들, 사회적 경제적인 여유는 차치하고 가족들의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수많은 소규모 사무소의 건축사들, 건축 설계를 단지 시공의 부수적인 일부분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건축사의 역량이 아닌 회사의 규모와 실적으로만 평가하여 능력있는 건축디자이너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BTL, Turn key 시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어가는 건축사 고유의 업역 등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환경에 던져져 허우적거릴 우리 아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우리는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조금 길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도와 90년도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선배의 모습은 지금의 그 모습과 많이 달랐다. 사회적인 지명도와 경제적인 여유, 건설사와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업무수행,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해져버린 건축설계 환경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IMF 사태로 인한 건축시장의 위축이나 고도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등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건축설계 분야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집단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전에 비하여 기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정부 및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 및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세련되어 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않다고 본다.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업역을 넓혀나가고, 보다 나은 환경을 스스로 구축한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와 연관된 분야에서도 감리, 도시계획, 건축물 관리, 디벨로퍼, CM, 리모델링 등 다양한 파생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된 단체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건축사의 영역은 점점 위축되어갔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업무에 집착하여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사법」이 보호해주는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여 경쟁을 회피하였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의 출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존재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건축설계 분야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집단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은 '대한건축사협회' 가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계에 여러 단체가 존재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그 규모와 조직면에서 단연 독보적인 조직이다. 우리 협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조직도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다.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회원의 참여와 호응이 협회의 힘의 근원이며, 이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협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회원들의 권익과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많은 건축사협회 임원진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본업을 제쳐두고 건축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임원들도 많다. 이전에 비하여 기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정부 및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 및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세련되어 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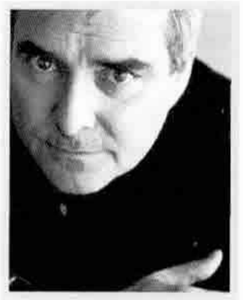
나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건축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멋진 세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화 여대의 숨겨진 캠퍼스
The hidden Campus of Ewha



심재호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Shim, Jae-ho,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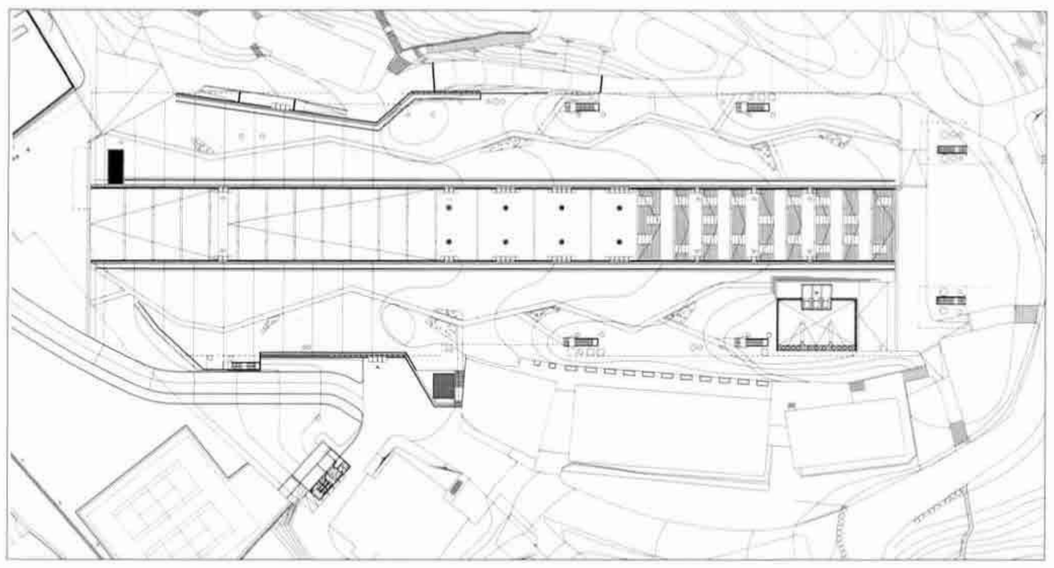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주)현대건설, (주)동부건설
- 주요작품 :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송도신도시컨벤션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건립 국제설계경기 당선 등 다수



도미니크 페로 / Dominique Perrault Architecure
by Dominique Perrault

약력
- 파리대학 졸업, 에꼴 폰 에 쇼쉬, 에꼴 데 오뜨 에뛰드 Post-graduate 학위
- 프랑스 국립도서관(프랑스)/올림픽 벨로드럼 & 수영장(독일)/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룩셈부르크)/ 마린스킨극장(러시아)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대지면적	539,549.70㎡
건축면적	136.84㎡(건폐율산정용 81,068.64㎡)
연 면 적	68,657.24㎡(용적률산정용 306,634.34㎡)
건 폐 율	15.03%
용 적 률	56.83%
규 모	지하 6층,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자라목, 나무섬유질흡음판, 타공아연도천장재, 타공석고보드
외부마감	THK28 로이복층유리, THK20 스테인레스스틸 브레이싱 프레임
설계담당	해외_Gaelle Lauriot Prevost, Simon Guillemoz 국내_원형준, 손성호, 신정훈
구조 · 토목	Nicholas Green(VP & Green Ingenierie)/ 전봉수(전우구조), 이승환(CG 이엔씨)
설비 · 전기	Klaus Daniel, Klaus G. Peter(HL-PP Consultant)/ 정차수(한일MEC), 윤정일(협인전기)
소방 · 방재	Klaus Daniel, Klaus G. Peter(HL-PP Consultant)/ 황현수(한국방재), 윤명오(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시 공 사	삼성물산건설



Location	11-1, Daehye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Site area	539,549.70㎡
Bldg area	136.84㎡
Gross floor area	68,657.24㎡
Bldg. coverage ratio	15.03%
Gross floor ratio	56.83%
Structure	R.C
Bldg. Scale	B6, F1

1_CG 2_야경경관

횡방향의 스포츠 스트립은 스포츠 활동 및 대학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캠퍼스의 새로운 관문이다. 이 공간은 대학과 신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마치 수평의 광고게시판과 같이 대학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건축 이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조경은 주목할만한 측면으로 '캠퍼스 밸리' 는 대지에 각인이 새겨진 듯이 이화여대의 캠퍼스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다. 광장을 통해서 시작되는 긴 경사와, 석재벤치 및 계단은 관람석으로 사용될 수있는 야외 원형 극장 기능으로도 가능하다. 두개의 높은 유리 절벽과 같은 커튼월 입면은 건물내에 자연채광을 제공한다.

순수하고 단순한 매스의 건축 및 인테리어로 매우 추상적인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밸리의 커튼월, 특히 외부의 미러 스테인레스 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독일,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오랜 연구를 요구했다. 국내의 까다로운 풍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고강도의 스테인레스 스틸 프레임, 볼트, 수평브라켓, 캐노피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로 인해 전체적인 디자인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은 요소들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는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은 자연스러운 돌길, 무작위로 심어져 있는 듯한 수목들로 인해 더더욱 지하에 건물이 없는 듯한 느낌을 창출한다.

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 조경계획은 옛 것과 새 것의 경계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정원을 되돌려준다.

Dominique Perrault

First, the new entrance leads to a transversal platform for sports training and occasional events and celebrations. This space creates a link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city. This permanently animated space is like a screen which shows the activity of the University. This empty space creates also a view where the several buildings are displayed and where the Campus Valley takes place.

A landscape then, more than an architectural work, 「The Campus Valley」 is engraved into the ground and marks the entrance of University site like a furrow. Starting by a long slopping down esplanade, it rise up at his edge with benches and steps which can be used as an outdoor amphitheatre. The so profiled valley marks the axis of the campus, organises the collective functions and distributes the old buildings as an Anglo-Saxon campus.

The two mirror facades erected face to face design two high glass cliffs who bring natural light to the buried spaces mixing opportunely the study places (conference rooms, libraries), administration with cultural and commercial spaces like movies, theatre, restaurants and shops.

Than the urban dimension and the territory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object. This building without emergence transforms the topography of the place and completely modifies



the urban geography by linking physically the building and visually the elements of the site into a new global landscape.

By burying the complex, as in the French National Library in Paris with its sunken garden in the middle of a wood deck framing, or in the Velodrome and Olympic swimming pool in Berlin engraved in an apple tree orchard, I have the desire, physically speaking, to appropriate the territory, to mingle the constructed material with the ground, the desire to exploit to its paroxysm the idea that "concept and matter have to grapple one with another".

The genealogy with the previous projects is evident when we consider the fantastic excavation required by this construction. After tree years of work with Ewha, Baum architects, the local consultant and Samsung construction the valley are the only remaining part of that void. The tree sunken architectures buildings are buried to liberate the territory above. A contemporary metropolis as Seoul seems to have a dramatic need of building who creates a breath in the city to balance the fast densification of real estate developers.

With a pure and simple geometry of the building outline and interior we can reach a very abstract effect. The curtain wall of the valley, especially the exterior mirror steel fin is a new technological element which required an experimental development made in collaboration with Samsung engineers. Designed and rigorously built to resist to high wind stress, with its very material, strong and heavy the full stainless steel blades, bolts, brackets and canopies are disappearing due to the huge scale. In the middle of the valley, only remains become dreamlike immersion between two cascades of light.

All together, by using simple shapes which allow the materials to show their pure appearance, we can reach an immaterial effect which participates to the disappearance of the building.

Finally the building disappears under the rooftop garden. It has a very natural aspect, walk paths are made of rough natural stones, evergreen bushes and flower trees like spiraea prunofolia, rhododendron, kerria, are planted randomly.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 landscape department, the garden is really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park. This harmony reinforces the disappearance of the building. With this garden and by creating the amphitheatre we are giving back this territories to the students and professors, we not only recreated fluidity of movement but generated new activities, inviting people to take possession of the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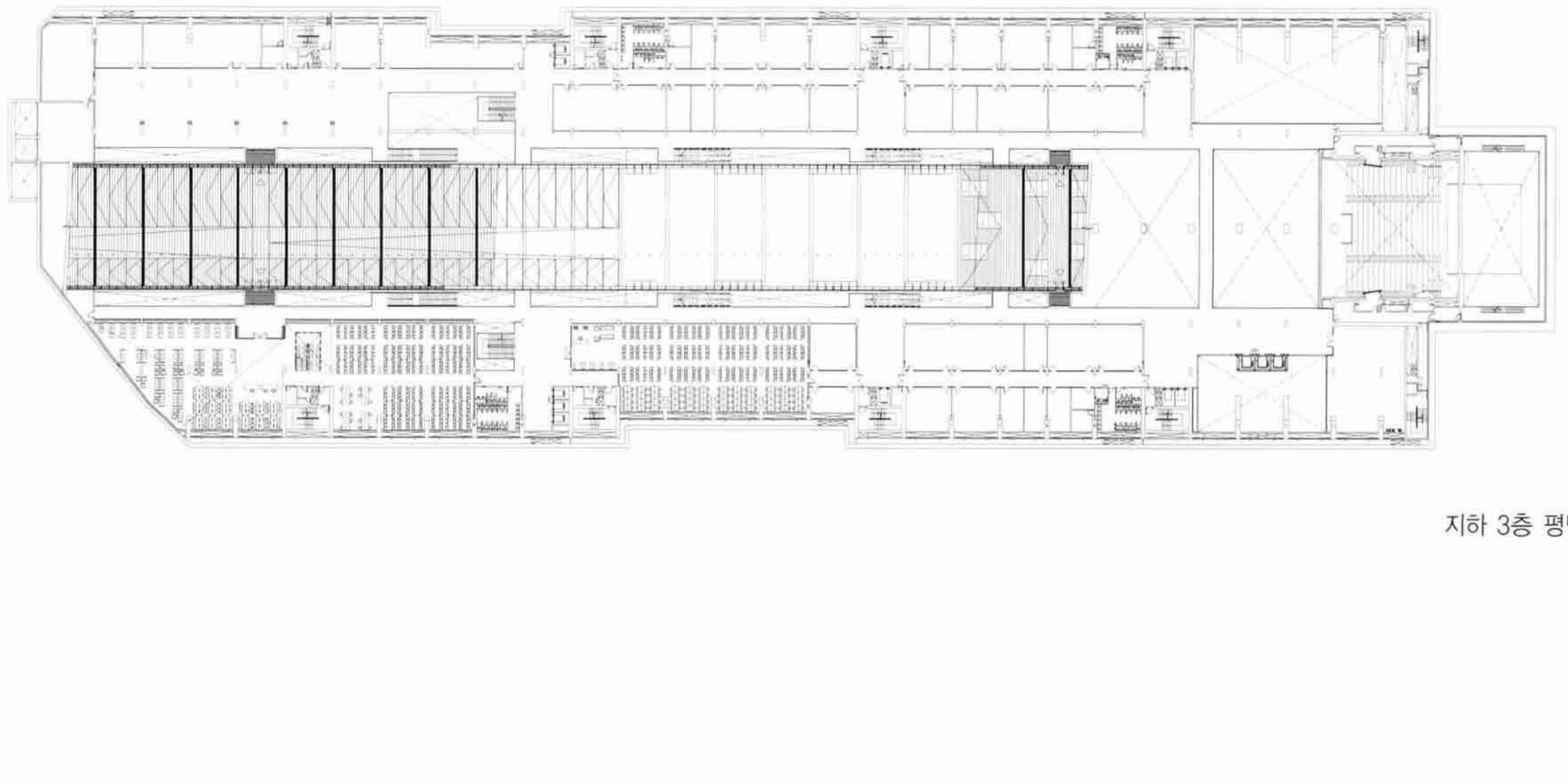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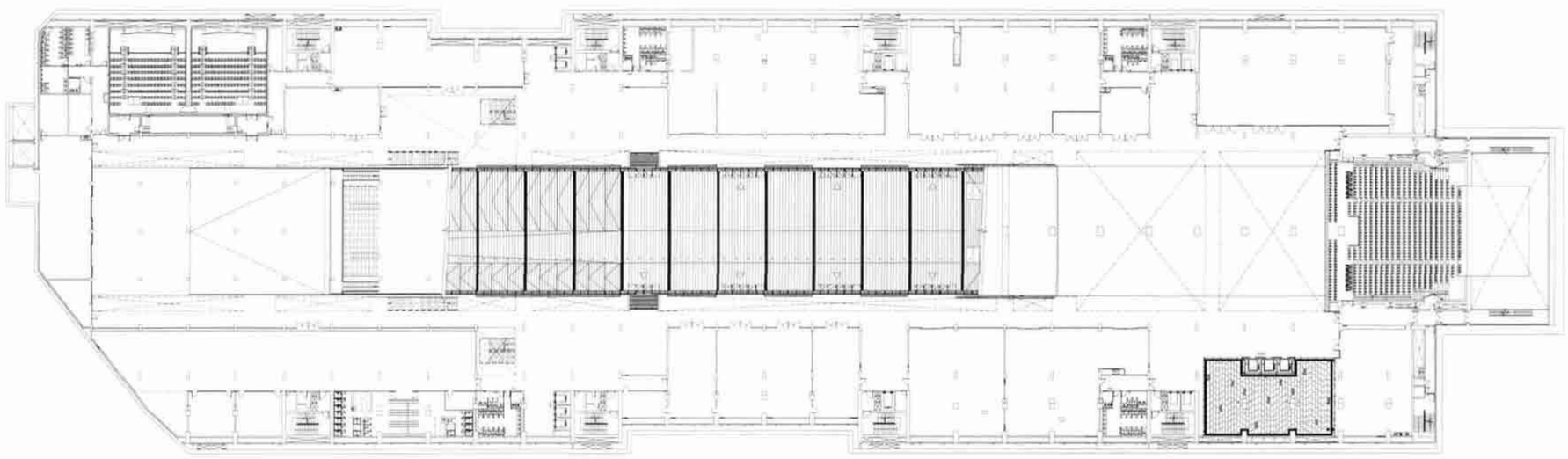



10
8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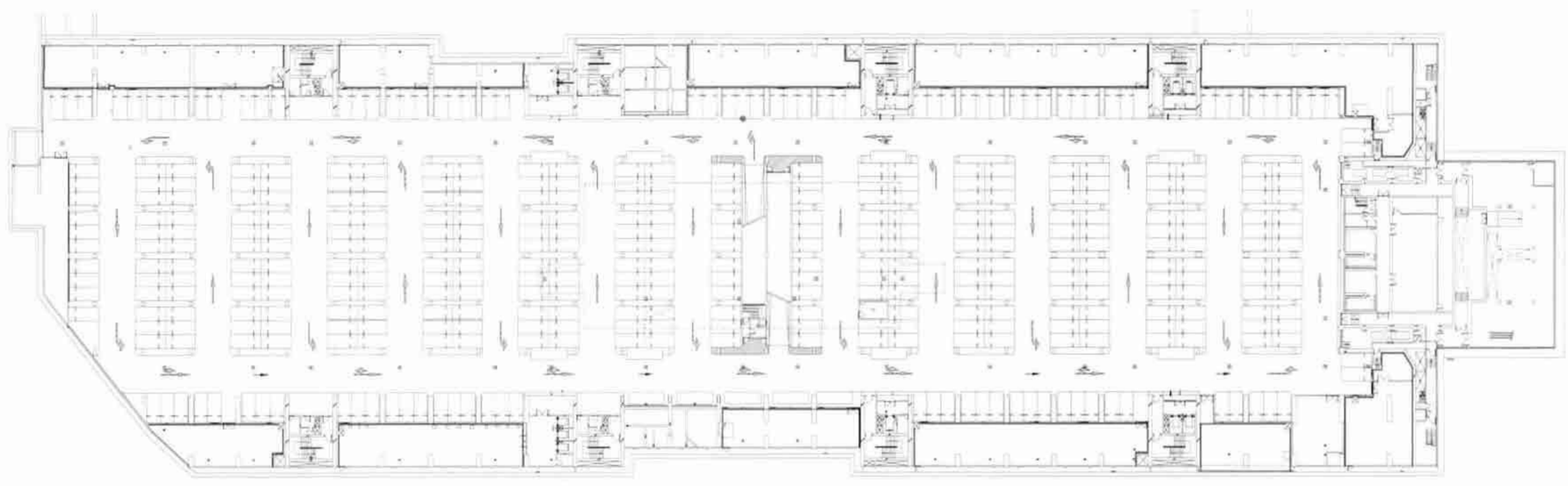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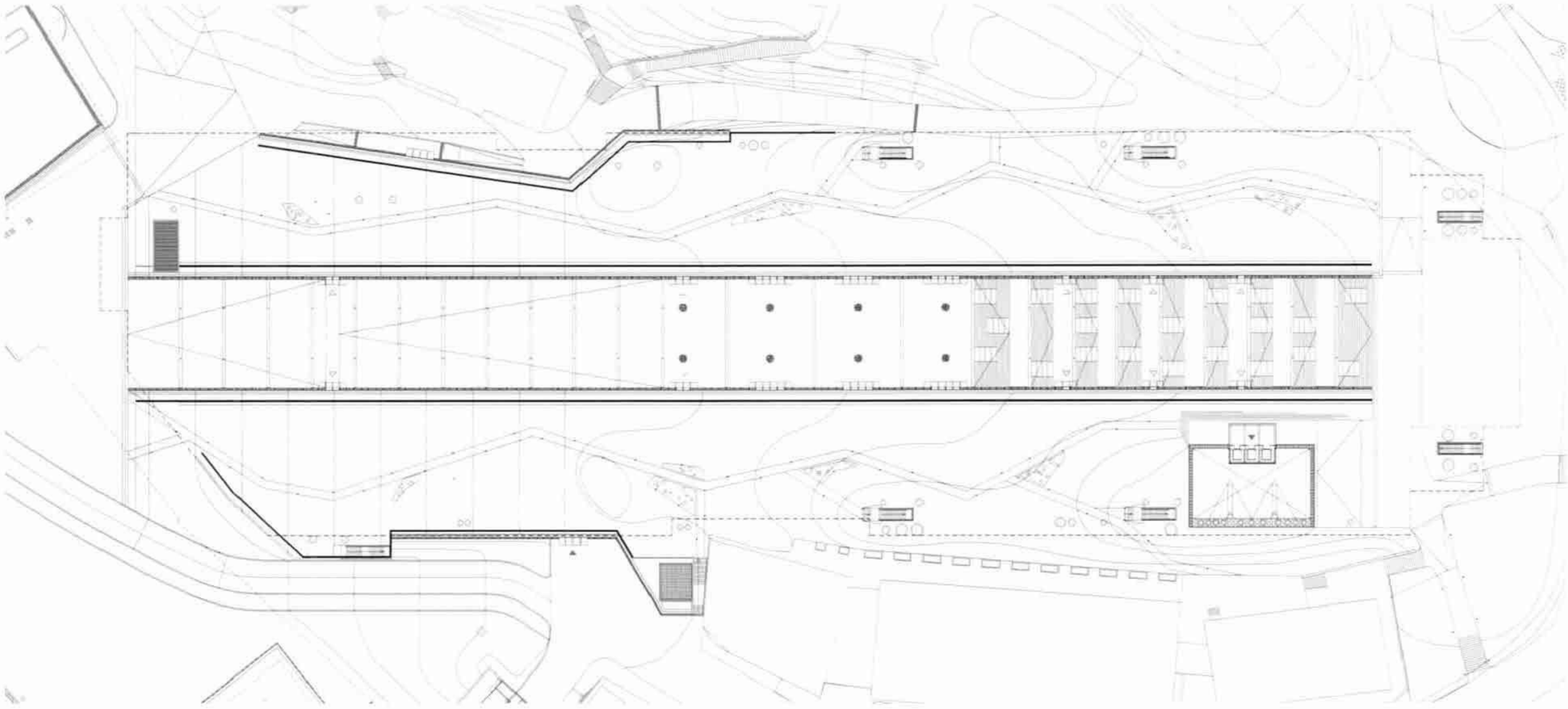
지하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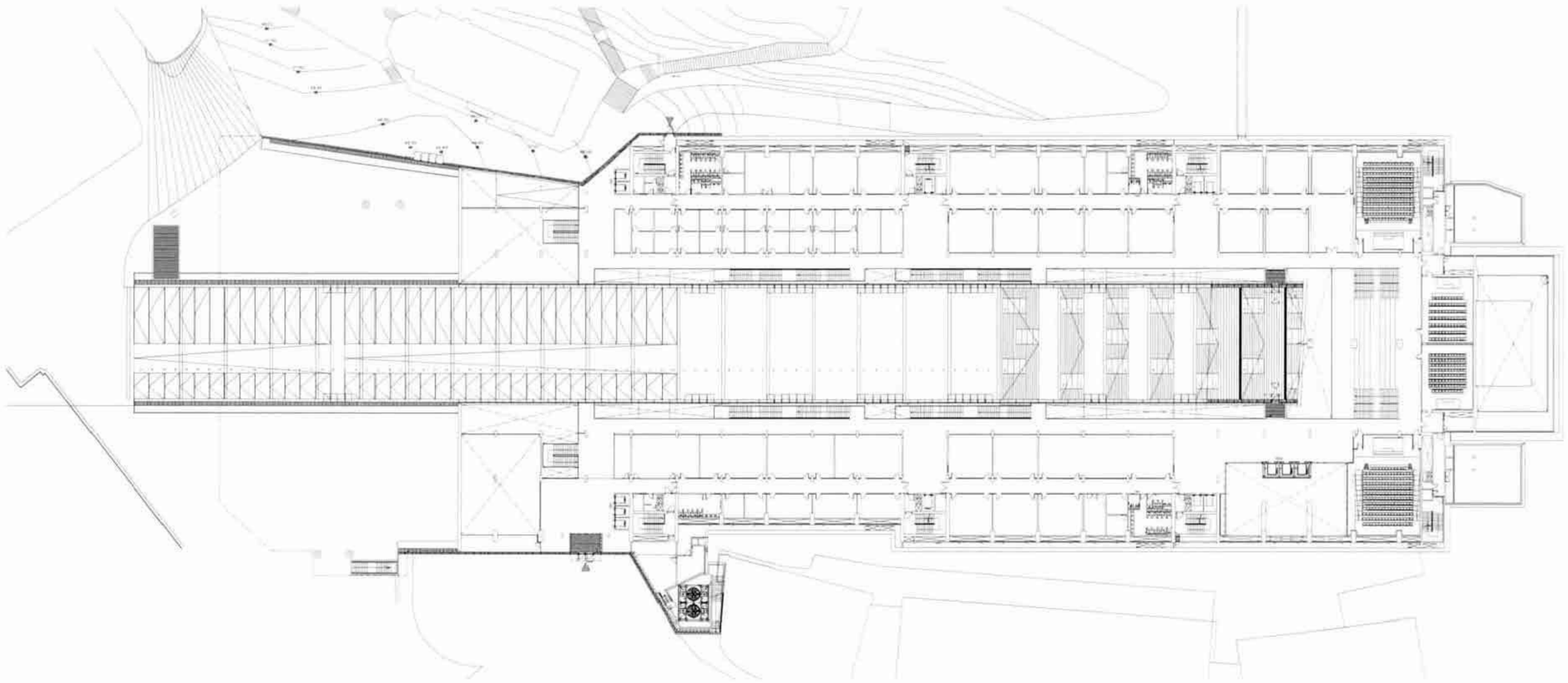
지하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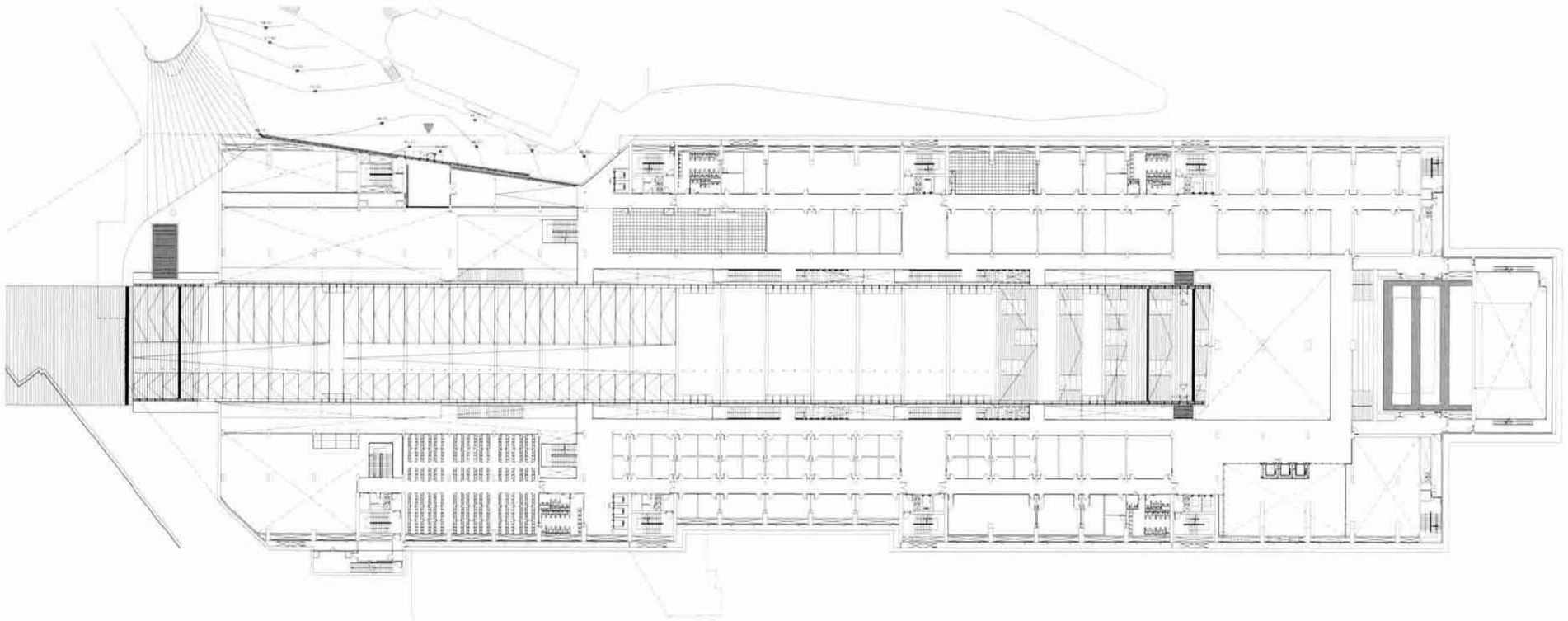
지하 6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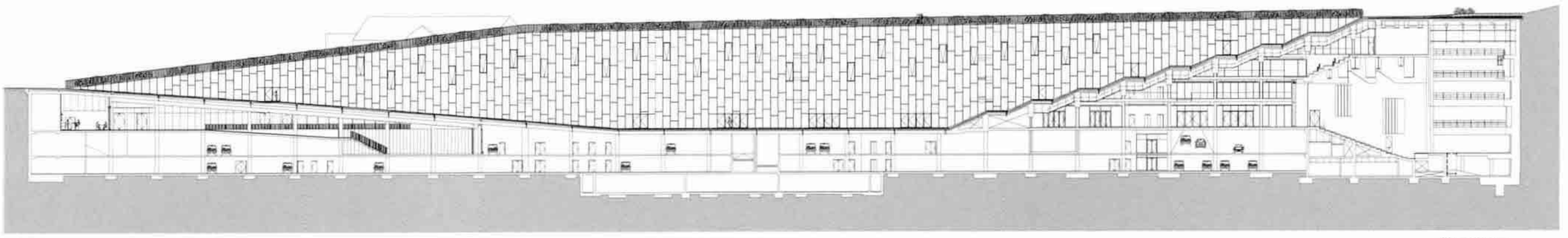
1_ 카페
2_ 지하 1층 전망용 엘리베이터홀
3_ 지하 4층 전망용 엘리베이터홀
4_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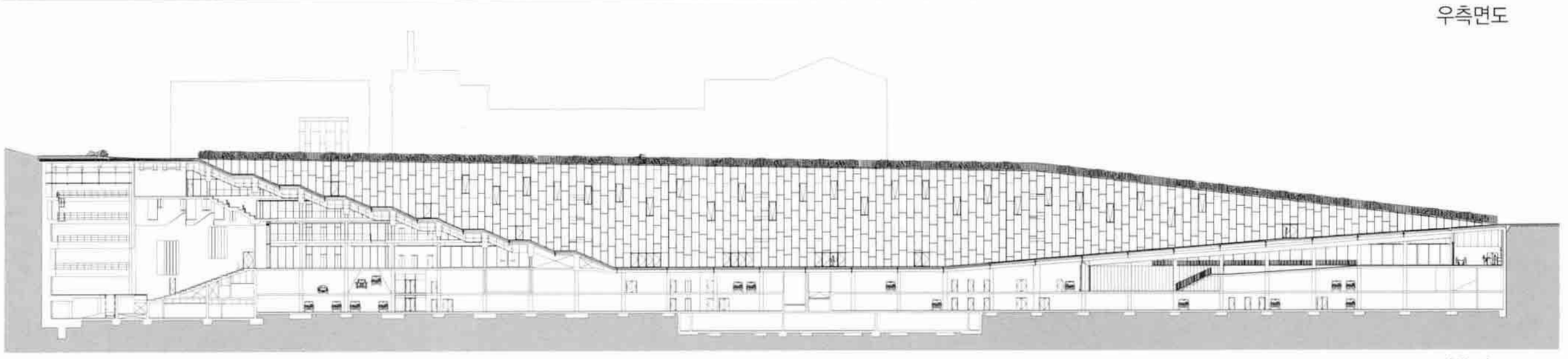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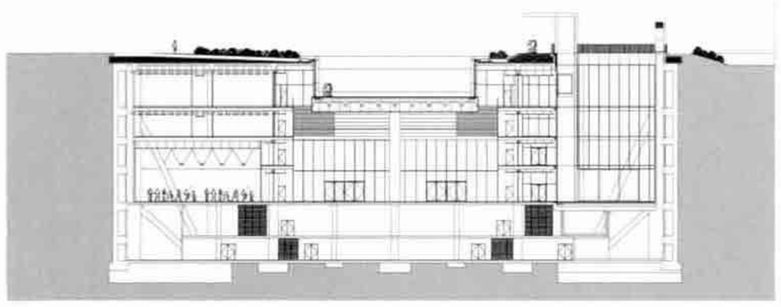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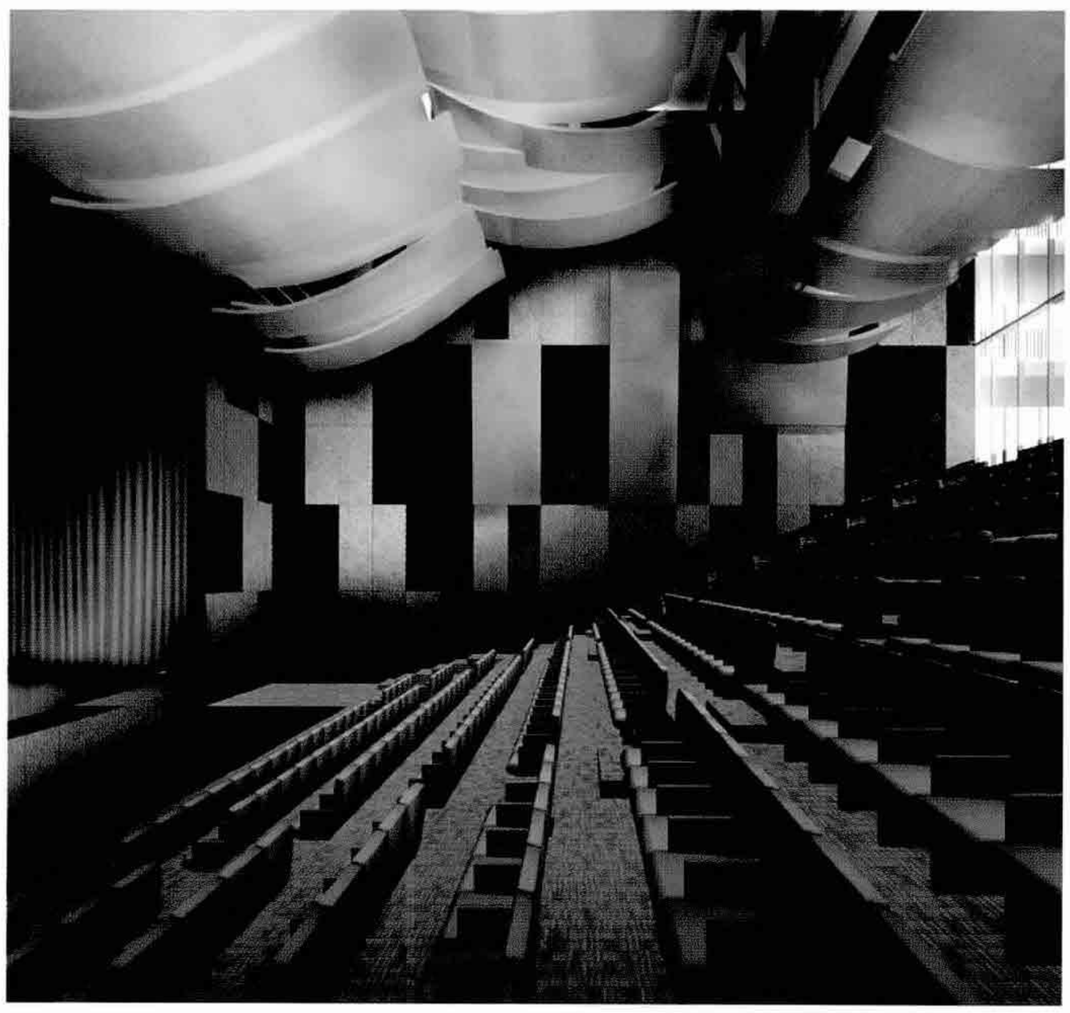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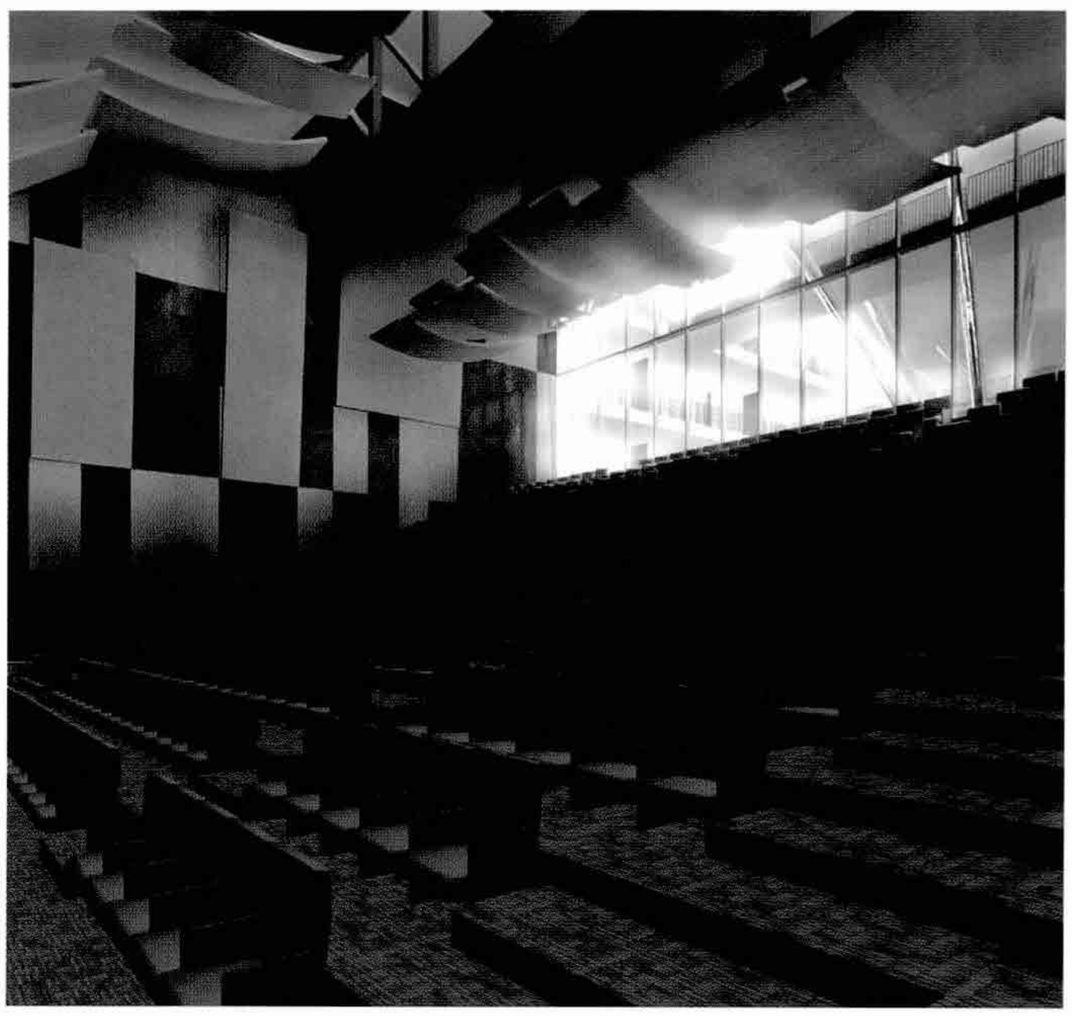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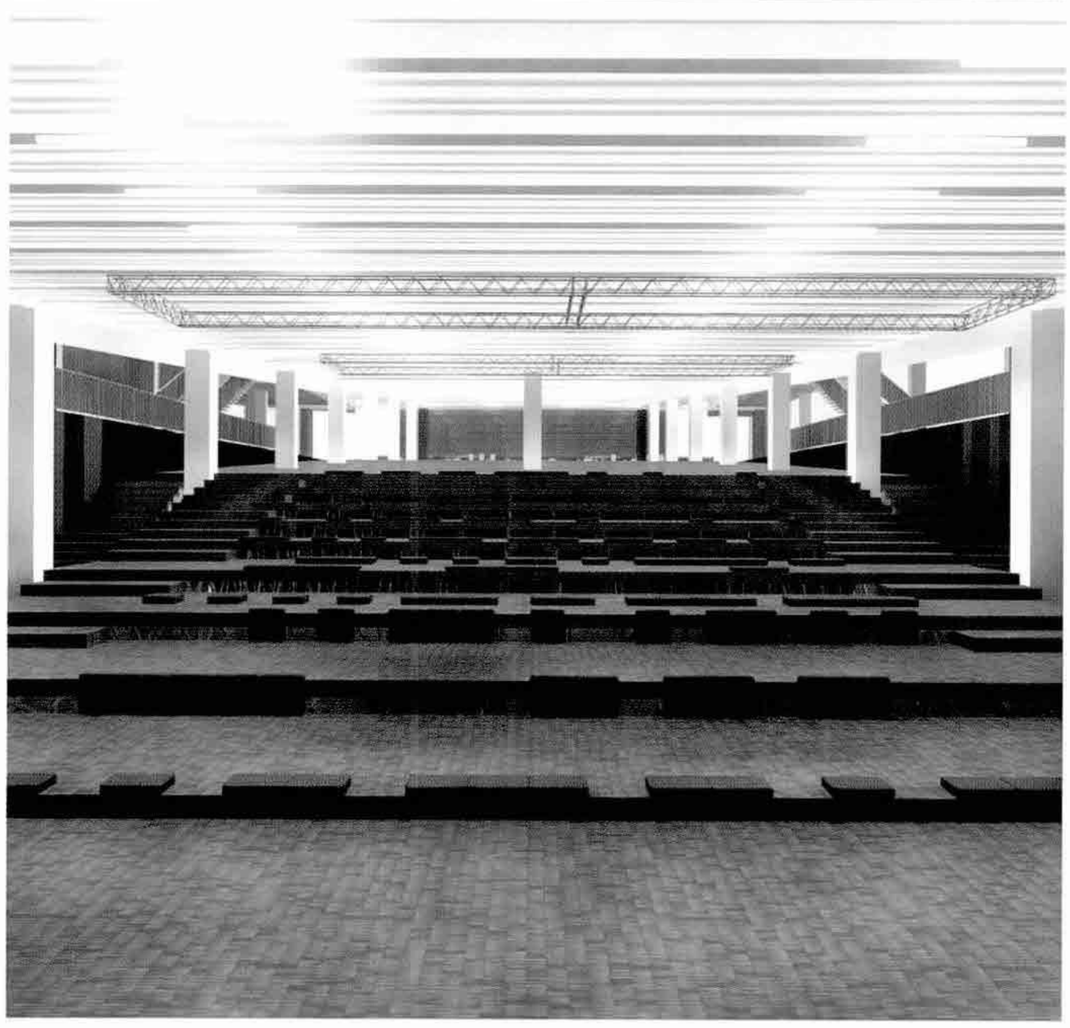


BB열EE열 단면도

종단면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
Hotel Ibis Ambassador Suwon



상대정 / 정회원, (주)야마사키코리아 건축사사무소
by Sang, Dae-jung,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 동양시멘트/건설 설계기획팀
- 연희건축사사무소
- 현 (주)야마사키코리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홍태선 / (주)야마사키코리아 건축사사무소
by Hong, Tae-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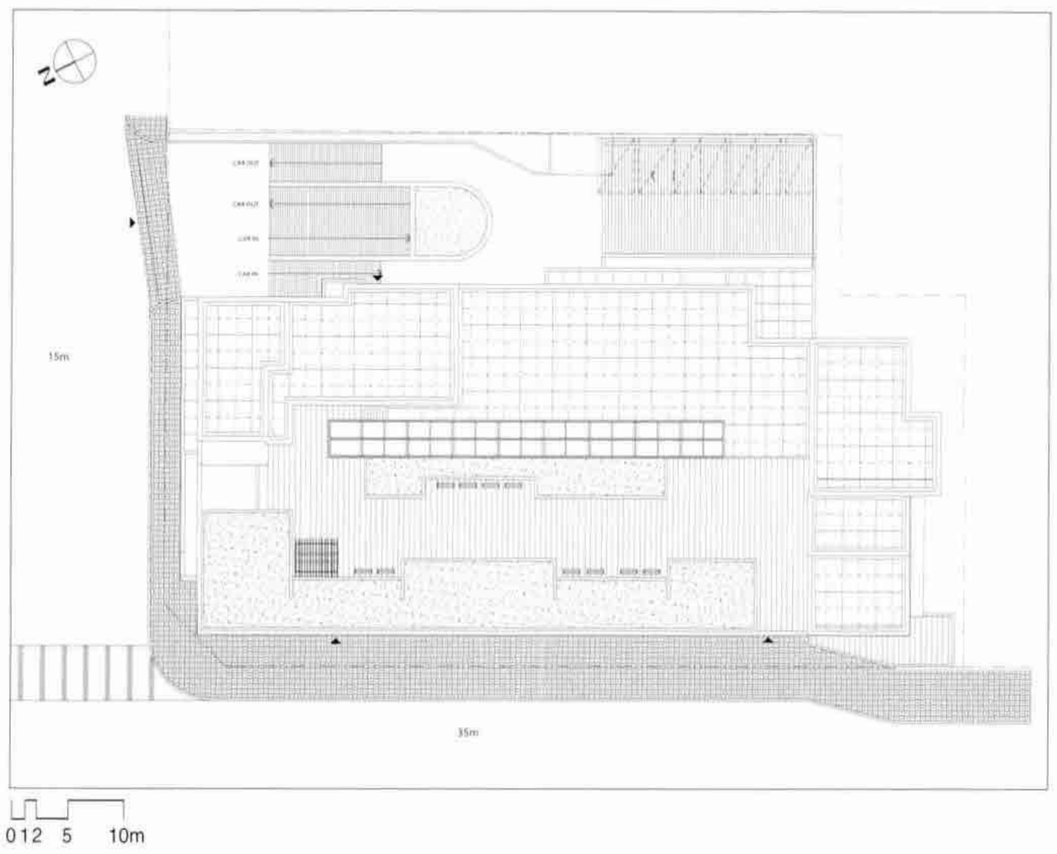
약력
-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Yale University 건축학석사
- 현 미시간 크랜부룩 School/ Paint Creek Art Center 이사
- 현 (주)야마사키 코리아 대표 CEO



김진욱 / (주)조암 건축사사무소
by Kim, Jin-wook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2004 한국건축가협회 초대작가
- 2004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
- 현 (주)조암 건축사사무소 대표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구,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요용도	관광호텔(비즈니스호텔)
대지면적	3,364.00㎡
건축면적	2,308.54㎡
연 면 적	39,753.89㎡
건 폐 율	68.62%
용 적 률	647.97%
규 모	지하 7층, 지상 1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철골구조(증축 및 보강부)
내부마감	대리석, 페인팅글라스, 카펫, 타일
외부마감	FC패널, 스텐레스 스틸, 슬레이트석, THK24/28 칼라복층유리, 알루미늄시트, 화강석 잔다듬, 부켈라
구조설계	(주)동양구조
설비설계	(주)삼영MEC
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인테리어	희훈디자인
시 공 사	쌍용건설
설계담당	구승회, 김지선, 김경수, 김인성, 한정우 / 최문영, 서현희



Location	1132-12, Ingye-dong, Suwon-si Paldal-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3,364.00㎡
Bldg area	2,308.54㎡
Gross floor area	39,753.89㎡
Bldg. coverage ratio	68.62%
Gross floor ratio	647.97%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7, F13

1_ 투시도 2_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전경



수원 이비스 호텔은 본래 아웃렛 쇼핑몰이었던 11층 건물을 13층으로 증개축하여 컨벤션과 연회장을 구비한 비즈니스 호텔로 Renovation하는 프로젝트였다.

새롭게 태어난 건물은 호텔의 용도로서 건축주의 요구조건에 따라 1층은 호텔 로비 및 라운지, 2층 뷔페 레스토랑, 3층~5층 컨벤션홀 및 연회장, 6층 관리 및 사무공간, 7층~11층 호텔 객실부, 12층 대형 컨벤션홀, 13층 기계실로 구성되는 다기능(Multi-Functional)적인 프로그램 적층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에 쇼핑몰의 공간체계를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전혀 다른 공간의 위계 질서를 가진 호텔 용도로 바꾸는 것이 도전적 과제였을 뿐 아니라 쇄락한 건물의 이미지를 외관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개선하는 것과 서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층하면서 기능적인 연결성을 해결하는 것 또한 큰 과제였다.

일정한 모듈과 깊이로 구성한 호텔 객실을 배치함에 있어 최상층으로부터 중정 형태의 빛우물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세모듈 깊이로 구성된 평면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빛우물은 자신을 둘러싸며 배치된 객실에 빛을 들이는 기능적 역할 또한 해줄 수 있다.

수직동선(엘리베이터)의 추가설치와 공간이용에 따른 효율적 분리로 상하로 움직이는 상이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동선이 구별되도록 하였고, 업그레이드된 보안방식(Security System)은 이를 보완해 준다.

호텔 내에서 각 층마다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층고와 다양한 크기의 개구부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자칫 이것은 건물의 입면에 드러나 거칠게 짜깁기되며 혼란 속에 빠트릴 위험이 있었다.

단일한 재료를 쓰되 의도된 불규칙성(irregularity)을 가진 입면 모듈을 디자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돈된 완결성(integrity)을 역설

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디자인 전략을 가지고 많은 안을 개발했고, 그 중 비용이 가장 합리적으로 적게 들며, 무난한 안을 건축주가 선택하였다.

최종적인 입면의 재료로서 차분한 진회색 계열(dark grey tone)의 FC패널(Fiber Cement Panel)을 큼직 하게 적용하여, 건물의 고급스러운 재질감과 주변 건물 외관의 요란함과 대비를 이루도록 의도하였고, 저층부 주출입구로 들어서기 전 코너에 위치한 빅사이즈 기둥은 짙고 거친 석재인 슬레이트석으로 이질적 요소로서 디자인하여 입구성을 강조하며 인지적(identification)인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건물을 수많은 계획안과 차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험난한 시공과정에서도 최선을 추구하며 새로이 부활시키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고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기에, 거듭난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은 기존의 건물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강하게 차별화되어 옛 건물이 가지고 있던 장소적 기억과 이미지를 탈피하고 수원 중심부에 위치하는 전혀 새로운 건물로서 각인되어 주었으면 한다.

1_ 기존 건물 전경
2_ 남서측 도로에서 본 건물전경
3_ 진입부에서 올려다본 건물외벽
4_ 부출입구측에서 바라본 건물 가로전경
5_ 북측도로에서 바라본 저층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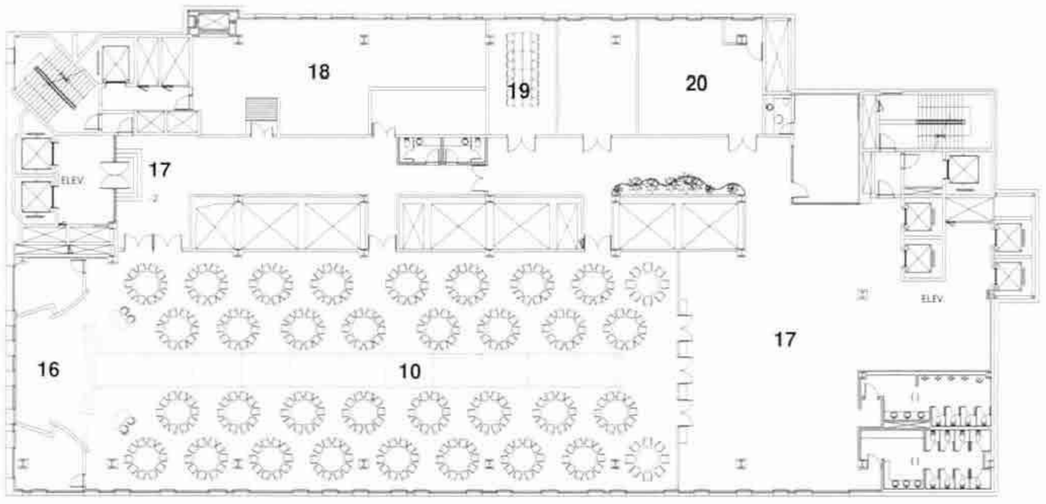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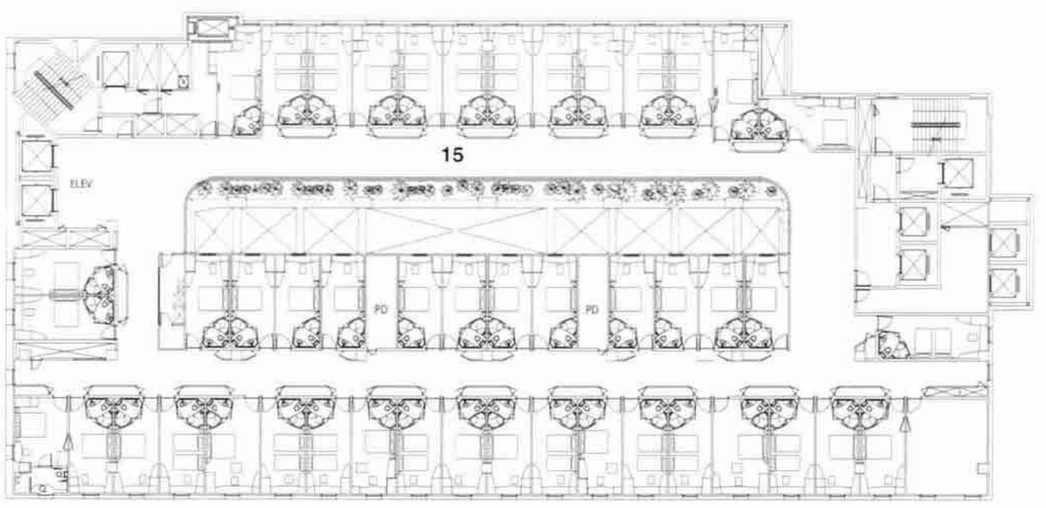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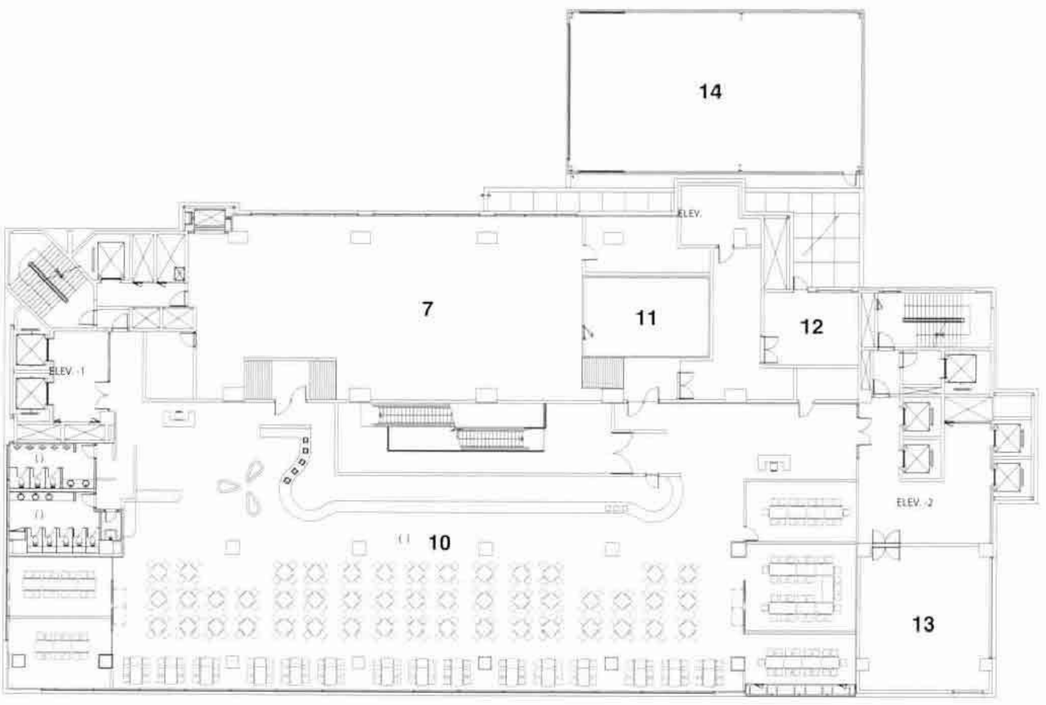
01_ 로비
02_ 프런트 데스크
03_ 사무실
04_ 상점
05_ 뷰티숍
06_ 예약 사무실
07_ 주방
08_ 라운지 레스토랑
09_ 데크
10_ 연회장
11_ 냉동창고
12_ 외조기실
13_ 공조실
14_ 물탱크실
15_ 객실(48실)
16_ 무대
17_ 홀
18_ 보조주방
19_ 소연회장
20_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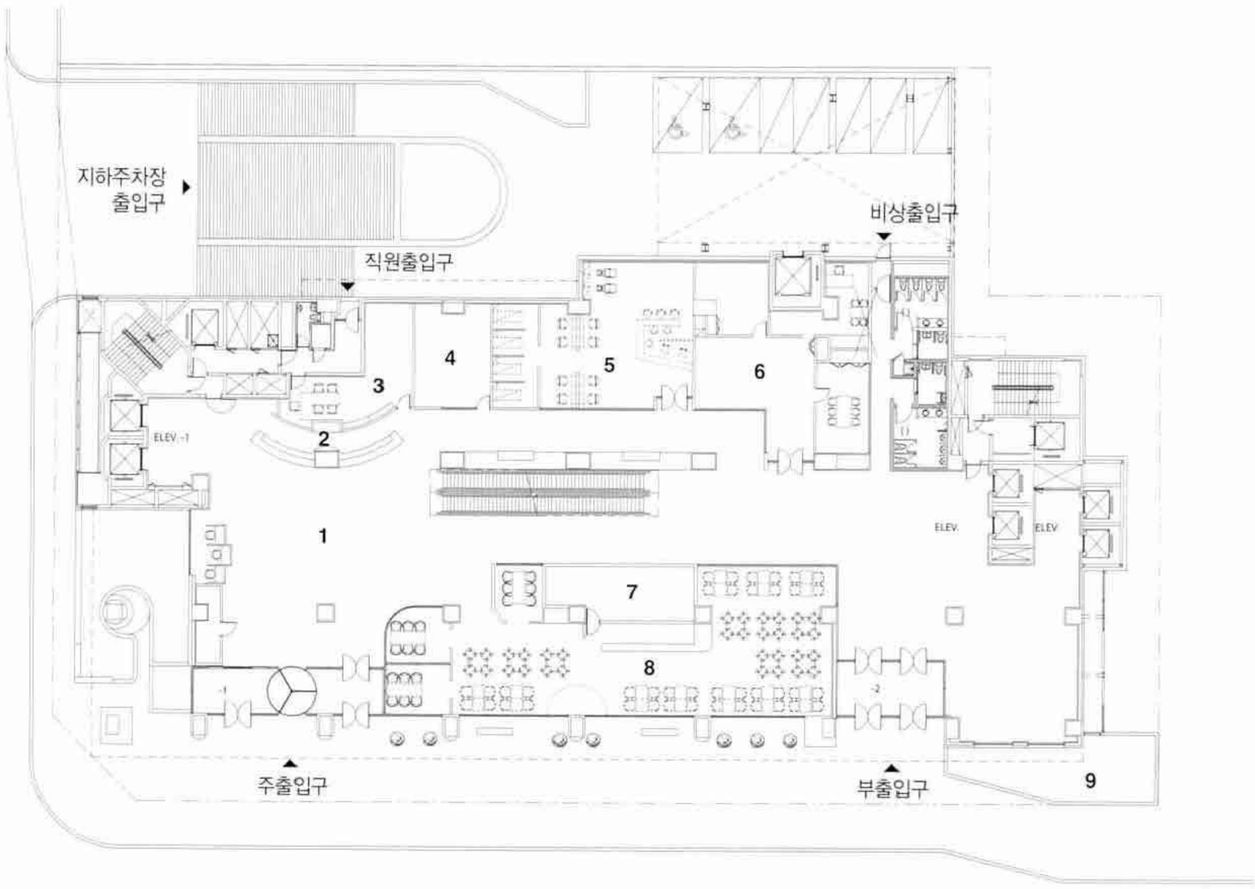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8~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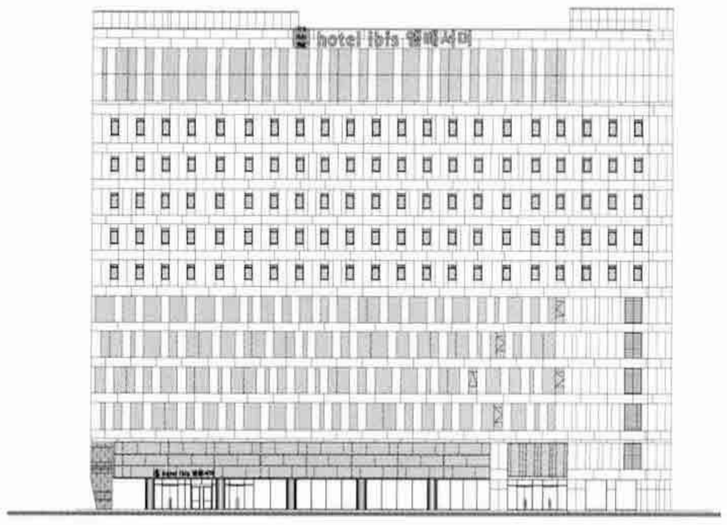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2 5 1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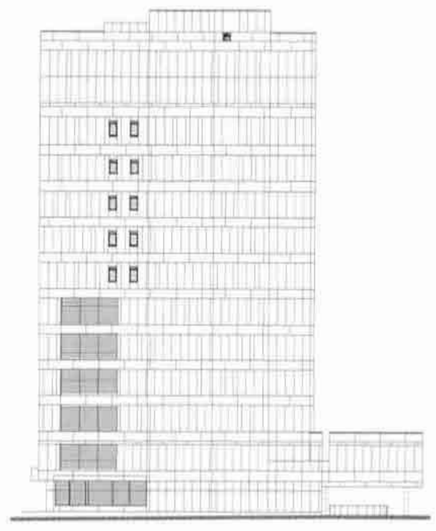


012 5 10m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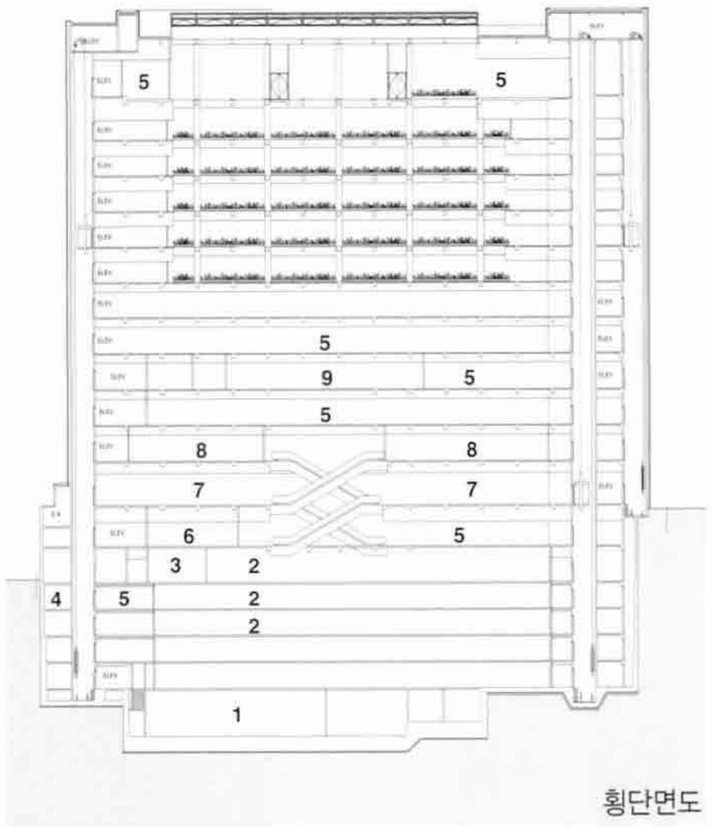


1_ 컨벤션홀 내부 복도
2_ 12층 VIP룸
3_ 객실층 내부 복도
4_ 객실(주니어 스위트룸)
5_ 12층 대연회장
6_ 12층 대연회장
7_ 1층 라운지까페
8_ 하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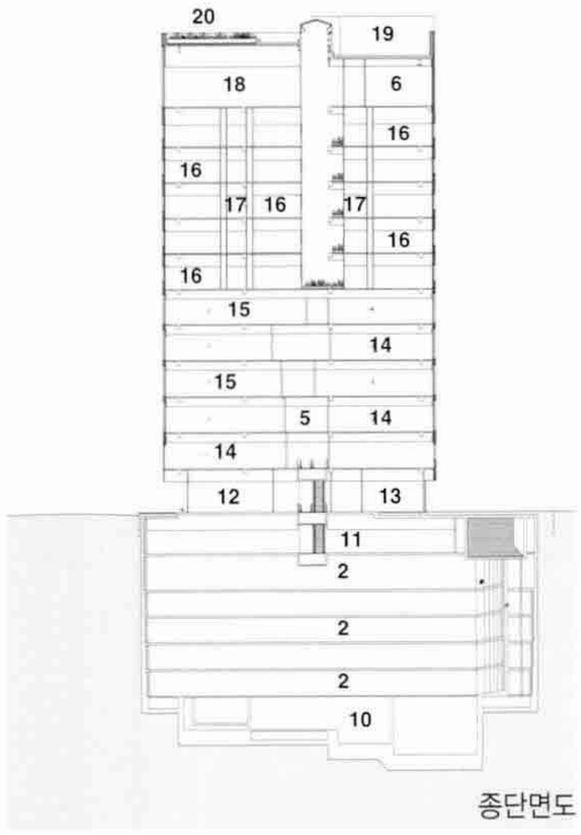






횡단면도

01_ 기계실
02_ 주차장
03_ 냉장창고
04_ 창고
05_ 홀
06_ 주방
07_ 로비
08_ 연회장(부페)
09_ 웨딩홀
10_ 전기실
11_ 사무실
12_ 라운지/카페
13_ 뷰티샵
14_ 연회장
15_ 회의실
16_ 객실
17_ 복도
18_ 대연회장
19_ 냉각탑
20_ 옥상정원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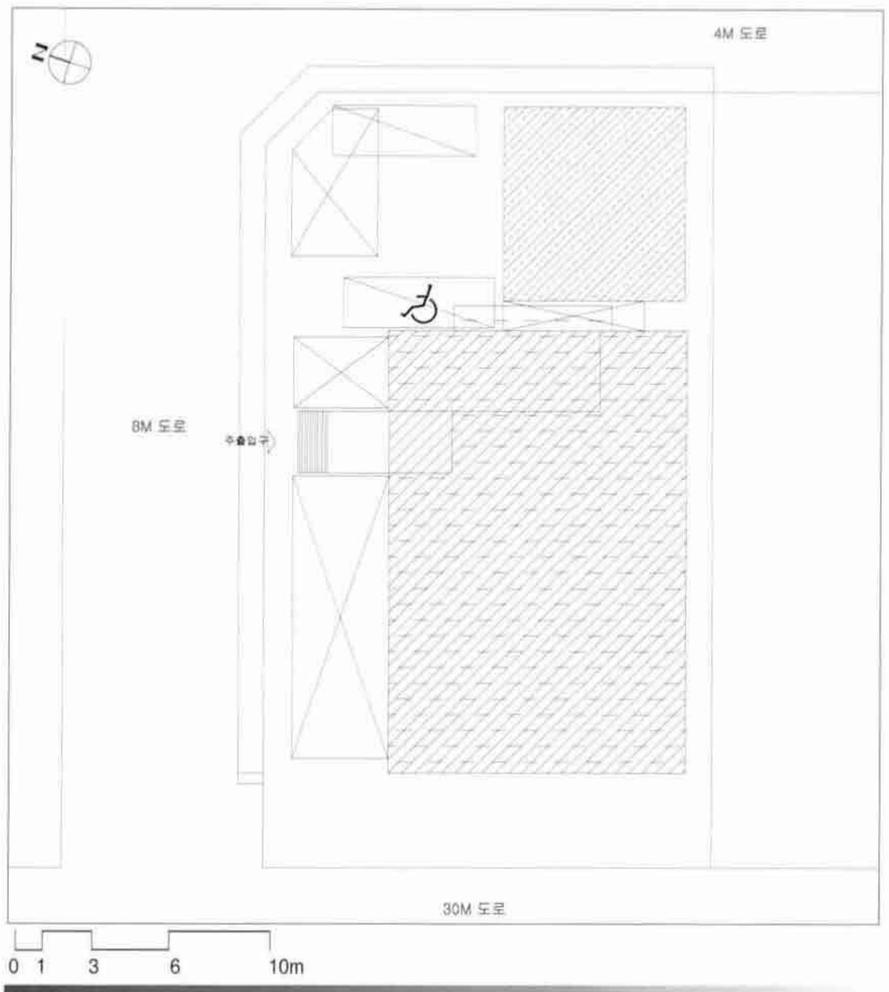
김휘열 / 정회원, E.D.A 건축사사무소
by Kim, Hwi-yeol, KIRA

약력

- 프랑스 국립 Paris 건축대학(UPA6), 프랑스 소르본 파리1대학 박사과정(D.E.A학위)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겸임교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 역임
- 프랑스 정부공인 건축사(Architecte D.P.L.G)

역삼동 페트라 빌딩
Yoksam-dong PETRA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46.80㎡
건축면적	282.91㎡
연 면 적	2,396.69㎡
건 폐 율	51.74%
용 적 률	298.30%
규 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디럭스타일, 벽:수성페인트, 천장:무석면텍스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THK18 칼라복층유리
구조설계	믿음구조
설비설계	송정MEC
전기설계	(주)동양기술단
시 공 사	(주)베타건설
설계담당	김시원, 백형철, 안삼철, 서정범

Location 659, Yeoksam-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546.80㎡
Bldg area 282.91㎡
Gross floor area 2396.69㎡
Bldg. coverage ratio 51.74%
Gross floor ratio 298.30%
Structure R.C
Bldg. Scale B2, F8



1 2 1_ 외부투시도 CG 2_ 서측대로변에서 본 전경

대지는 차병원사거리 부근 논현로에 단변이 면한 장방형 형상이며 북측으로 8m 도로, 동측으로 4m 도로에 면해있다.

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건폐율을 확보하기 보다는 적정 건폐율을 산정하여 고층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대로변에서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줄어든 건축면적으로 확보된 외부공간은 도심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4m×16.5m의 커다란 선큰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선큰공간은 다소 깊은 지하 2층까지 충분한 빛과 바람을 제공하여 번잡한 지상과는 달리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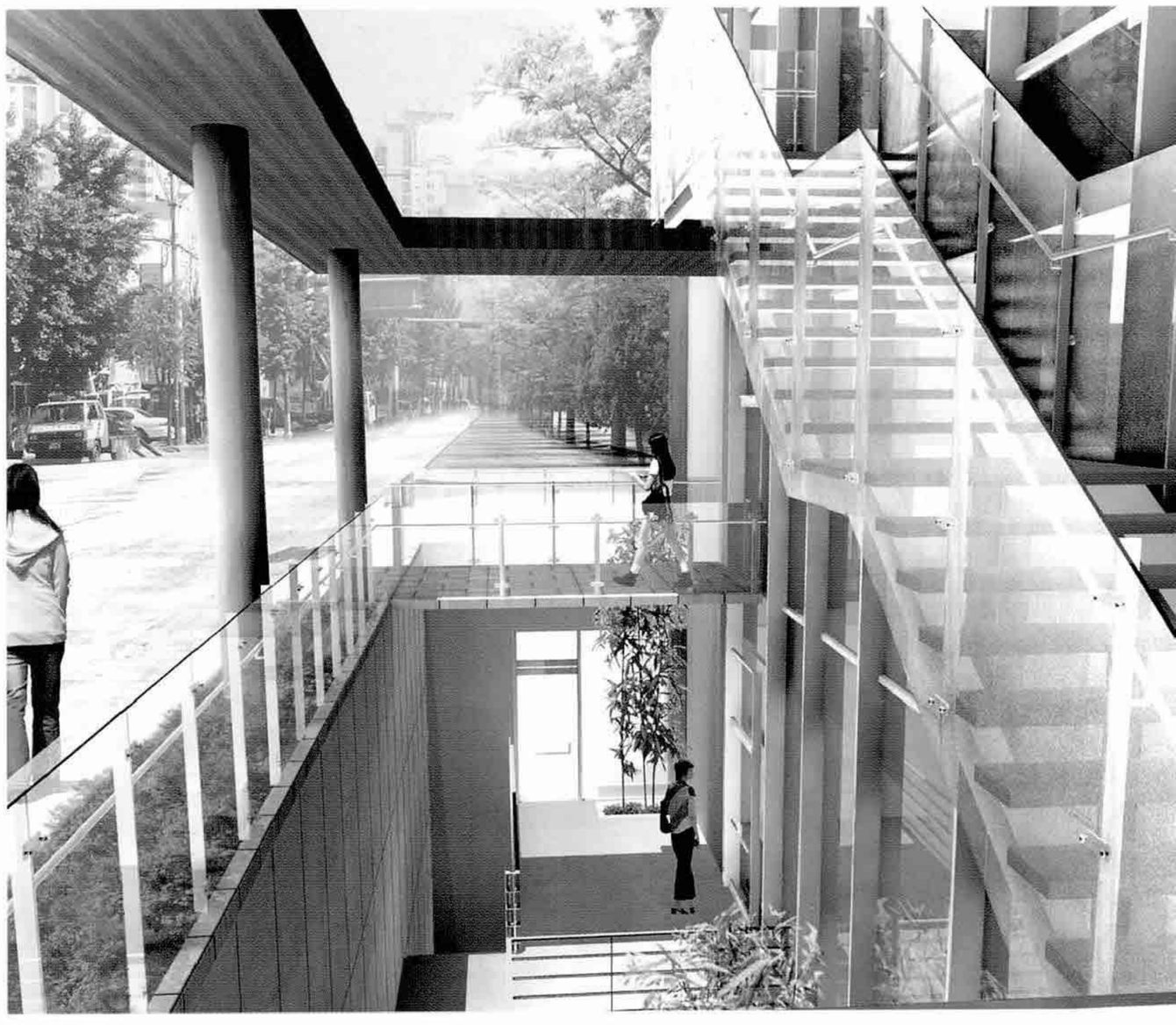
또한 이 선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결하는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대로변에서 각 층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였다.

주차방식은 타워파킹방식으로 도심지 내에서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임대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어 건물의 임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저층부는 투명한 외피로 개방성을 극대화하였고, 3층부터 8층까지의 고층부는 투명과 불투명의 조합으로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메디웰의원피부비만레이저메디웰을피부비만성
역삼프리가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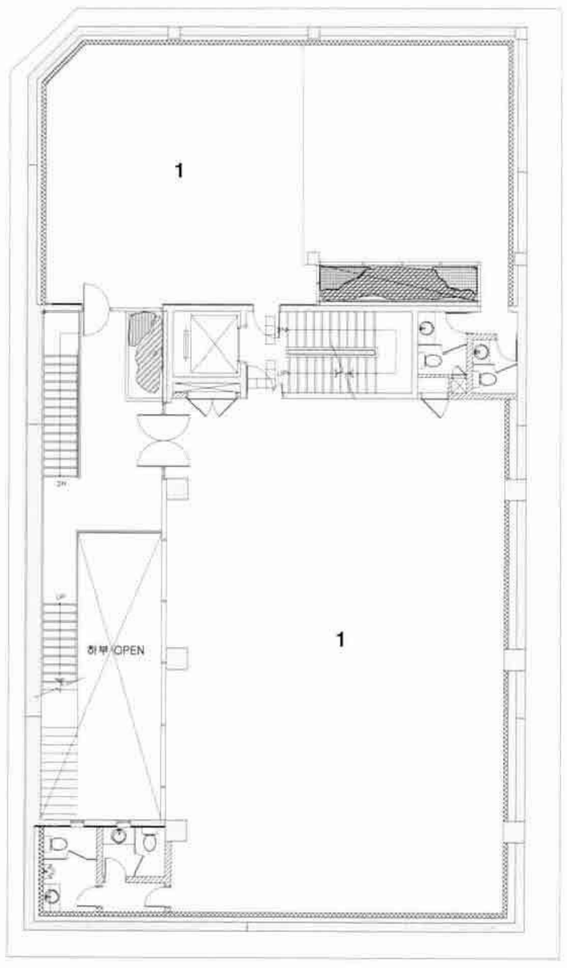



burton
BURTON
bur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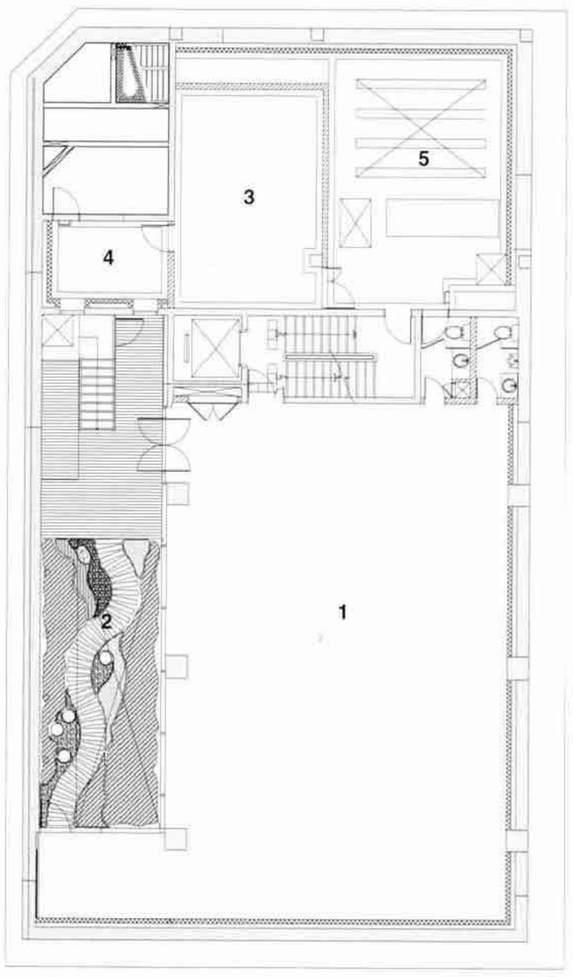
1 2
3

1_ 서측대로변에서 본 전경
2_ 선큰 부분 CG
3_ 선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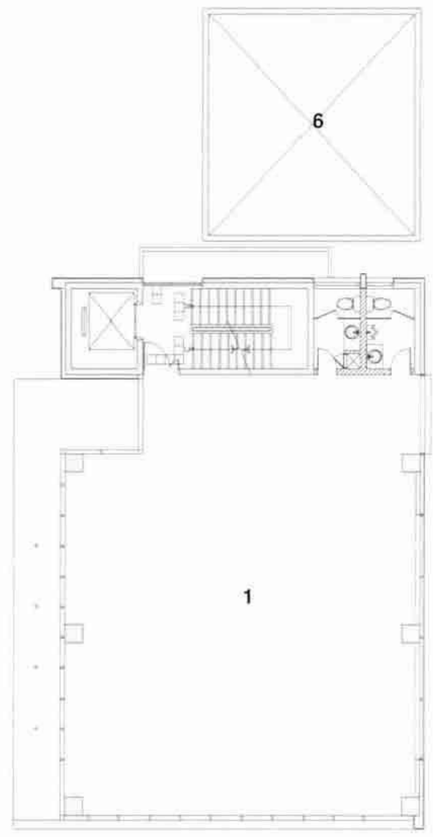
01_ 업무시설
02_ 선큰
03_ 전기실
04_ 통신실
05_ 지하저수조
06_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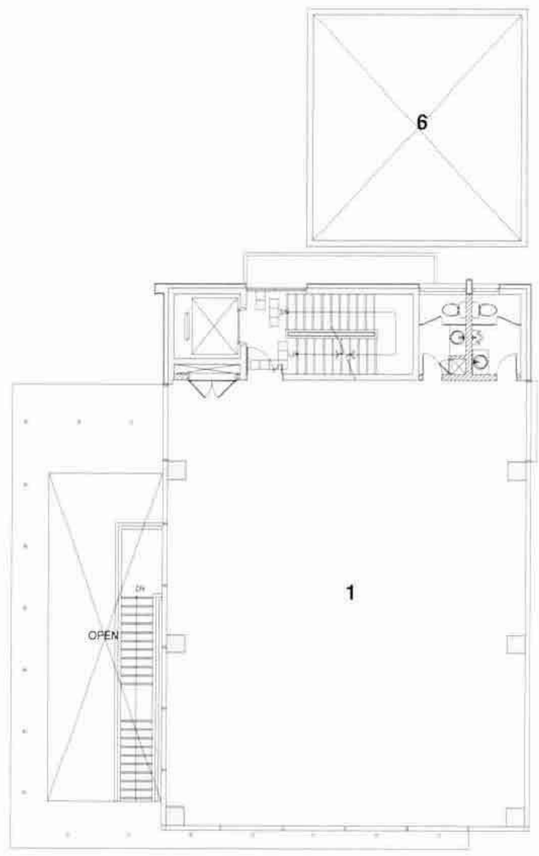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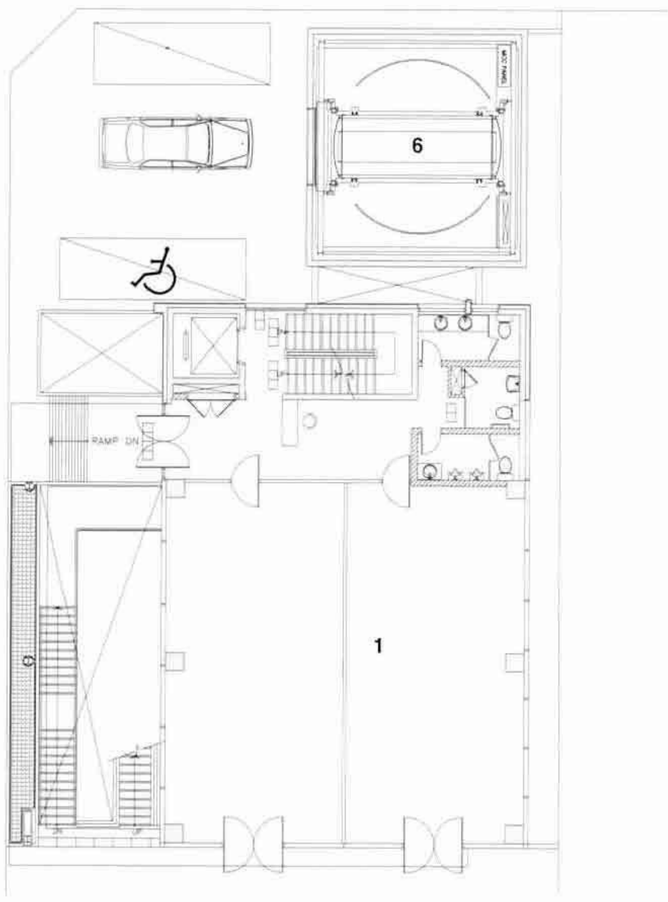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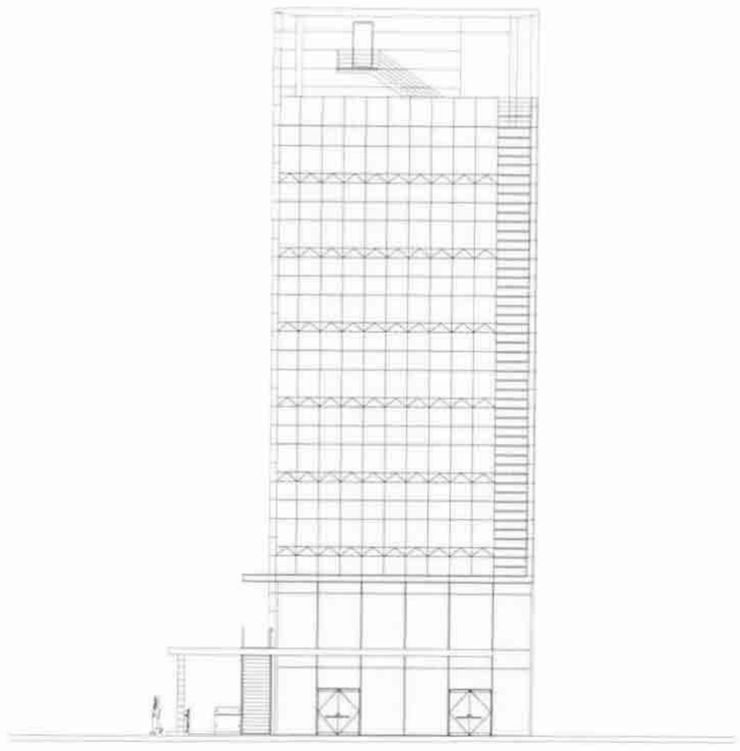
3~8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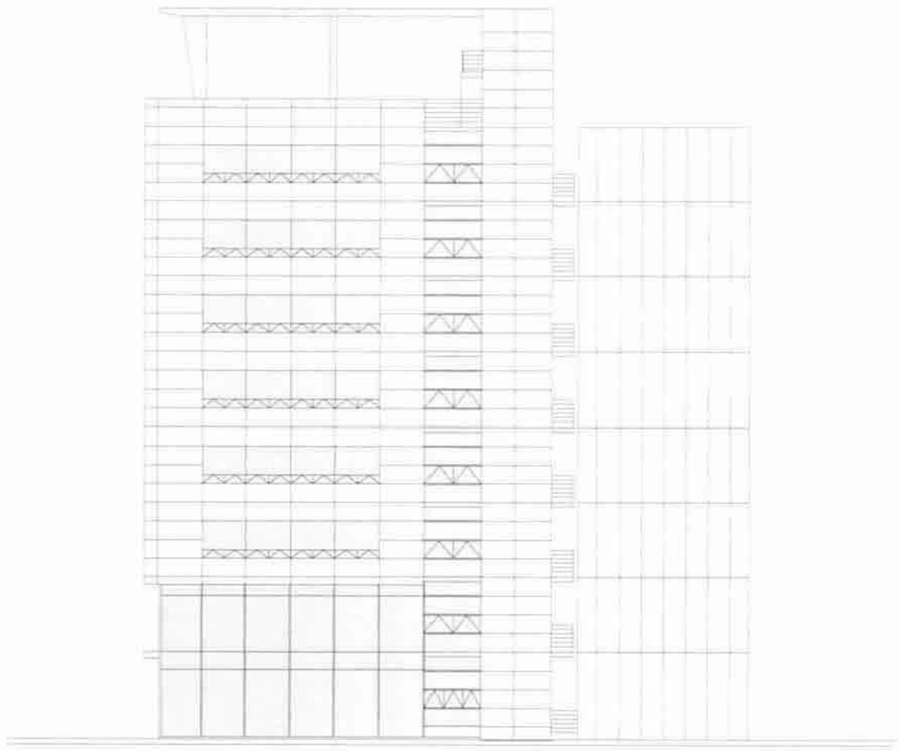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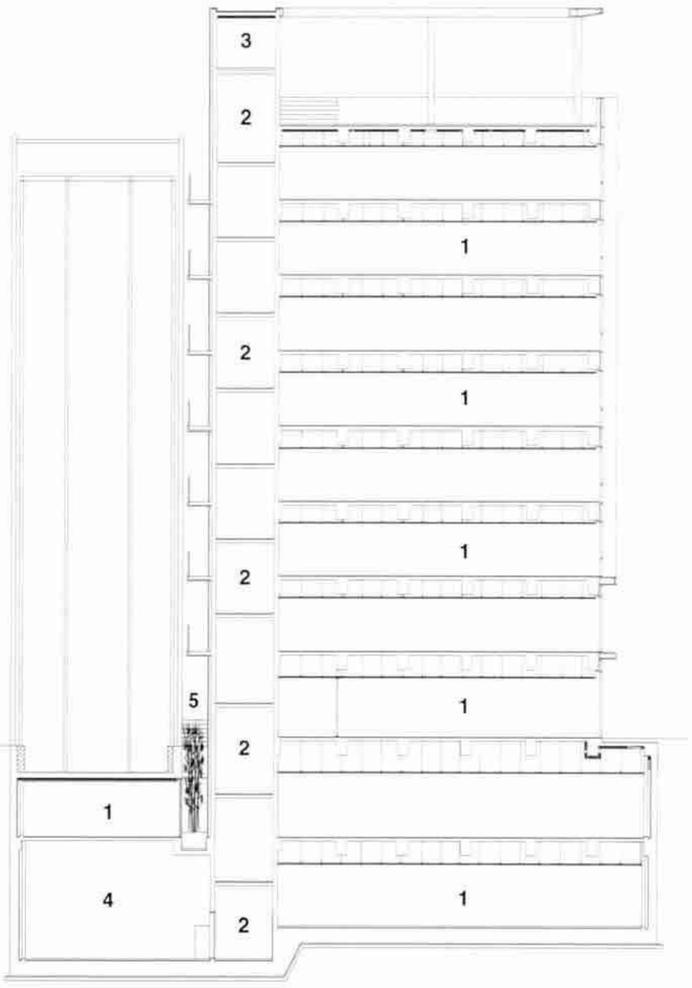
1~4_ 선큰
5_ 지하 2층에서 선큰을 바라봄







우측면도



종단면도

01_ 업무시설
02_ 계단실
03_ 물탱크실
04_ 지하저수조
05_ 선큰







design note

리조트 디자인
Resort Design Architecture



강승우 / 정회원, (주)MAI 건축사사무소
by Kang, Seung-woo,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 건축석사
- 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제25회 LA건축상 대상 수상, Western Plaza



유 찬 / (주)MAI 건축사사무소
by Yoo, Chan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Platt Institute, New York 건축대학원, 건축석사
- 현 전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겸임부교수

수빅 네오 코브 리조트, 필리핀
Subic Neo Cove Resort (2008)

위치 : Subic Philipines　**건축주** : 수빅네오코브(주)
프로젝트 타입 : Resort　**규모** : 4,620,000㎡

필리핀 수빅만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약 150만평 부지에 54홀 골프장,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주택단지, 학교,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설계이다. 계획의 목표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어우러진 배치계획을 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시행시점과 시행자에따라 적절하게 분리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휴양리조트의 유흥적인 요소와 휴양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프레져 아일랜드' 를 만들어 분리하여 각기의 특색을 유지하였다.



용평 버치힐 콘도미니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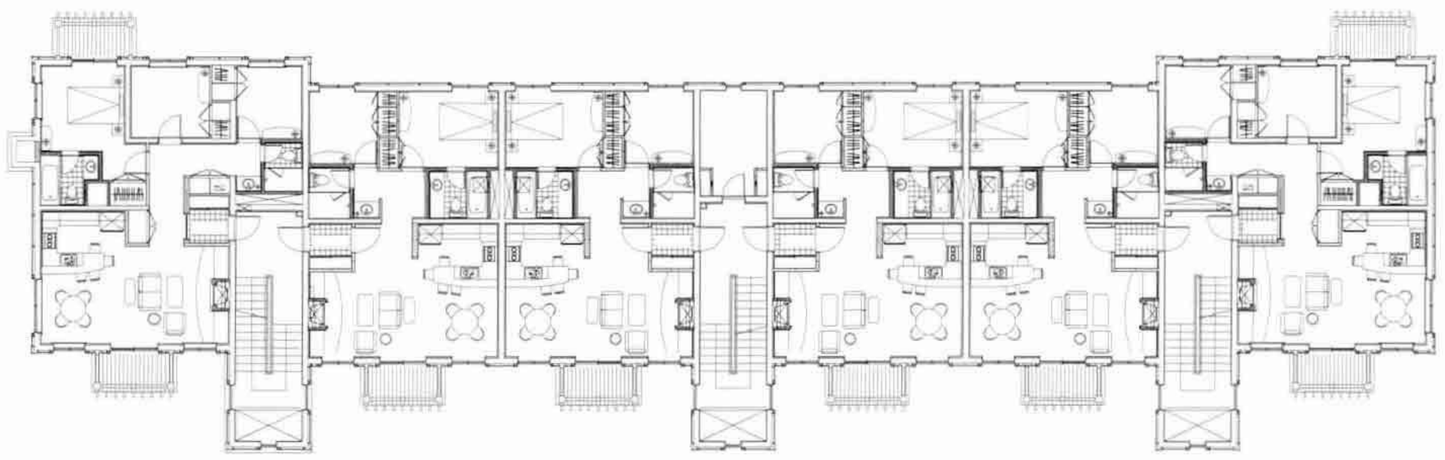
Birch Hill Condominium Yong Pyoung Resort (1997)

위치 : 강원도 용평　　**건축주** : ㈜용평리조트
프로젝트 타입 : 휴양 콘도미니엄　　**규모** : 450세대(38~80평형)





1996년 용평 리조트의 퍼브릭 골프장 옆에 국내 최초로 골프장 전망 저층형 전용구좌 휴양콘도미니엄을 미국 제런사와 공동으로 설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콘도들은 중복도형 호텔식 고층콘도가 대부분이었으며 복도쪽으로는 창문이 없는 방도 많은 열악한 상태였다. 용평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골프장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인 재료와 다양한 형태로 지형에 순응하며 스키리조트 특성에 맞는 산장형 휴양콘도미니엄이 탄생되었다.



A type 3rd Floor Plan



무주 리조트 리뉴얼 마스터 플랜

Muju Resort Renewal MasterPla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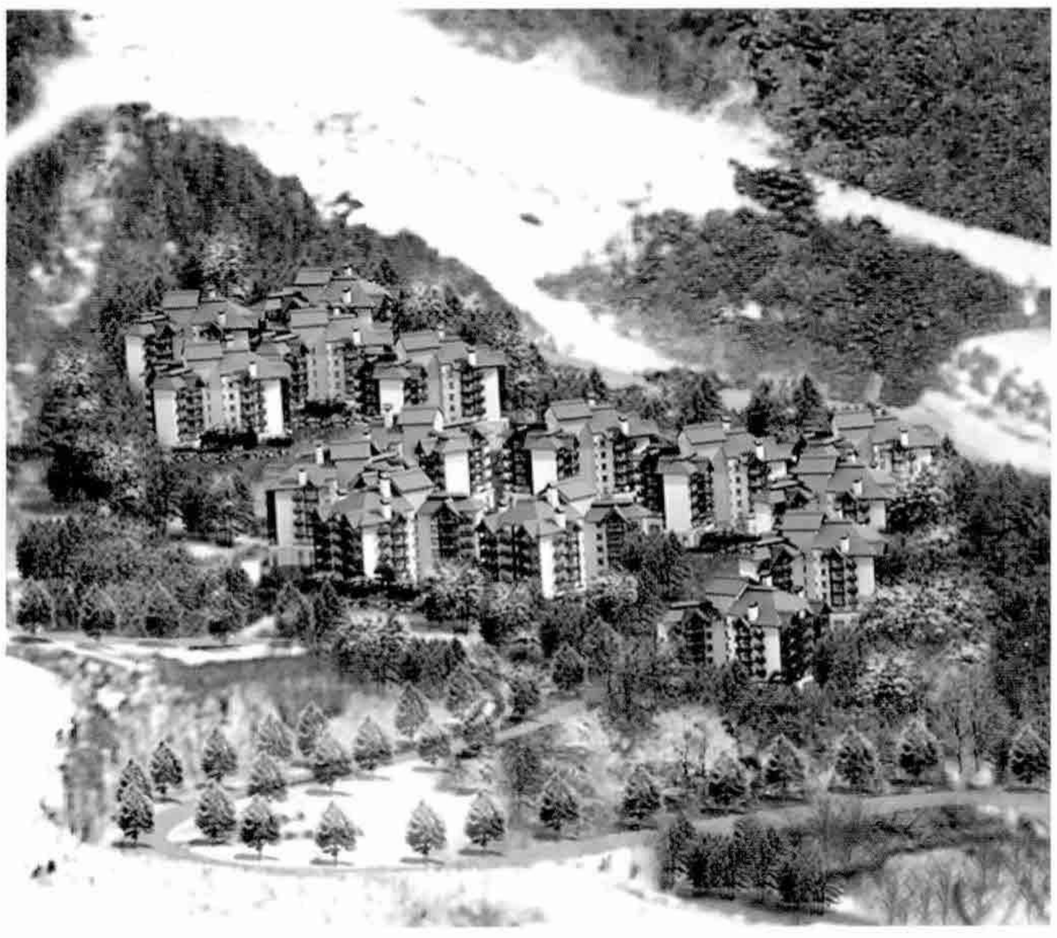
위치 : 전북 무주 **건축주** : 무주리조트
프로젝트 타입 : 스키, 스파, 콘도, 상가 **규모** : 7,12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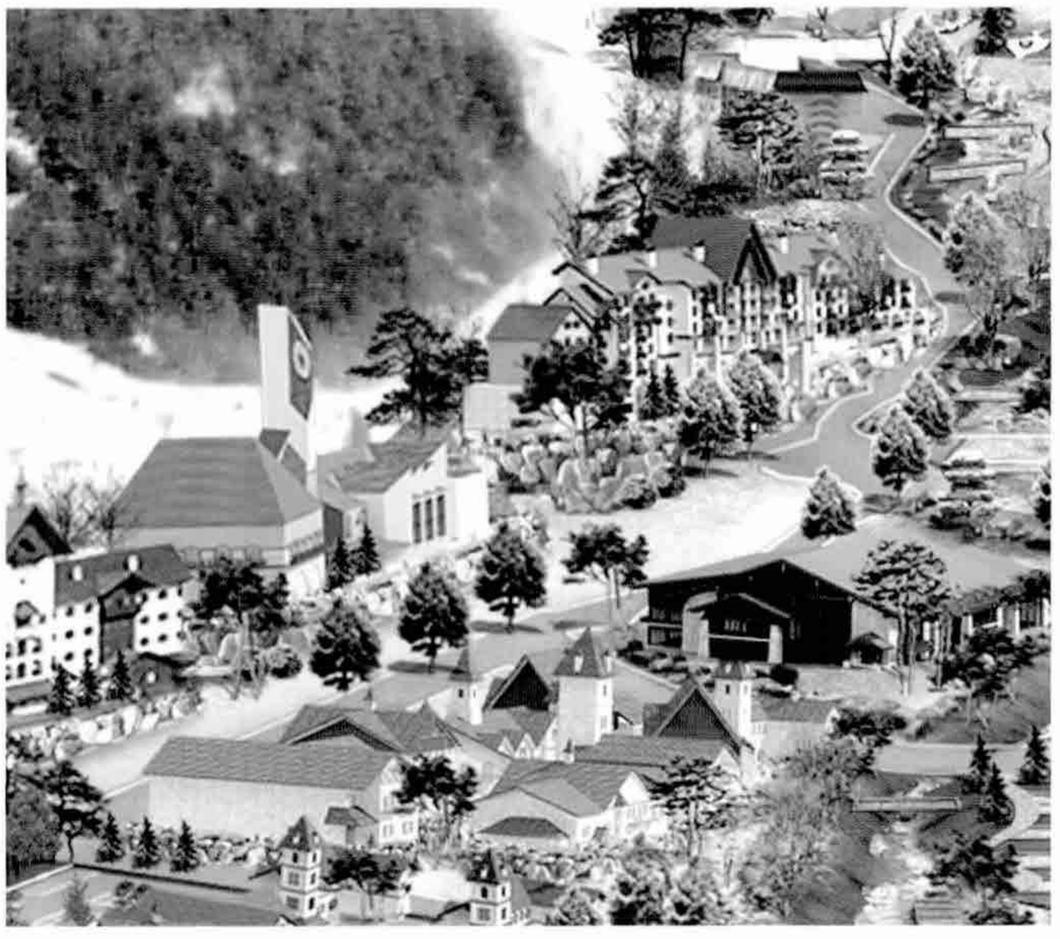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대단위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이 복잡한 인허가 핑계로 대부분 엔지니어링회사나 컨설팅회사에서 진행되어 왔다. 마이건축은 건축사가 이런 마스터 플랜에 초기부터 참여하여야 더욱 훌륭한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굳이 해외 사례들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건축사의 훈련과 능력으로 봐서는 당연한 이치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관광분야의 마스터플랜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나 몇 몇 국내사례에서는 주간사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좋은 본보기이다. 이 마스터 플랜의 기본 생각은 같은 대지에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넣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휴양콘도미니엄의 위치를 바꾸어 분양가나 분양성을 높이고 여러 영업시설들을 분석하여 집중화하였다. 또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존 리조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새로운 마스터 플랜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티롤호텔의 이국적 이미지를 살려 오스트리아 티롤풍의 테마 리조트로 거듭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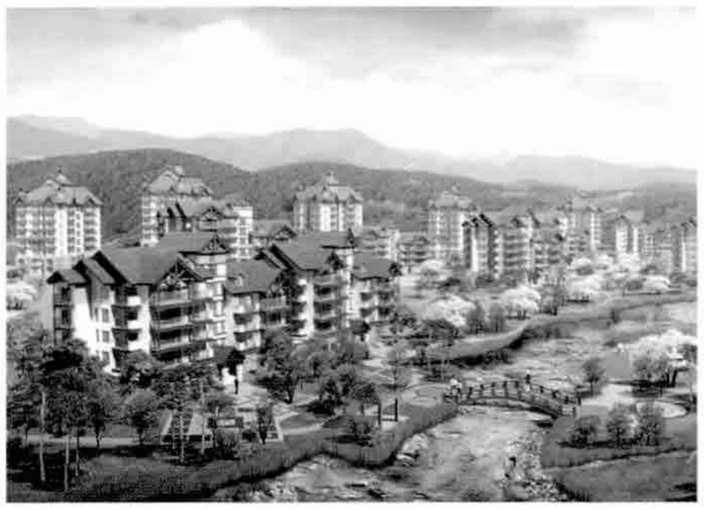




무주 관광 레져 기업도시 마스터 플랜

Muju Town Master Plan (2007)

위치 : 전북 무주
프로젝트 타입 : 골프단지, 콘도, 상가, 기업단지
건축주 : ㈜대한전선
규모 : 8,250,000㎡







두레환경과 함께 마스터 플랜에 공동 주간사로 참여하여 기본 계획 및 건축 계획을 수행하였다. 리조트로서 필요한 요소와 도시로서 필요한 요소들을 경제성, 분양성, 시각적 효과등을 고려하여 조화스럽게 결합하였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워 미래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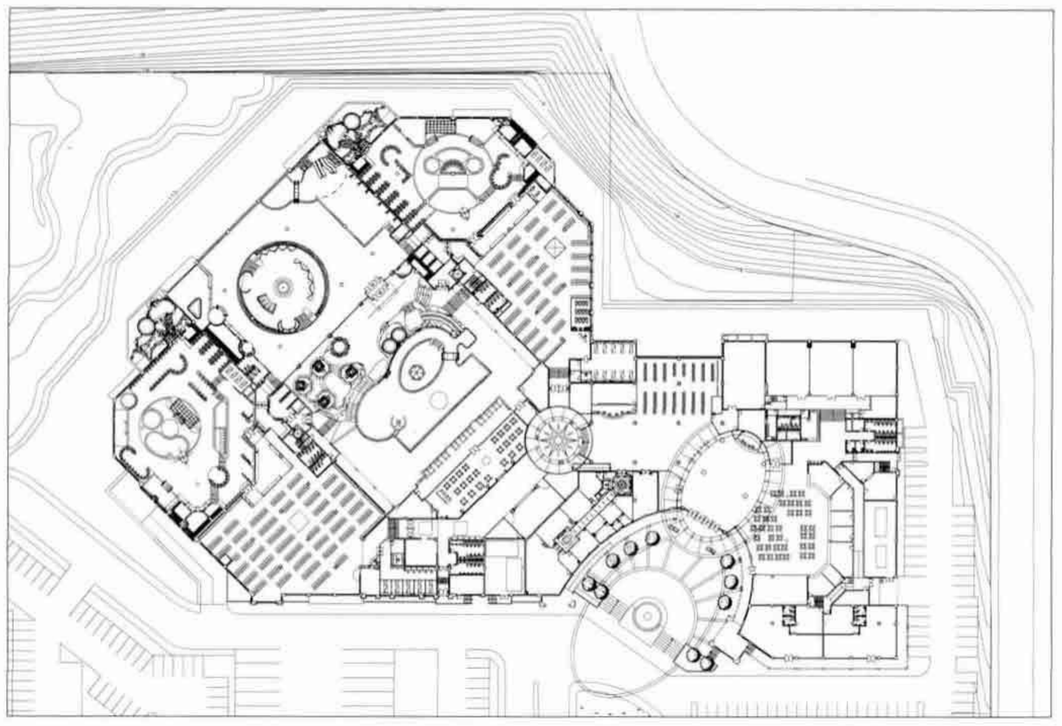
아산 스파비스

Asan Spavis (1999)

위치 : 충청남도 아산　　**건축주** : ㈜대우건설
프로젝트 타입 : 스파 리조트　　**규모** : 17,160㎡

1999년 ㈜대우건설이 소유한 약 2만4천여평의 아산 온천 단지 대지에 당시 비업무용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건폐율 7%의 지붕구조를 설계해 달라는 건축주를 설득해 온 가족이 즐기는 온천/워터 파크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천장이란 늦가을부터 겨울에만 성황이며 남녀가 따로 들어가 목욕 후 만나는 '목욕탕' 이었다. 이런 온천문화를 온 가족이 즐기는 사계절 리조트시설로 승격시켰으며 지금 유행하는 복합물 놀이시설의 본보기가 되었다. 마케팅적으로 지중해풍의 이국적인 이미지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지도록 하였다.



Community Club 1st Floor Plan









기흥 그린카운티

Green County Condominiums (2004)

위치 : 경기도 용인
건축주 : ㈜대우건설
프로젝트 타입 : 휴양콘도미니엄
규모 : 106세대(38평형~80평형)







2001년 기흥에 위치한 골드 컨트리크럽에 정주형 콘도미니엄 설계를 하였다. 당시 기흥 주변단지와 그리고 여러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테라스형 그리고 타운 하우스형 휴양콘도미니엄을 설계하였으며 평지의 빌라형도 한층씩 뒤로 밀어 테라스형으로 설계하였다. 6~7년이 지난 테라스형 콘도에는 거주자마다 색다른 분위기로 가꾸어져서 자연스러운 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 그랑블 골프 클럽 하우스 및 휴양 주택단지

Grand Bleu Resort & Golf Club Jeju (2008)

사 업 명 : 제주 서해 그랑블 골프 리조트 신축 공사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23번지 외 9필지
프로젝트타입 : 휴양콘도미니엄, 206세대 클럽하우스 및 커뮤니티 센터
대지면적 : 155,637㎡

제주도의 18홀 골프장에 클럽하우스와 두 개 단지에 206세대의 전용 휴양콘도미니엄을 계획하고 있다. 자연적인 구릉지에 모든 세대에서 골프장 조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용세대는 특유의 중정형 평면으로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확장된 느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태리 투스카니 지방의 투박하고 거칠면서도 서정적인 이미지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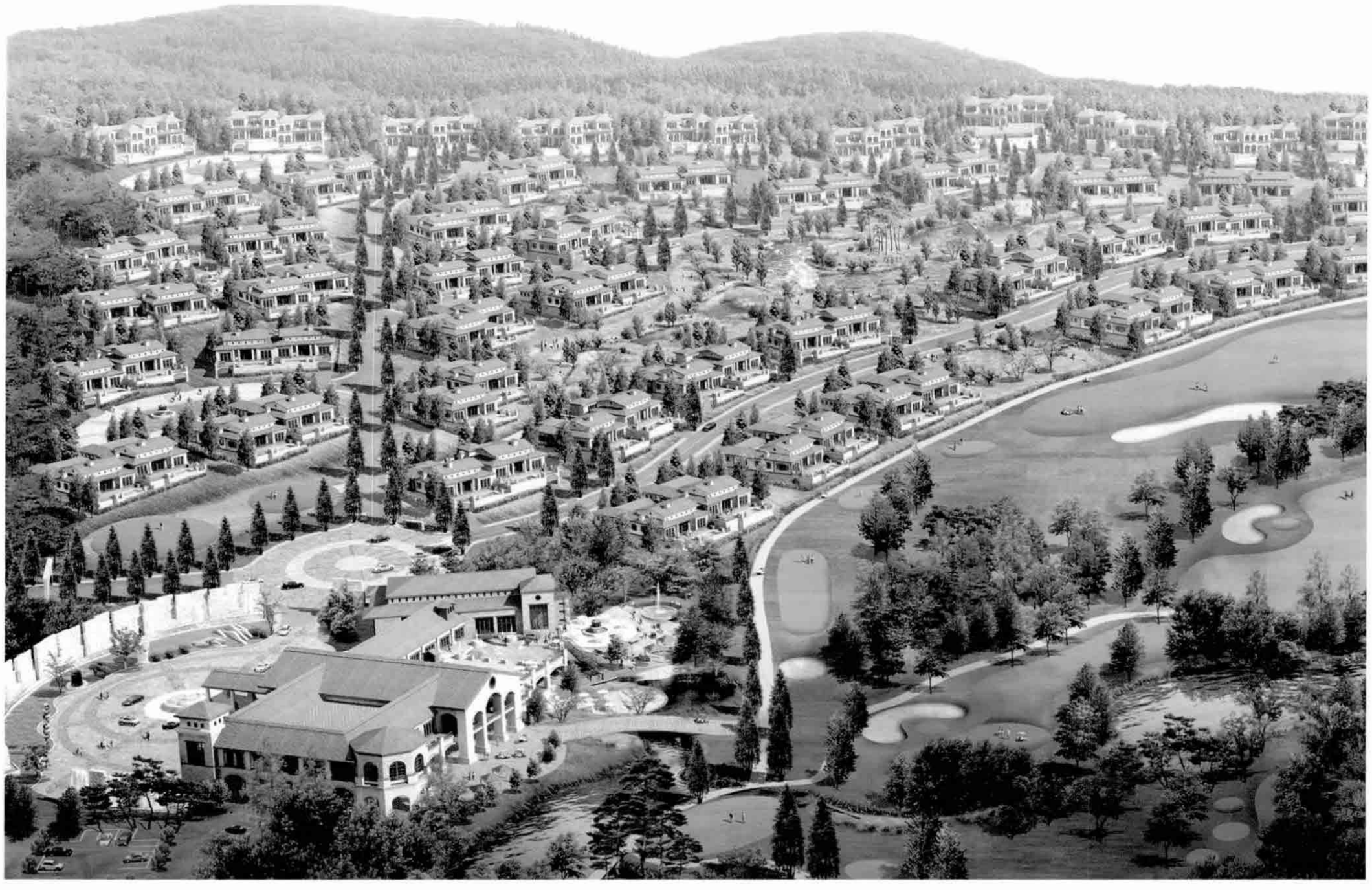
Villa



Club House 1st Floor Plan



Maste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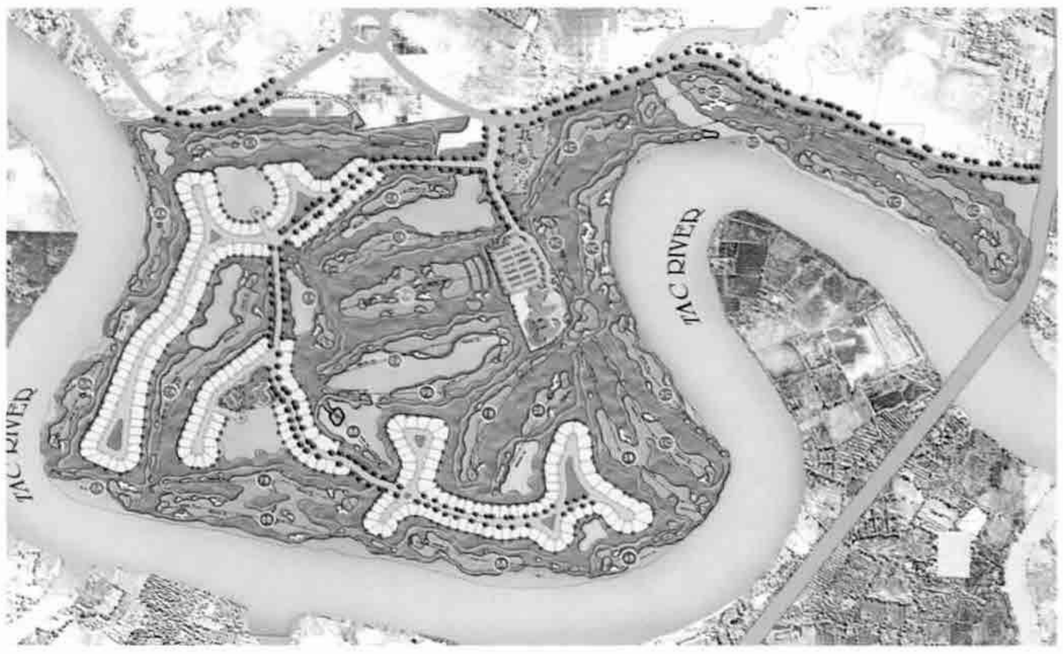
금호 아시아나 골프 & 레지던스, 호치민, 베트남

Kumho Asiana Golf & Residence (2007-2008)

사업위치 : 베트남 호치민시 9군 Long Phuoc 지구 내
프로젝트타입 : 골프코스 27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3개소, 관리동, 장비 창고동 등
규　　모 : 총 사업부지 1,550,000㎡

호치민시의 9군에 대단위 개발계획의 첫 단추로 탁강이 굽어흐르는 대지에 잭 니컬러스 27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220세대 주택단지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이다.
주택단지는 여러 특색 있는 소단지로 만들어 최고급 주택단지로서 품격을 유지토록 하였다. 클럽하우스와 주택은 현지 마케팅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지중해풍으로 설계하였으며 클럽하우스는 여러 사회적인 기능을 부가하여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Master Plan



Community Center



(주)마이건축사사무소(MAI architects)는 1996년 창업이래 줄곧 리조트 및 관광 레져 분야를 전문으로 설계하여 왔다. 1995년 (주)엄이건축의 에버랜드 담당이사로 에버랜드 바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해외 리조트 설계업체와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미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7년간 운영을 해본 필자로서는 당시 해외업체들의 무지와 무성의 그리고 발주처의 해외업체에 대한 맹신에 우리나라에도 이 분야 전문 설계업체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건축계의 맹목적인 현대 모던 건축 선호와 테마형 건축 경시현상은 리조트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국지적인 것으로 건축 존재의 다양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립 초기에는 해외업체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기획, 디자인, 특히 테마형 설계포함, 실시설계, 감리 등을 순수 국내 기술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세계 리조트 설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실적과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
2008년 2월에는 미국 게일사 발주한 잭니컬러스 시그니쳐 골프장의 국내 최초의 골프장 내 주택 단지를 디자인, 실시설계, 디자인 감리까지 수주하는 개가를 이루었다. 이는 게일사의 송도 직접 개발계획 프로젝트중 디자인까지 국내사가 담당한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미국의 유수한 업체의 설계를 제치고 저희가 계획성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저희는 항상 일부 발주처의 규모 우선선택으로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들과 경쟁하게 되어 이제는 설계업계의 희귀종이 되어버린 중규모 사무실로서 분투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으며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되었다.
우리의 계획은 이제 조직적으로 MAI Architects 를 해외 리조트 업계에 마케팅 하려 한다.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마스터플랜, 기획, 컨설팅 등으로 확대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싶다.

안길원 / 정회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An, Kil-won,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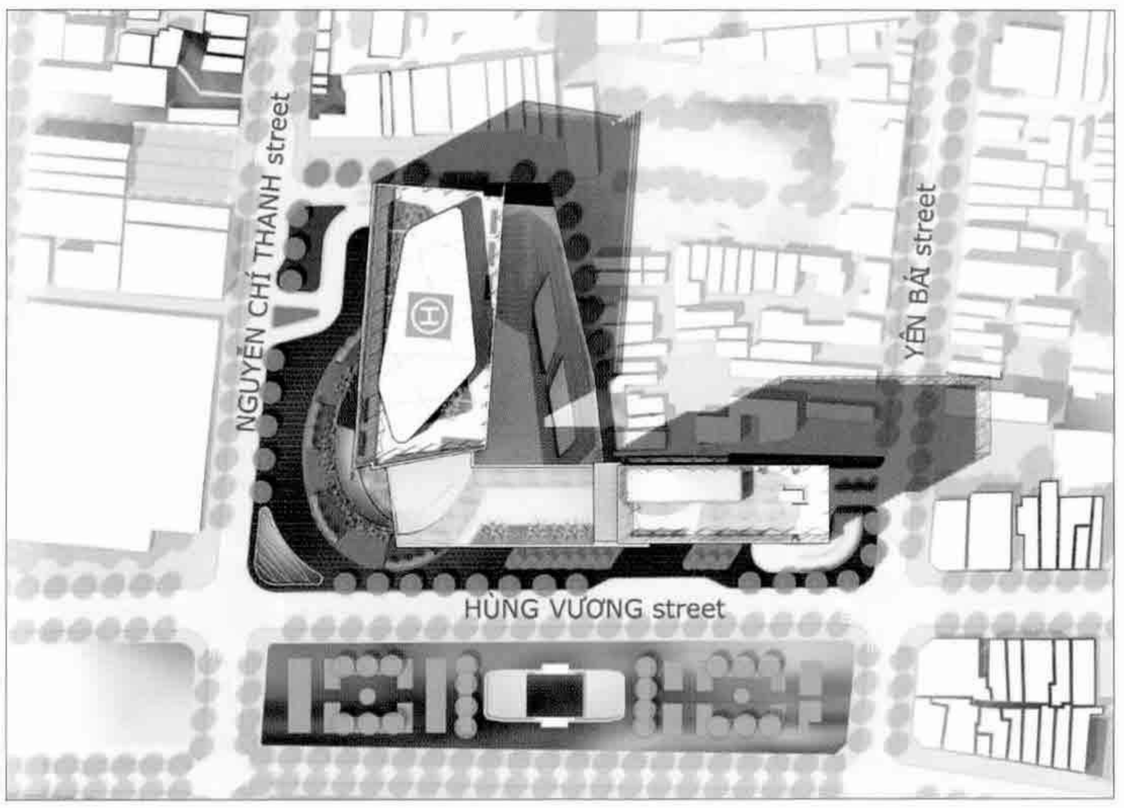
계획작품 | Process Works

비엔동 메리디안 타워
VIENDONG MERIDIAN Tower, Vietnam

● 건축개요

대지위치	84 Hung Vuong street, hai Chau District, Danang City, Vietnam
주요용도	상업시설
대지면적	11,168㎡
건축면적	7,630㎡
연 면 적	254,499.49㎡
건 폐 율	Podium: 61.07%, Tower : 46.4%
용 적 률	1,988.77%
규 모	지하 3층, 지상 48층
주차대수	548대
설계총괄	최창섭
설계참여	송도근, 이경환, 이재혁, 최종민, 김성예, 박현우, 서상기, 김방일, 김태근

● 배치도



메리디안 타워의 야심찬 목표는 네가지 주요 계획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바로 프로젝트 포디엄, 호텔타워, 주거타워 그리고 사무실 건물이다.

부지 서쪽에 위치한 주거타워는 Nguyen Chi Thanh 거리를 마주하고 긴 입면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 및 향으로 인해 주거타워는 오페라 하우스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거리뿐 아니라 강, 바다 그리고 산 등의 자연 환경에 대한 멋진 조망을 가질 수 있다. 부지 남쪽에 위치한 호텔 타워는 Hung Wong 거리, 공원, 주상복합 단지를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긴 입면을 자랑한다. 호텔 타워의 저층부 중 일부는 사무실 용도로 계획되었는데 주거 타워보다는 약간 높고, 매우 슬림한 단일 매스로 옥상에 정원 겸 식당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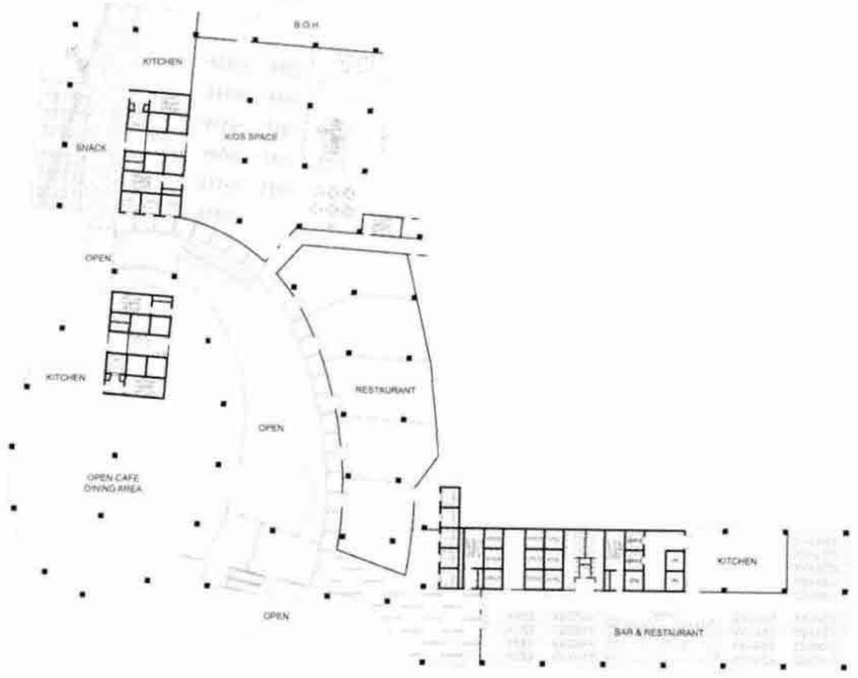
프로젝트 포디엄은 7개층으로 구성된다. 거주 및 주거 타워 출입을 위한 로비가 위치해 있고 3개층에는 아케이드 상점, 박물관, 극장,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디엄 형태는 사무실, 호텔, 주거 영역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상업공간을 위한 아이덴티티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The ambitious goals of the project' s program have been arranged into 4 main massing designs. They are: the Project Podium, the Hotel Tower, the Residential Tower and Office Arch. The residential tower is positioned on the west side of the site, with its long elevation facing Nguyen Chi Thanh Street. This orientation affords the residential towers excellent long views to the river, sea and mountains as well as a prestigious street address across from the oper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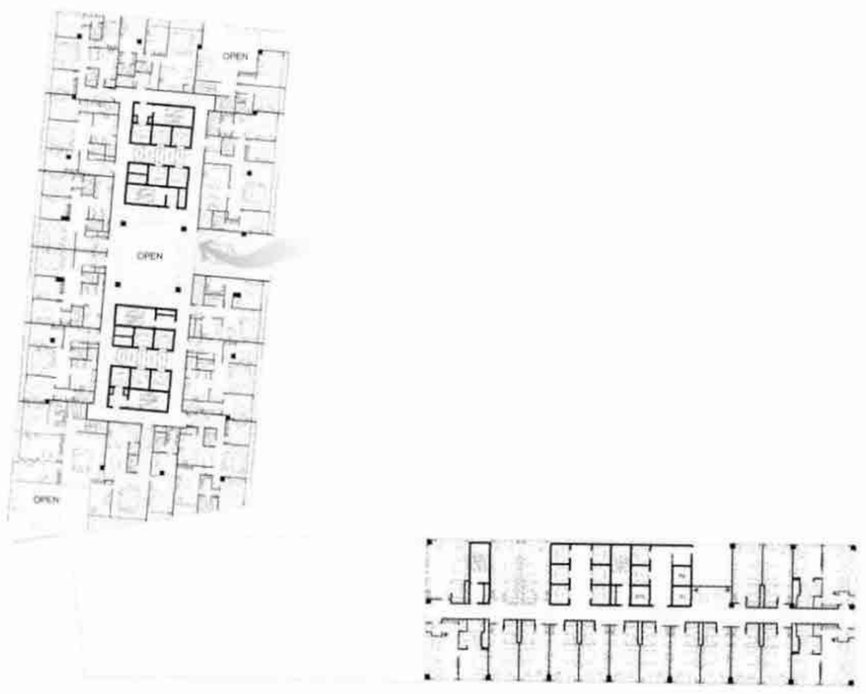
The hotel tower is oriented with its long elevation and lobby facing Hung Wong Street, the Public Park and the mixed-use commercial project to the south. The hotel tower(with some of its lower floors devoted to office) is slightly higher than the residential tower; its mass is a very slender monolith, accented with a dramatic sky garden restaurant at its roof.

The seven level project podium contains entry lobbies for the tower functions above as well as a 3 floor retail arcade, museum, and upper level cinema and conference spaces. The podium form is sculpted to create an inviting identity for the retail as well as gracious street level presence for the office, hotel and residential e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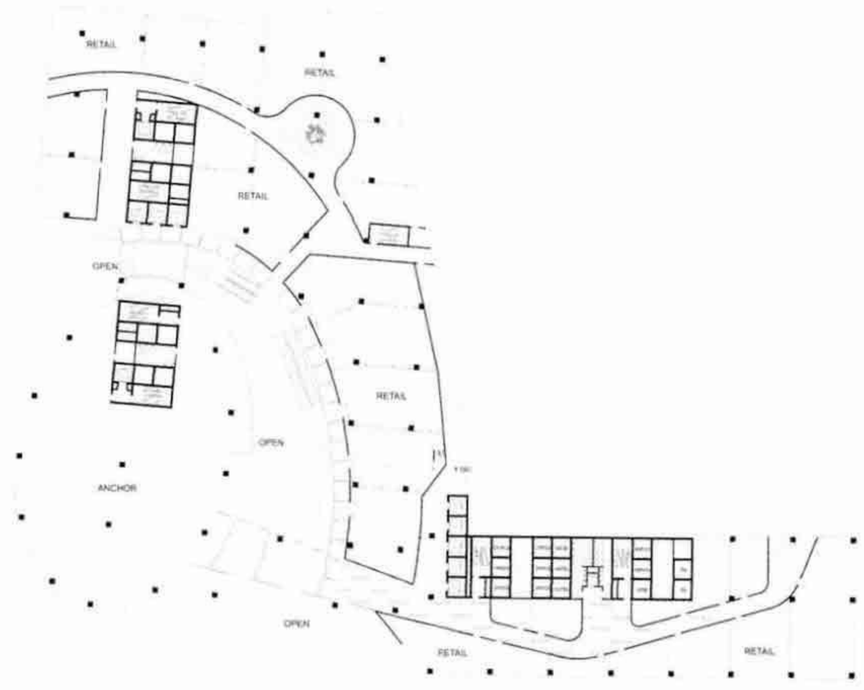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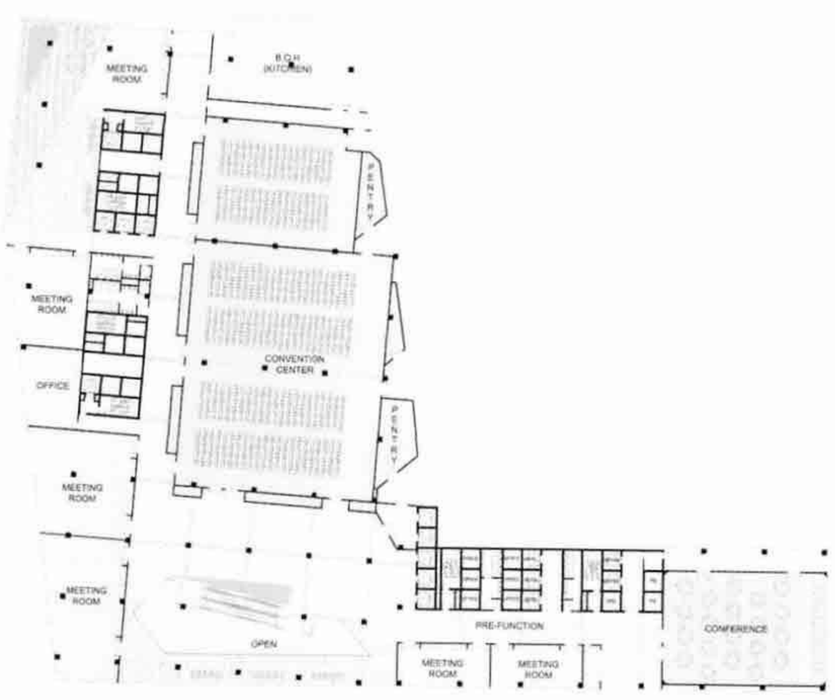
Floo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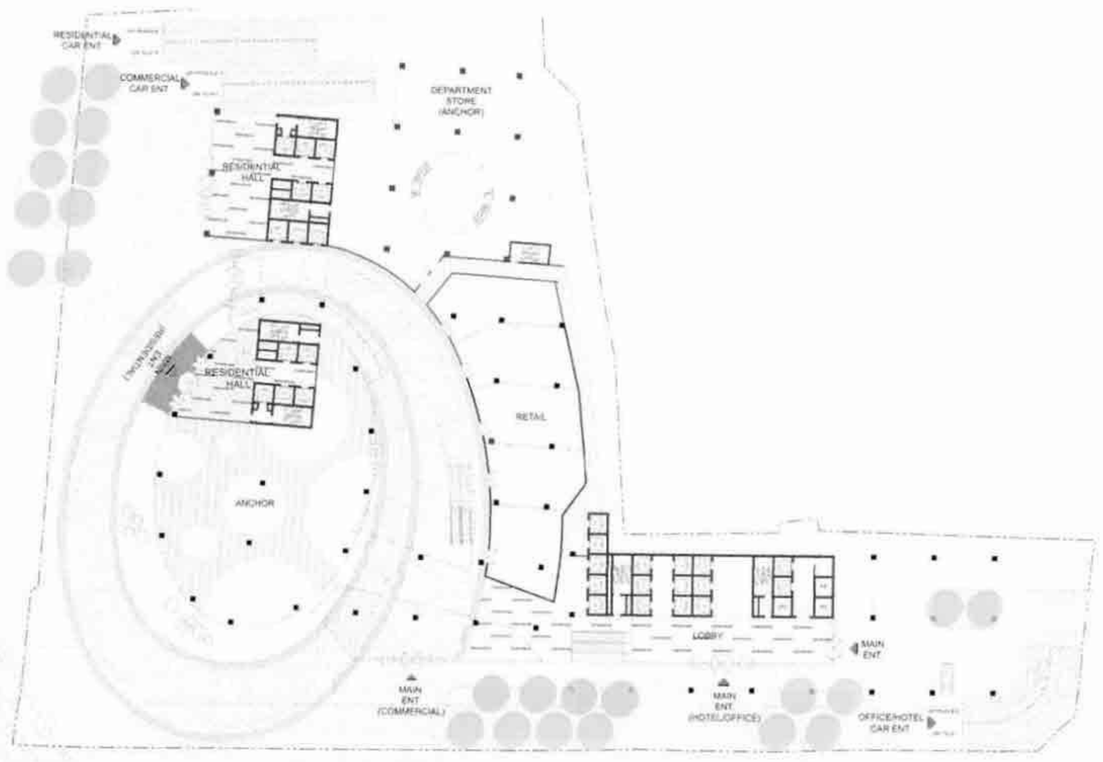
Floor 2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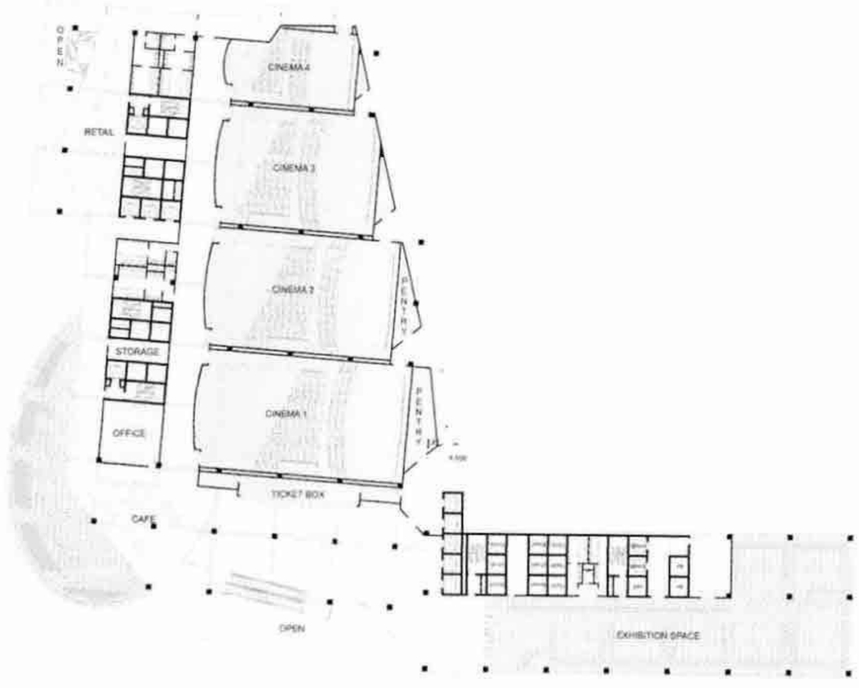
Floor 02



Floor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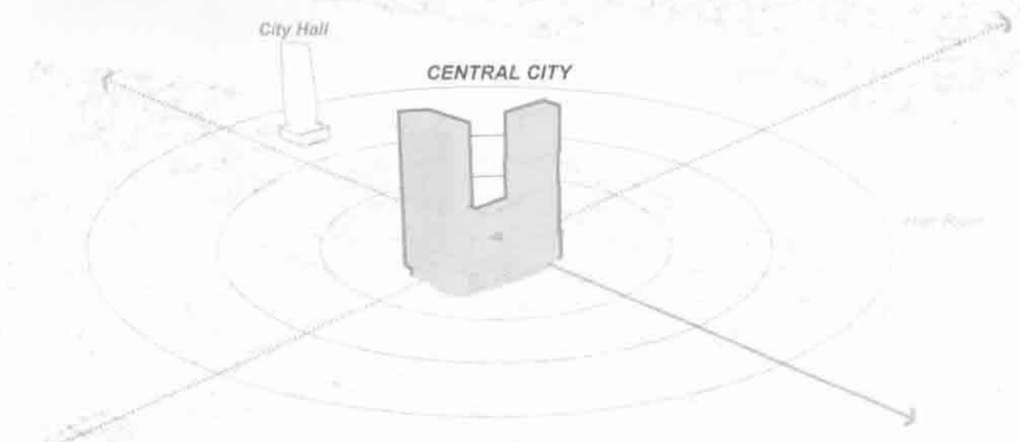
Ground Floor



Floor 04

CENTER OF DANANG CITY

The Viendong Meridian Towers project is located in the city center of Da Nang City, Vietnam on the corner of Nguyen Chi Thanh Street and Hung Wong Street. Across the street to the west is Da Nang's prestigious opera house, Trung Vuong Theatre while immediately south is a spacious Public Park and Plaza with a commemorative memorial and gardens.



The Stage for Culture, Business, Leisure and Service

Central City

Target 1 Symbol of Danang **Business Core o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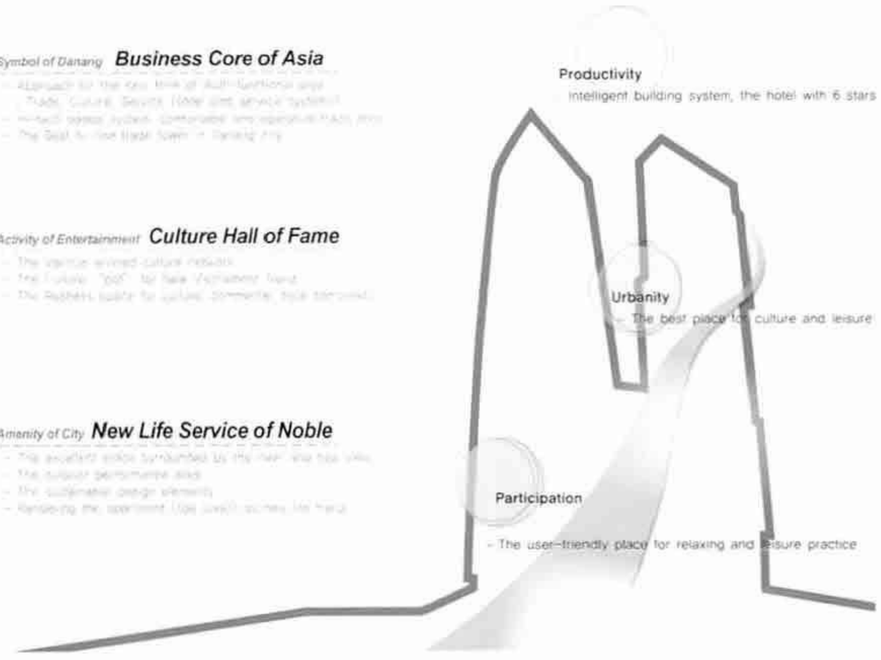
- Approach to the key link of sub-functions and
- Trade, Culture, Sports, Hotel and service systems
- Perfect access system, convenient and appropriate main entry
- The best to use travel town in Dana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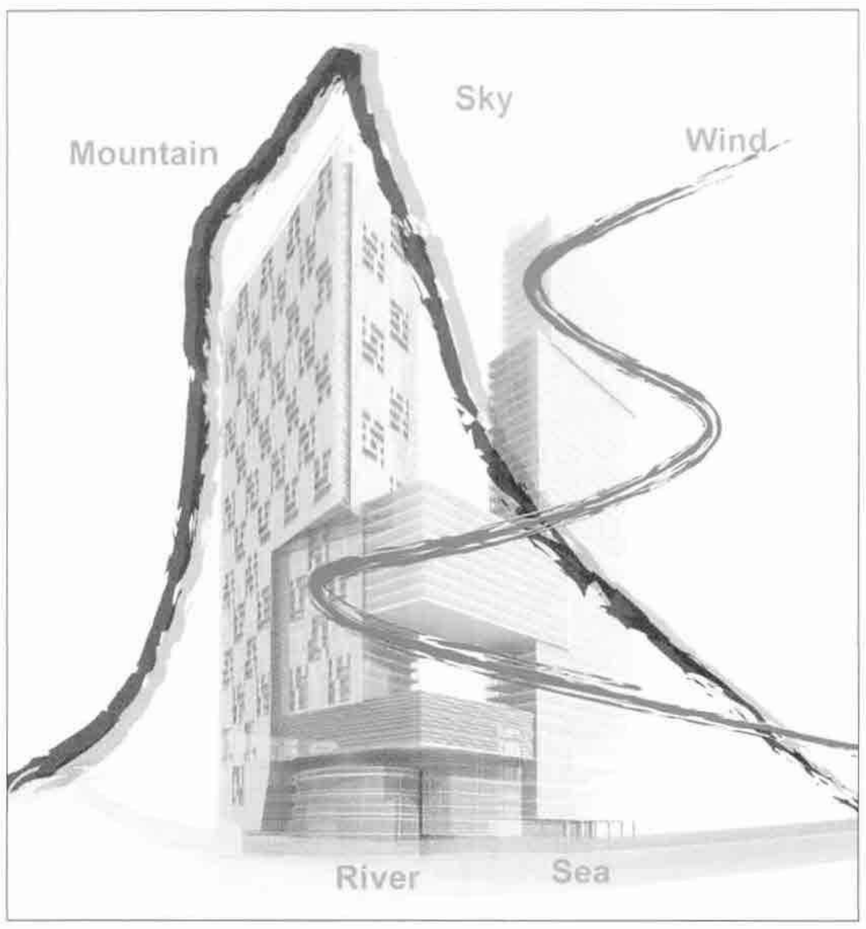
Target 2 Activity of Entertainment **Culture Hall of Fame**

- The central arrived culture network
- The cultural "port" for New Vietnamese hand
- The Northern capital for cultur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Target 3 Amenity of City **New Life Service of Noble**

- The excellent vistas surrounded by the river and sea view
- The support performance area
- The customized design elements
- Realizing the apartment that people wishes to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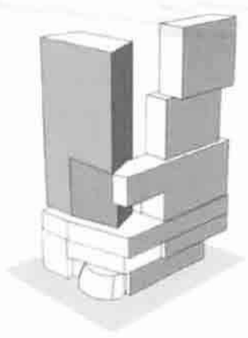


PROJECT PROGRAM

RES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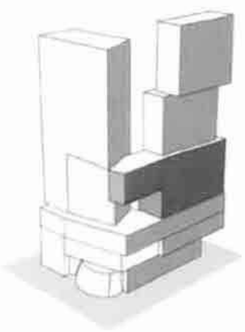
103,463.76 m² (46.58%)

1ROOM - 50GENERATION (10.2%)
2ROOM - 252GENERATION (51.7%)
3ROOM - 135GENERATION (27.9%)
DUPLEX- 50GENERATION (10.2%)
SUM - 487GENERATION (100%)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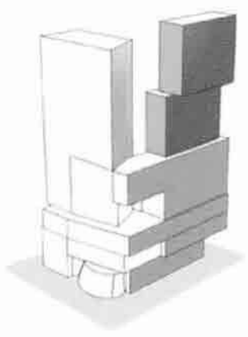
37,936.23 m² (17.08%)



HOTEL

35,698.68 m² (16.07%)

STANDARD - 315 ROOM
DELUXE - 63 ROOM
SUITE - 4 ROOM
PRESIDENTIAL - 2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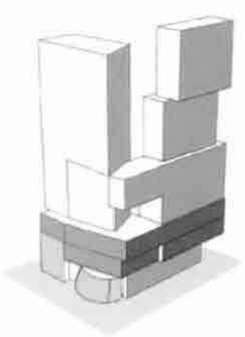


COMMERCIAL

31,533.8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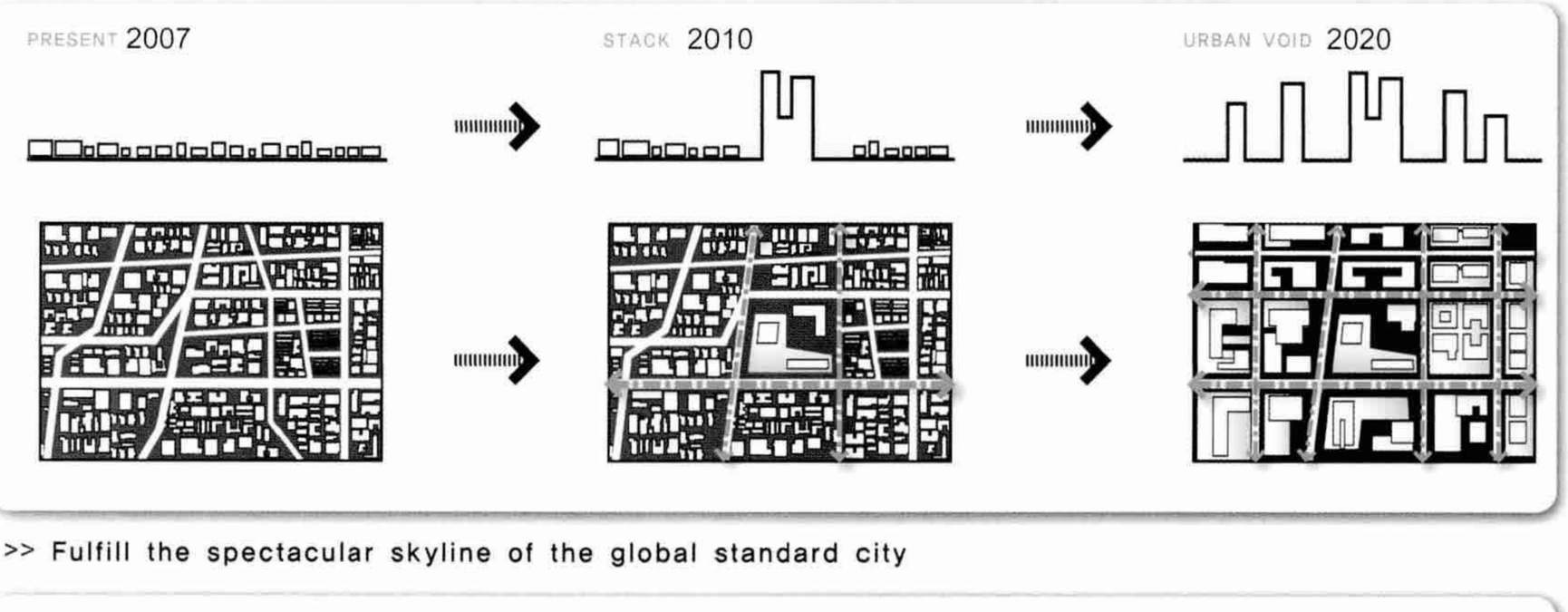
CONFERENCE

13,474.31m²



The Center of Dan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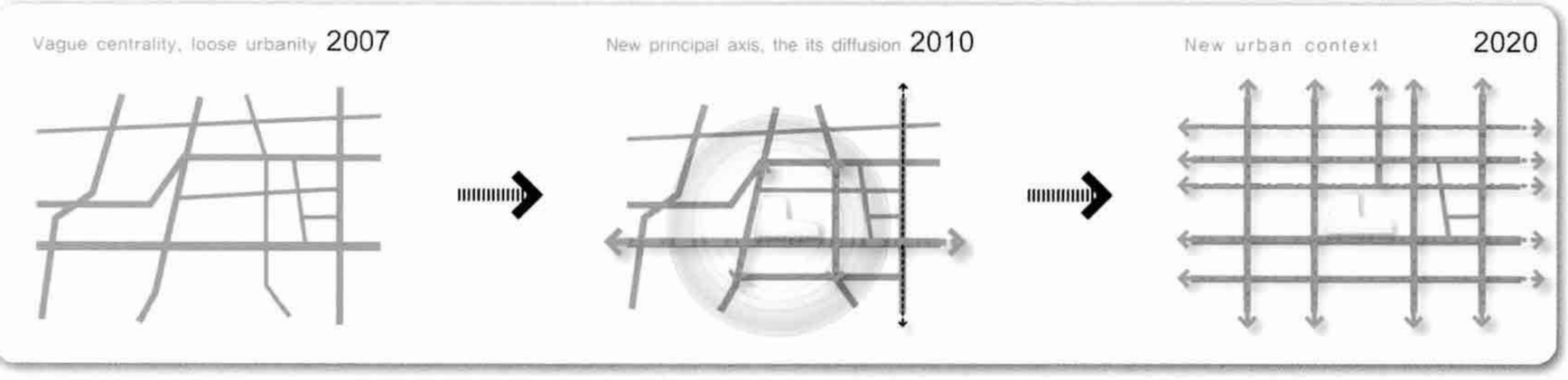
Landmark City
Amenity City



>> Fulfill the spectacular skyline of the global standard city

New principal 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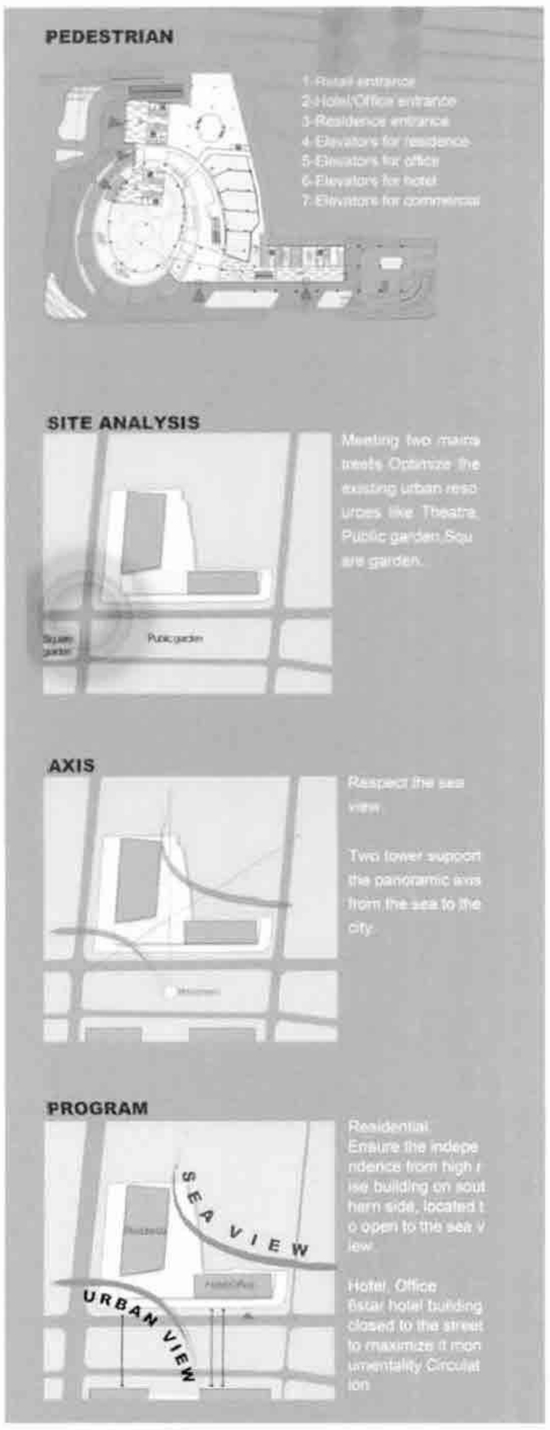
Hyper-Link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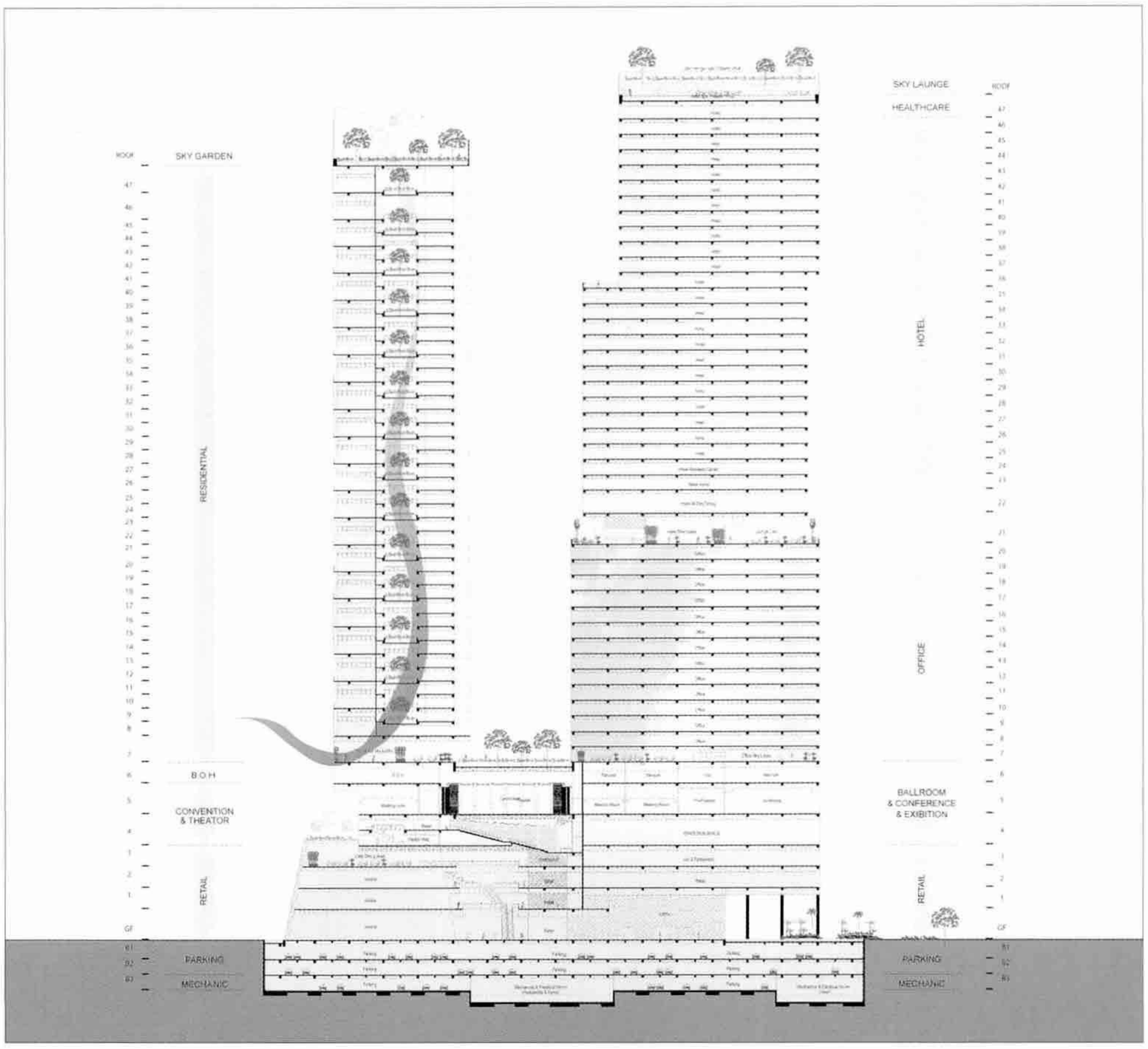


>> New principal axis "Hungvuong" composes new urban scheme



Site Analysis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National Sports Center & Weight traning Center

당선작 / 정명철 정회원
(주. 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문강욱 정회원
(주. 승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나주시 송월동 1078번지 일대 (나주스포츠타운 건립부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8,946㎡ (마스터플랜 전체면적 : 179,425.29㎡)
건축면적	6,225.02㎡
연 면 적	13,392.04㎡
건 폐 율	3.47%
용 적 률	7.46%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형식	다목적체육관-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구조 국민체육센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다목적체육관 -노출콘크리트,메탈패널,THK18복층유리 국민체육센터-티타늄아연판,THK18복층유리
발 주 처	나주시청
설계참여	양승희, 양기철, 신현진, 이소영, 문인호, 박나호

평면계획

B1

• 선큰 : 수영장 채광 및 장비 반입을 위해 선큰 배치, 분리된 3개 프로그램의 동선이 모임

• 체육관부대시설 : 일반인 동선 통제, 상부 오픈으로 자연광 일부 유입

• 수영장 : 유아풀 쪽 상부를 오픈하여 공간감을 부여

1F

• 선수합숙소 :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 남향배치, 출입의 편의 위해 핸드볼경기장쪽으로 농구장으로 통과동선 둠, 관리자숙소별도 배치

• 체력단련실 : 하부수영장과 외부공간을 관망, 보조경기장에서 다목적경기장 외부까지 시각적으로 연계, 보조경기장으로 통과동선 발생

• 다목적체육관 :일반관람객 입구와 운영자 및 선 수의 출입구 분리, 체육관을 주위로 진입광장과 중앙광장을 연결하는 흐름 발생

2F

• 생활체육관 : 외부의 보조경기장 및 주변녹지 관망, 가변무대 설치로 다양한 활동가능

• 인터렉티브 데크 : 3개동을 엮으며 선수합숙소 관통, 다양한 활동(나주배 축제박람회)이 담기는 공간

• 다목적체육관 : 2층은 출구로만 사용

3,4F

• 선수합숙소 : 독립된 개별공간 확보, 별도의 간이주방 및 탕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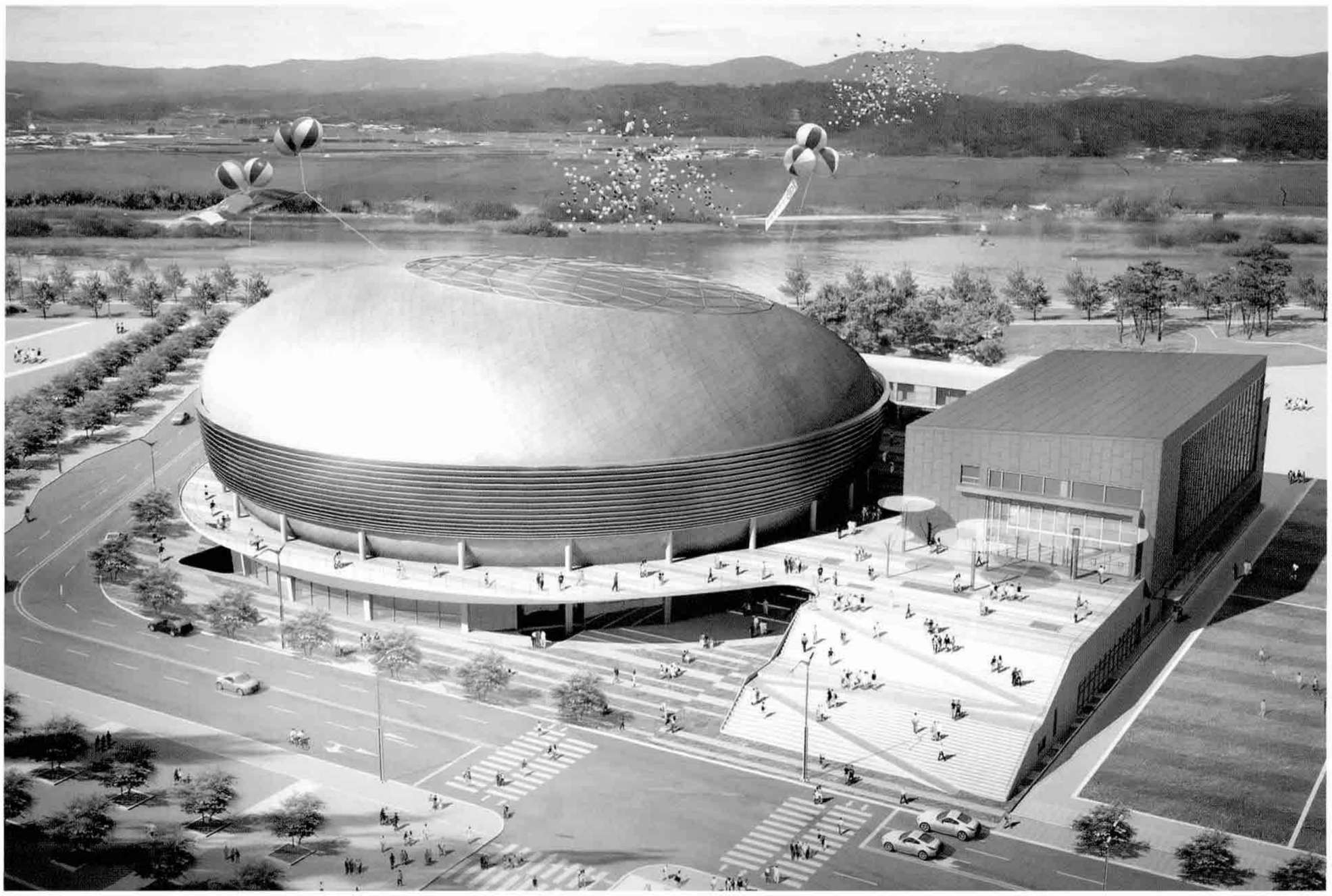
• 생활체육관 상부 : 야외조망, 적정층고 확보

• 다목적체육관 상부 : 채광위한 천창

입면계획

통합 :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조화시킴, Community 활성화를위한 Interactive Deck를 형성 → Activity 발생 → 매스의 인지성 향상을 위한 입면의 Identity 부여

성장 : Interactive Deck가 가지는 확



장과 관계맺기의 수평적 연결과 확장성 확보 → 물리적 움직임의 확장 → 시각적 열림과 확장

– 적용요소 → Frame / Louver / Pattern / Window / LED경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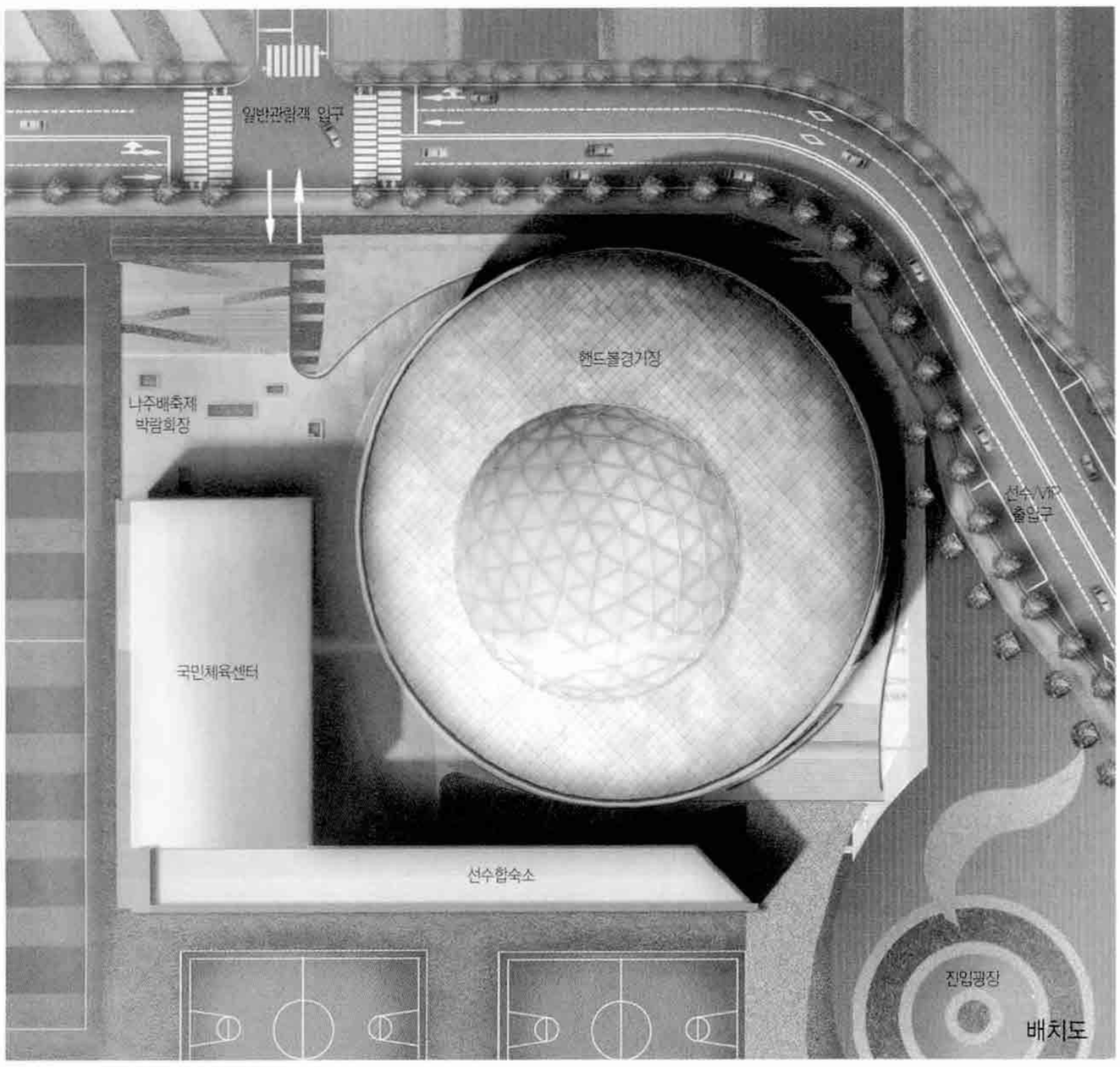
상징 : 나주시 미래의 도시적성장[나주혁신도시 : 빛가람도시]과 나주의 상징물[나주배]를 결합하여 새로운 나주의 Icon으로 발전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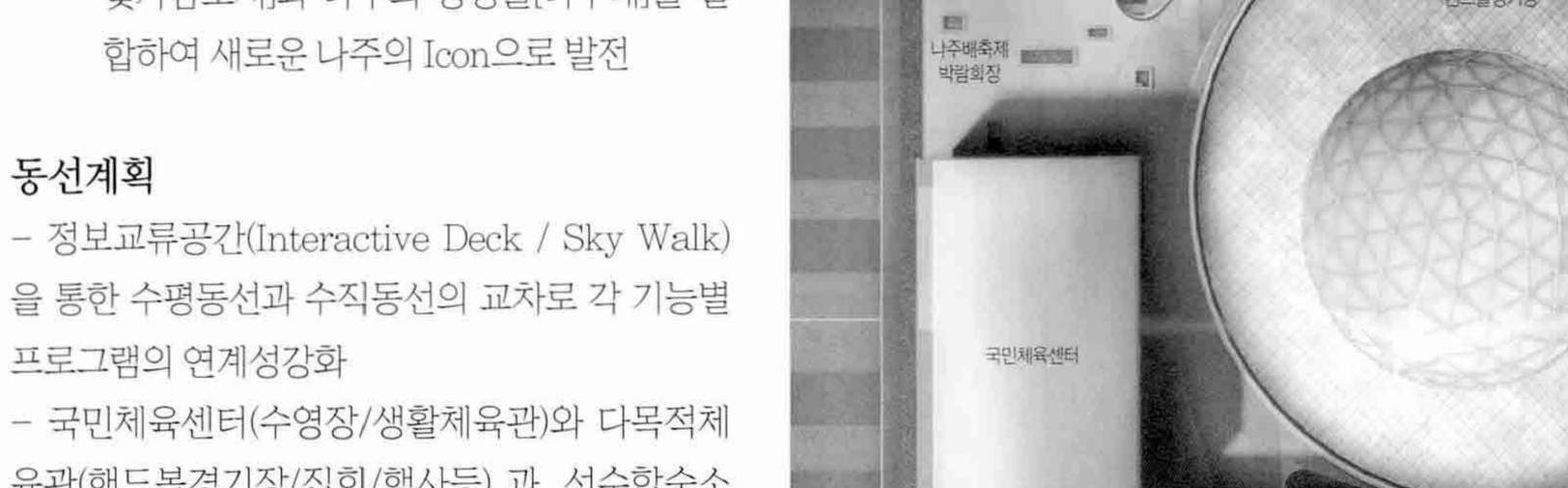
– 정보교류공간(Interactive Deck / Sky Walk)을 통한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교차로 각 기능별 프로그램의 연계성강화

– 국민체육센터(수영장/생활체육관)와 다목적체육관(핸드볼경기장/집회/행사등) 과, 선수합숙소의 수직동선과 서비스 동선의 분리

– 다목적체육관(핸드볼경기장/집회/행사 등)의 진입동선과 피난동선의 효율적인 구성



배치도



4층평면도


남측면도 서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National Sports Center & Weight traning Center

우수작 / 이순미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78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6,011.82㎡
연 면 적 12,349.8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지붕)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HK20유리칼라복층
노출콘크리트, 합성목재
설계담당 이승준, 진새미나

Forest of Life(생명의 숲)

나주는 생명의 땅이다. 그 중에서도 나주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는 금성산에서 재신산으로 분출하는 생명의 기운이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혈맥이다. 바로 이곳에 삶의 에너지를 생산할 생명의 숲을 가꾸고자 한다. 단순한 기능적 체육 시설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적 공간이요, 환경과 문화가 교류하는 생명의 숲을 건립하고자 한다.

– 미래지향적 중심 복지, 체육시설로서의 이미지구현
– 동선의 편리 이용의 쾌적성
– 미래지향적 복합복지 및 체육문화 시설
– 효율적 시공과 관리의 편리성

배치계획

– 지역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상징성, 조형성, 예술성을 갖춘 배치 계획
– 수영장 및 생활 체육센터, 선수합숙소 등 모든 시설을 남향배치
– 남측의 진입광장 녹지축과 생명에너지 흐름이 이어지는 Open Space 조성
– 남측의 진입광장에서 부터 북측 20m도로와의 단지 축 연계
– 남측의 진입광장에서의 접근성, 주차 후 북측 20m 도로측에서의 접근성 고려

Opening (개방)

–금성산에서 재신산으로 분출하는 생명의 기운이 영산강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생명의 숲으로 탄생
–주변풍경과 생명 에너지를 유입하기 위한 열린 전망 및 배치

Separation(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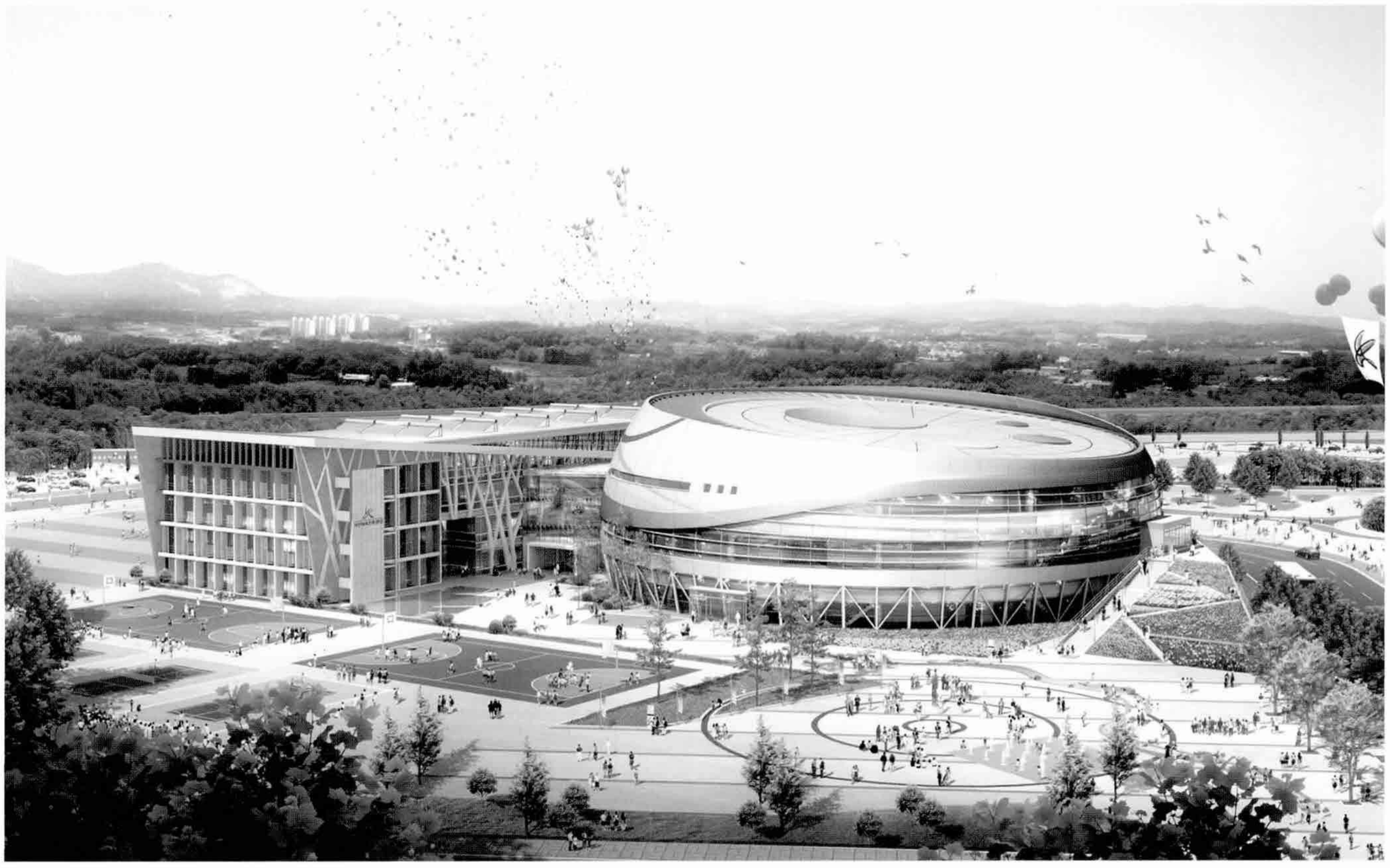
–체육시설, 지원시설, 숙소동 분리 : 이용의 독립성
–구조적 분리를 통한 완벽한 소음, 진동 차단

Connection (연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용자 및 관리 동선의 효율성, 편리성
–체육시설, 지원시설, 숙소동의 연계

Nature (자연)

–숲과 강물, 바람이 통하는 남향으로 열린 체육시설 및 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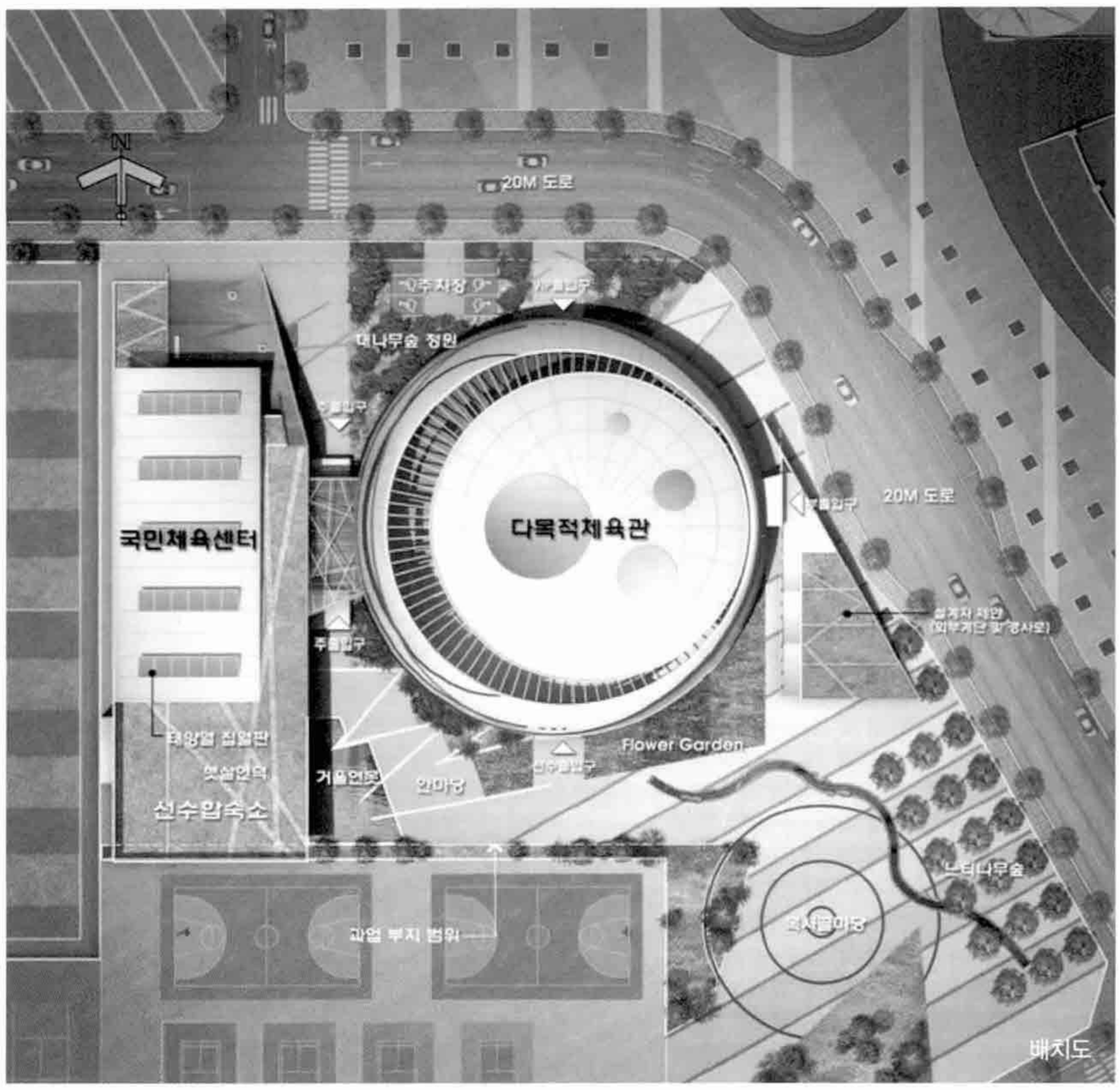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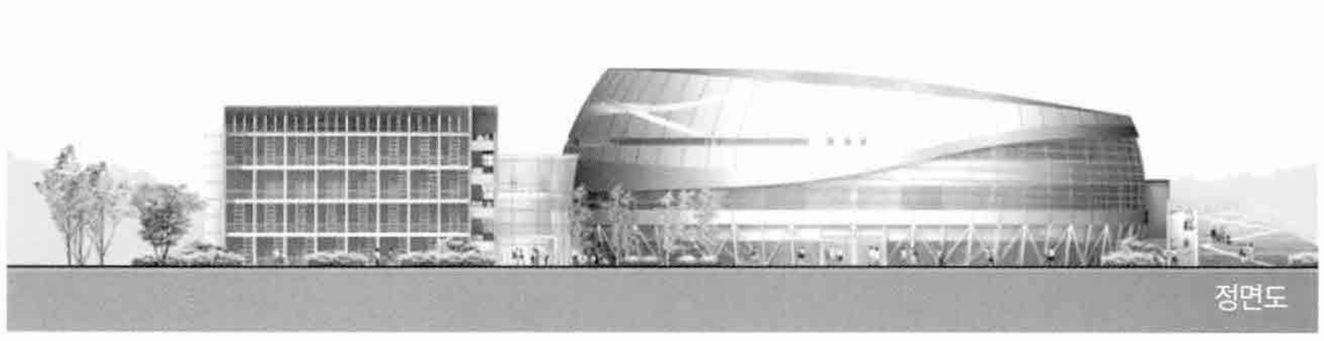
-자연의 소리와 향기가 살아있는 풍부한 Ope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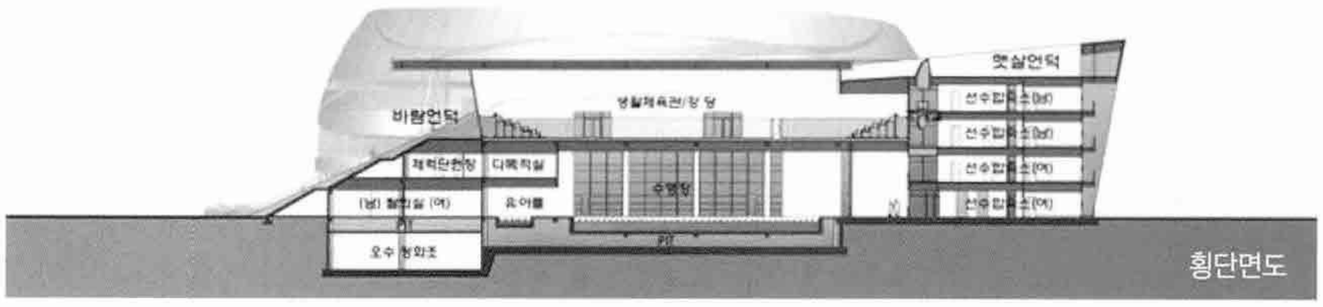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유기적이며 스케일감 있는 Gymnasium garden 만들기

- 땅과의 관계에서 평면적이며 우점적 위치를 강조하는 스타디움의 성격이 외부공간에 의해 완화될 수 있도록 접근동선의 성격이나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
- 공적인 공간으로부터 사적인 공간까지의 다양한 공간위계 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정원적 공간에서부터 광장적 공간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로서 연출함으로써 건축물이 전체공간을 지배하지 않으며 인간적 스케일이 형성되도록 공간배분
- 주 진입에서는 느티나무 등 정형적 수목열식과 포장패턴을 사용하여 진행감과 방향감을 부여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National Sports Center & Weight traning Center

가 작 / 박동준 정회원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국민체육센터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비행안전구역, 배수구역, 완충녹지지역
대지면적 179,425.00㎡
건축면적 5,664.36㎡
연 면 적 12,298.51㎡
건 폐 율 3.16%
용 적 률 5.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AL루버, 친환경합성목재, 알루미늄쉬트, 라인징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설계담당 김광천, 최기성, 김성문, 김용준, 박지영, 허만수 김보배, 서진미, 김지연, 김혜연, 문명화

배치계획

콘셉트 집어내기1 : 영산강

영산강의 흐름을 건축적 선으로 발췌하고, 발췌된 선에 의해 생겨난 건축적 공간을 담고 영역을 생성시킨다.

나주를 감싸 흐르는 영산강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어가는 스포츠단지에 새로운 도시의 컨텍스트가 된다.

콘셉트 집어내기2 : 광역 도로망

건축적 선으로 형성된 두 개의 덩어리에 소요 기능을 담는다. 광역 도로망과 단지내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주변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망과 스포츠단지와의 연계성을 구축시킨다.

콘셉트 집어내기3 : 나주역

호남선 개통의 역사와 함께해온 나주역사, 나주역의 흐름에 대응하는 단지 내의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광역도로망과 나주역사와의 흐름을 연결한다.

콘셉트 집어내기4 : 주변과 연결

구축된 영역에 기능을 담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스포츠센터와 주변과의 완충적 공간을 생성시킨다.

배치계획

■ 접근성

스포츠타운 내의 공용주차장을 통해 부지내의 건축물 접근성 용이

■ 연계성

각 기능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구심점인 중앙홀의 형성으로 화합의 장 마련

■ 인지성

부지를 북동쪽으로 20m의 도로와 인접하며 자연적인 건축의 축을 통해 정면성과 인지성 확보

■ 주변과의 관계

전체 단지내 스포츠시설과의 기능적인 연계성과 유기성을 지니며, 독자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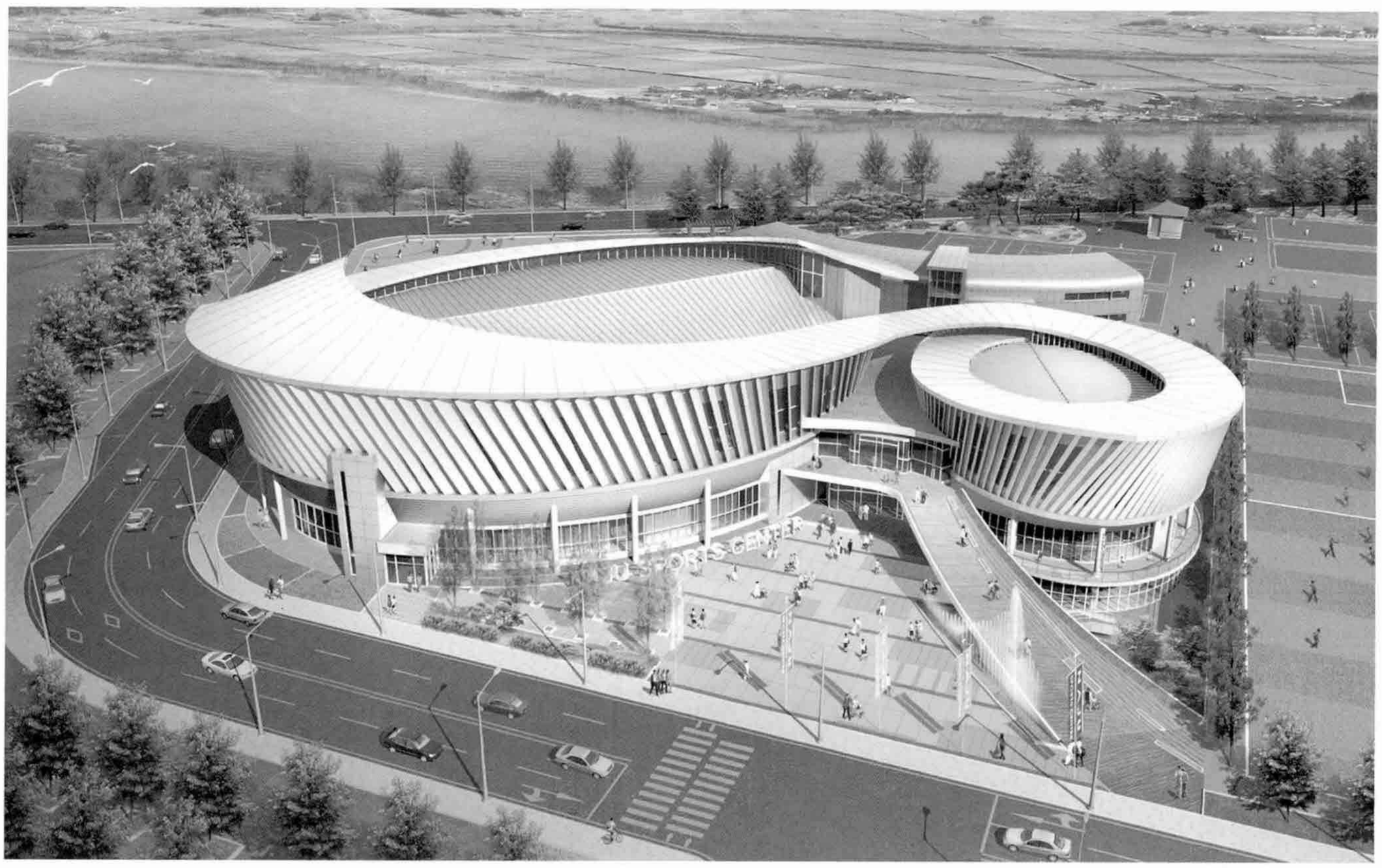
동선계획

■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주변으로부터의 관계성에 있어 교통체계와의 접근성이 용이

-주 · 부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과장을 구성하여 개방성, 인지성 확보

-공간간의 접근 또한 용이하여 각 기능간의 연계성 도모



■ 지상 1층 주요 동선흐름

–주로 실내경기장과 숙소동을 이용하는 선수, 관리 임원과의 동선확보

–관람객의 주동선은 서비스와 관람석으로 이동하는 주동선 구축

■ 지상 2층 주요 동선흐름

–체육센타 출입을 위한 주동선의 큰 흐름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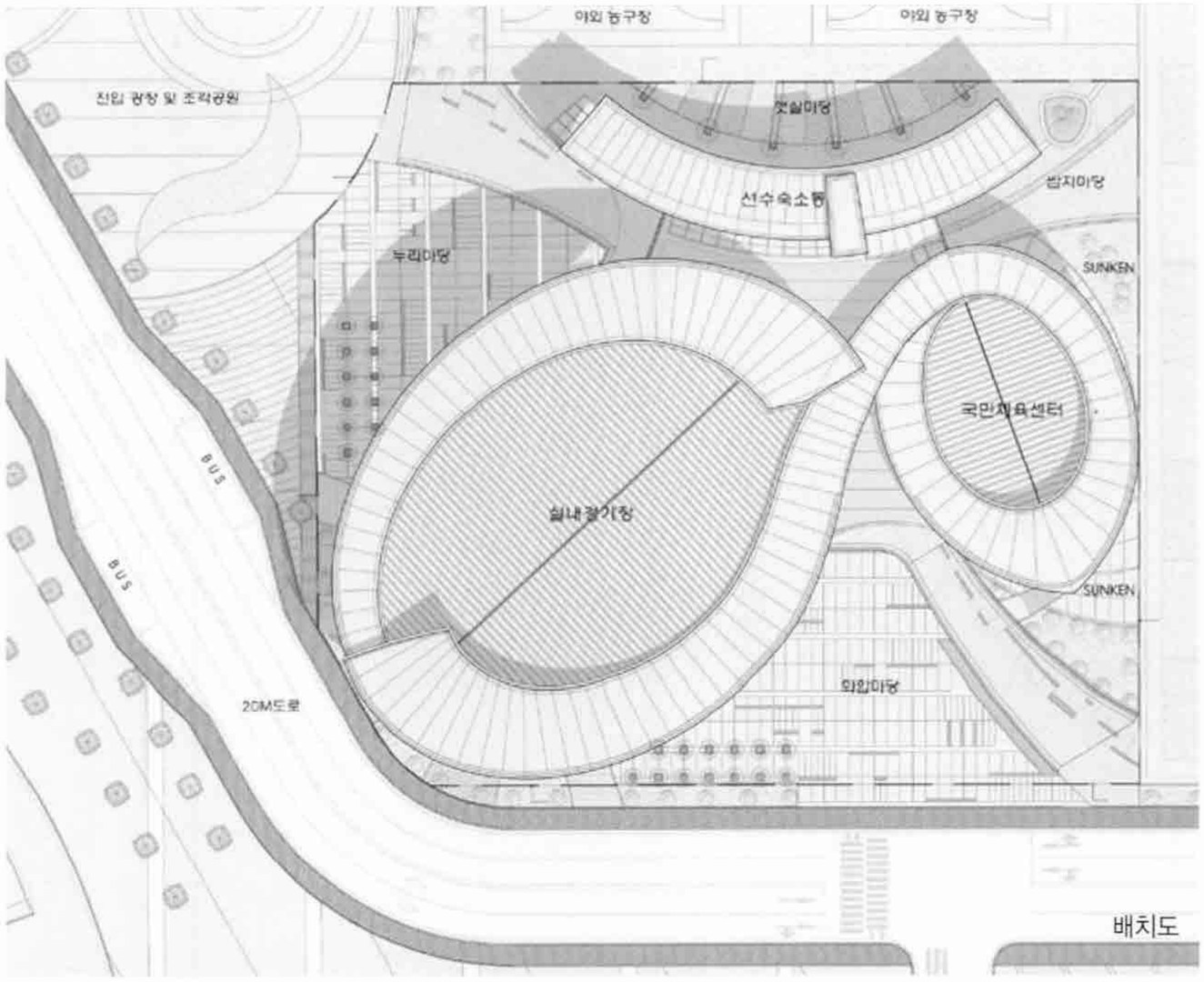
–실내경기장으로부터의 주된 출구로 1층의 기능적 동선과 분리

■ 수직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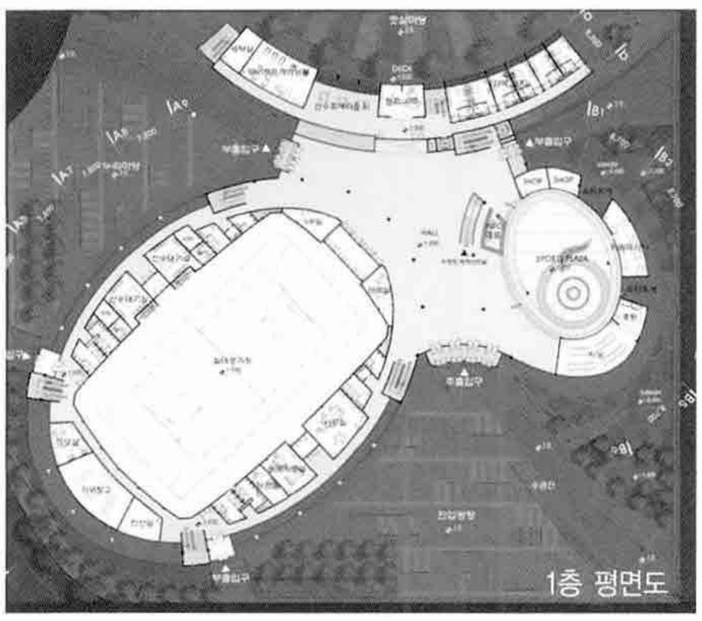
–기능들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직동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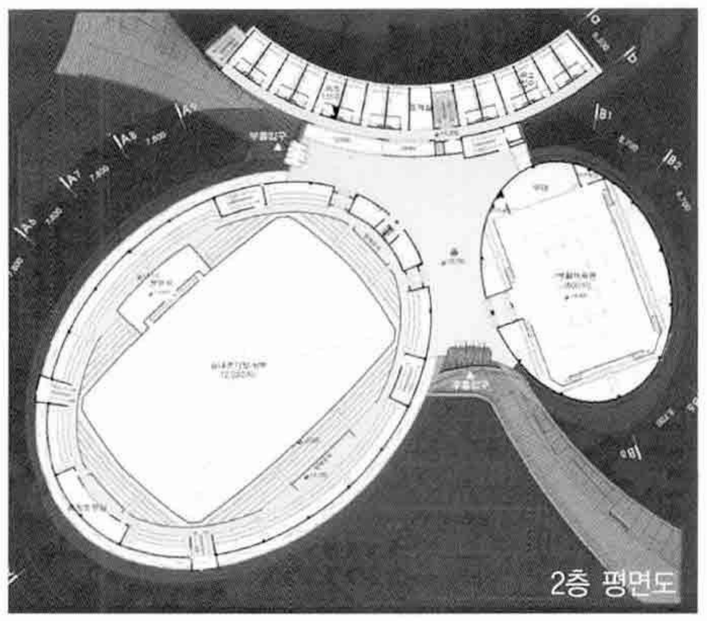
–유기적으로 구성된 동선체계로 유기적인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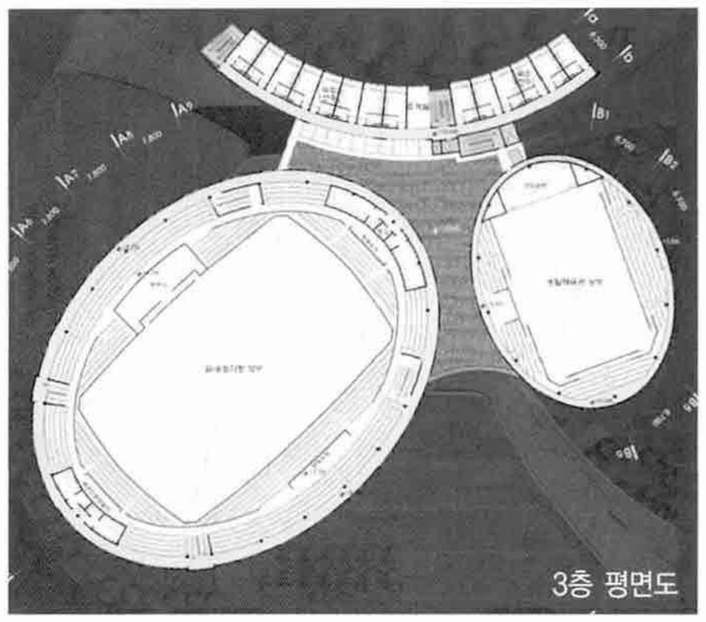
–수직동선의 유기성으로 기능들의 효율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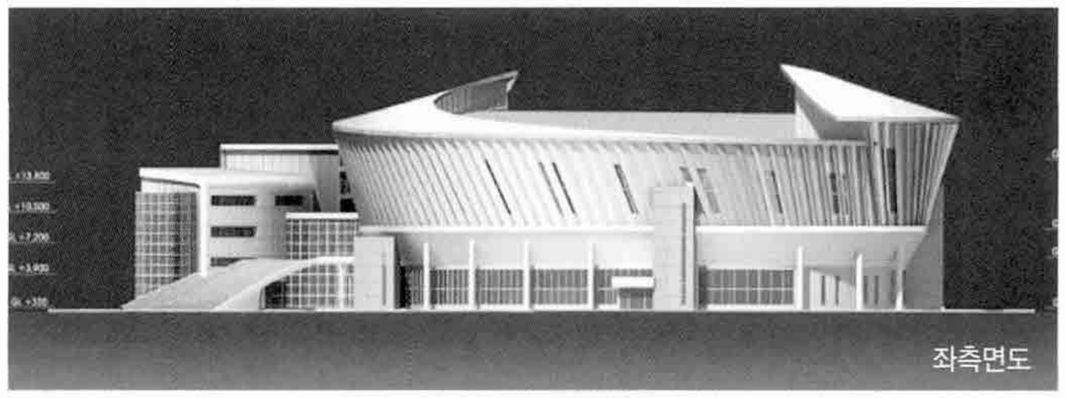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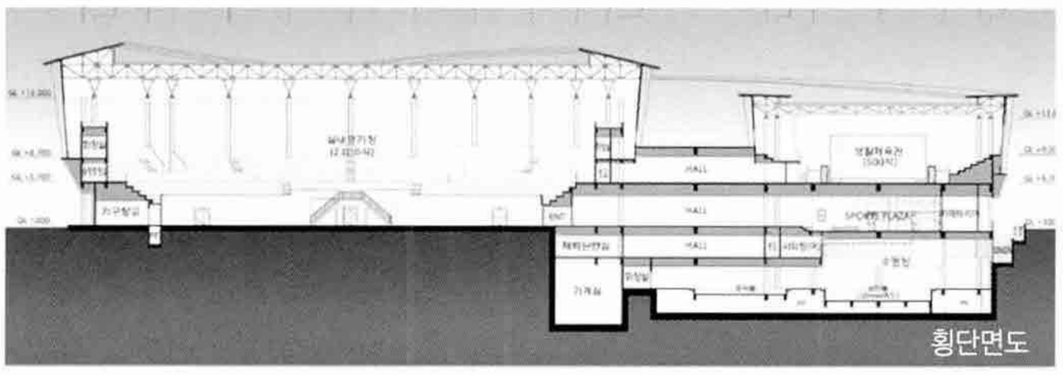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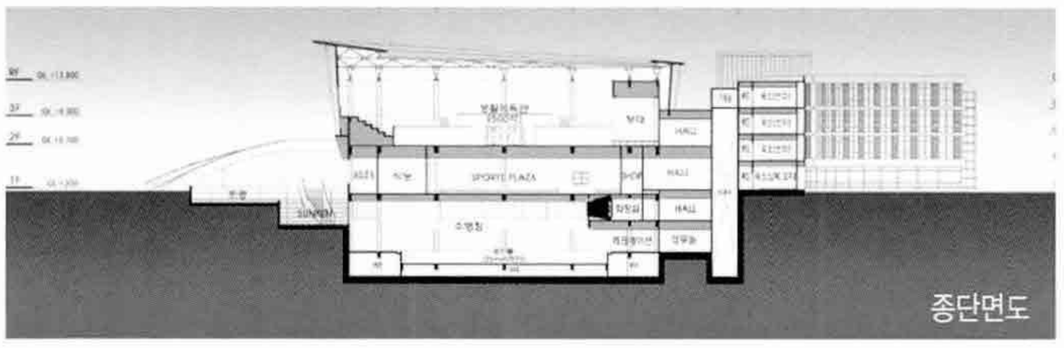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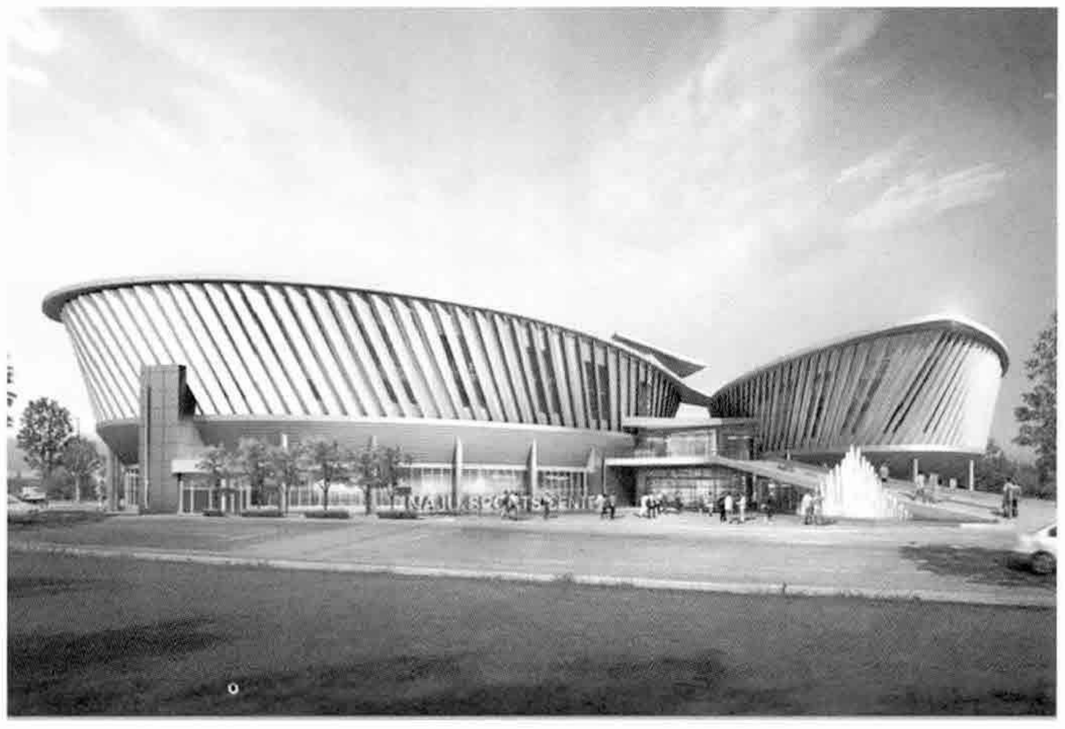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중구청 보훈회관

Junggu Bohun Assembly Hall

당선작 / 유병헌 정회원
(주. 다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2-12외 9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31.6㎡
건축면적	218.54㎡
연 면 적	1,238.12㎡
건 폐 율	50.63%
용 적 률	157.22%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 최고높이 19m
발 주 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설계담당	신희철, 구성회, 서우진, 조인기 박진우, 김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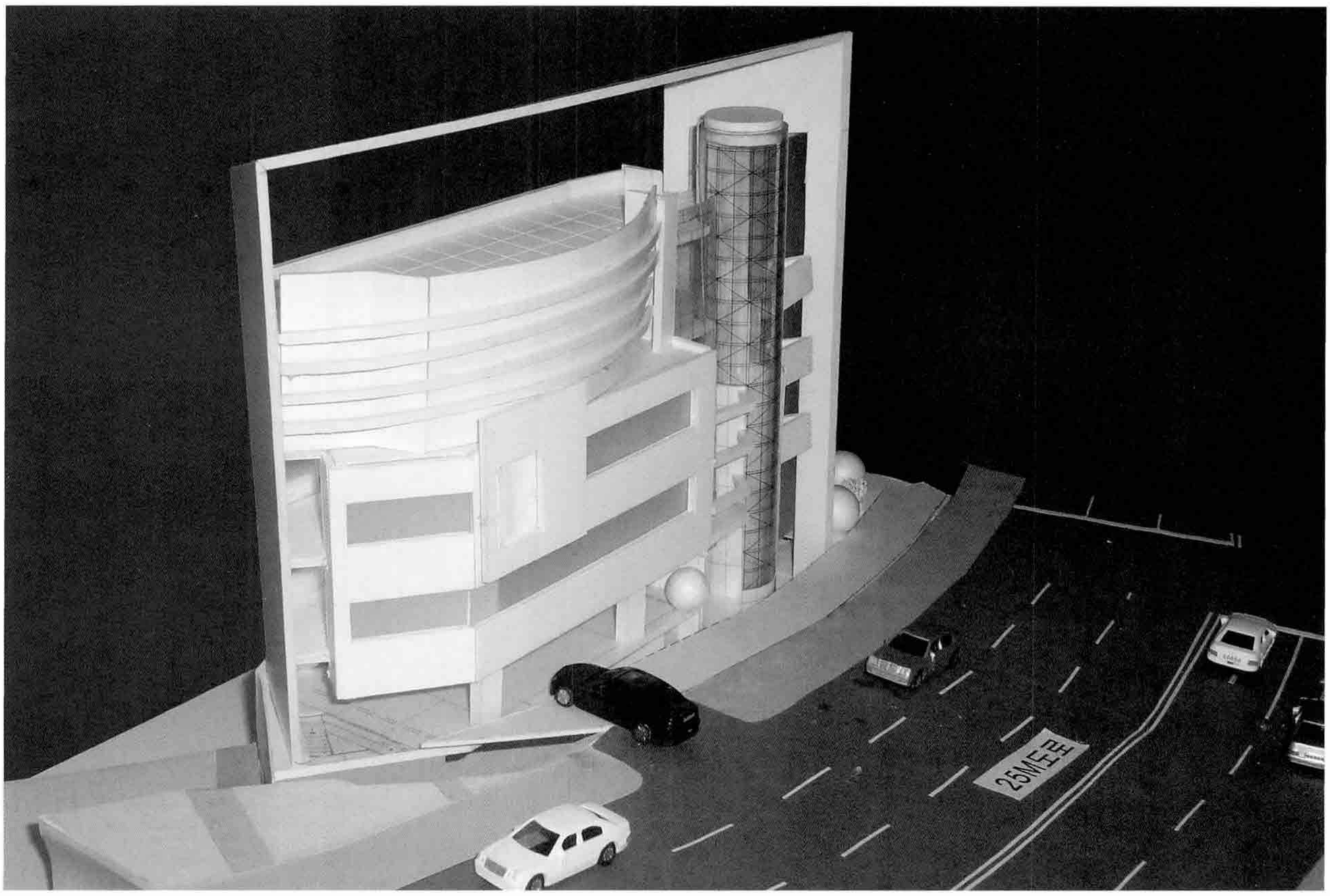
학이 봉우리에와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무학봉이라고 이름 지어진 무학봉 북쪽에 위치한 부지는 신당역에서 걸어오면 거리상으로는 가까우나 그 경사가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우리나라 여건상 경사지가 아닌 지역이 많지 않지만 이번에 설계한 부지의 급한 경사는 설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다. 도로축을 따라 지형의 흐름에 맡기듯 건물을 배치한 후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하부레벨은 보행자의 출입구를 상부레벨에는 차량출입을 두어 자연스럽게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고 보차분리를 하였고 양 끝단에 계획된 코어는 지하층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주었다.

지역 주민의 요구반영 및 지역 특성과 조화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중구청의 바람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설계에 임했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건축물의 디자인(미관), 기능, 구조, 안전, 동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 경제성 및 환경과의 조화,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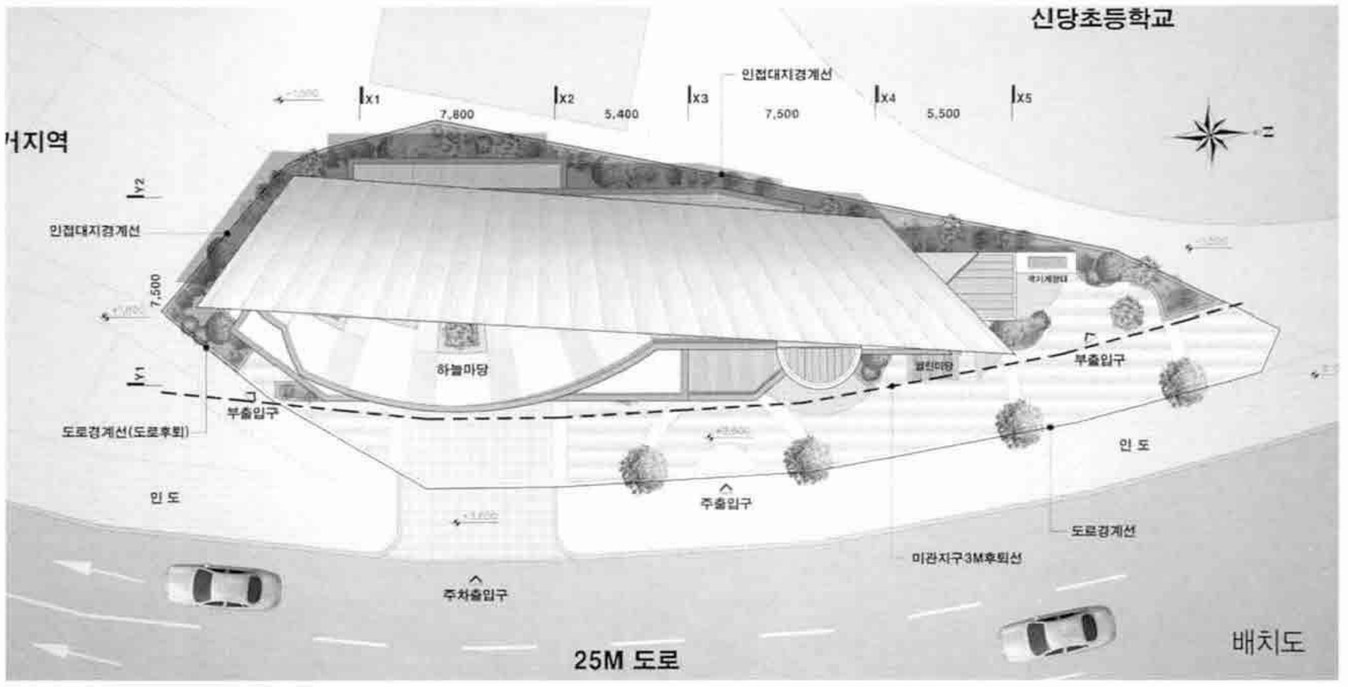
건축학개론의 첫 장에 건축물은 셸터(shelter)로서의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개념을 잡고 계획을 시작하였다. 젊은 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그들을 이제 국가가 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된 국가유공자들의 안식처(shelter),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지역보훈가족의 정보교류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형성함에 있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미와 기본도형의 조형미가 가미된 평면과 입면계획을 하면서 그 개념은 쉽게 해결되었다. 지상층 건물을 보훈가족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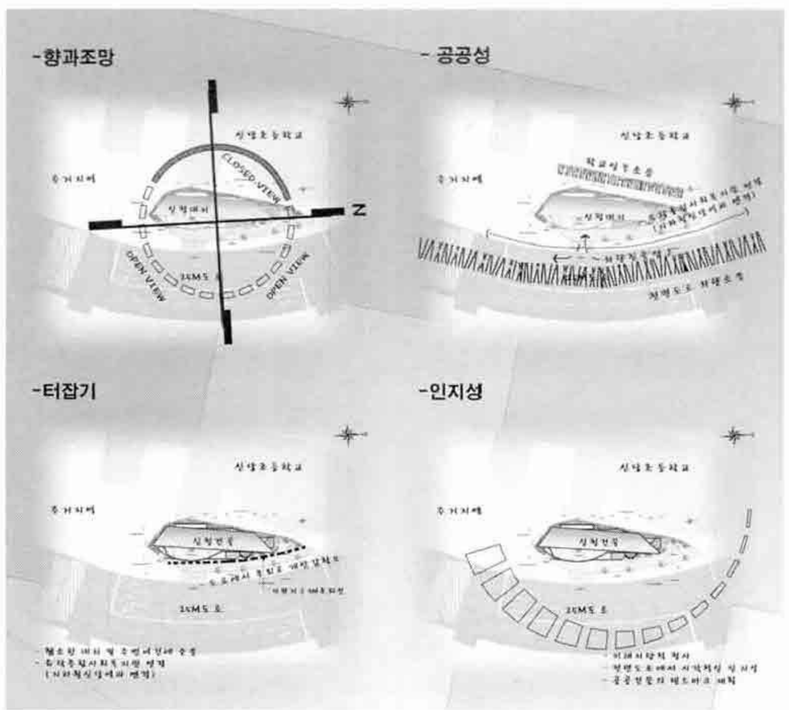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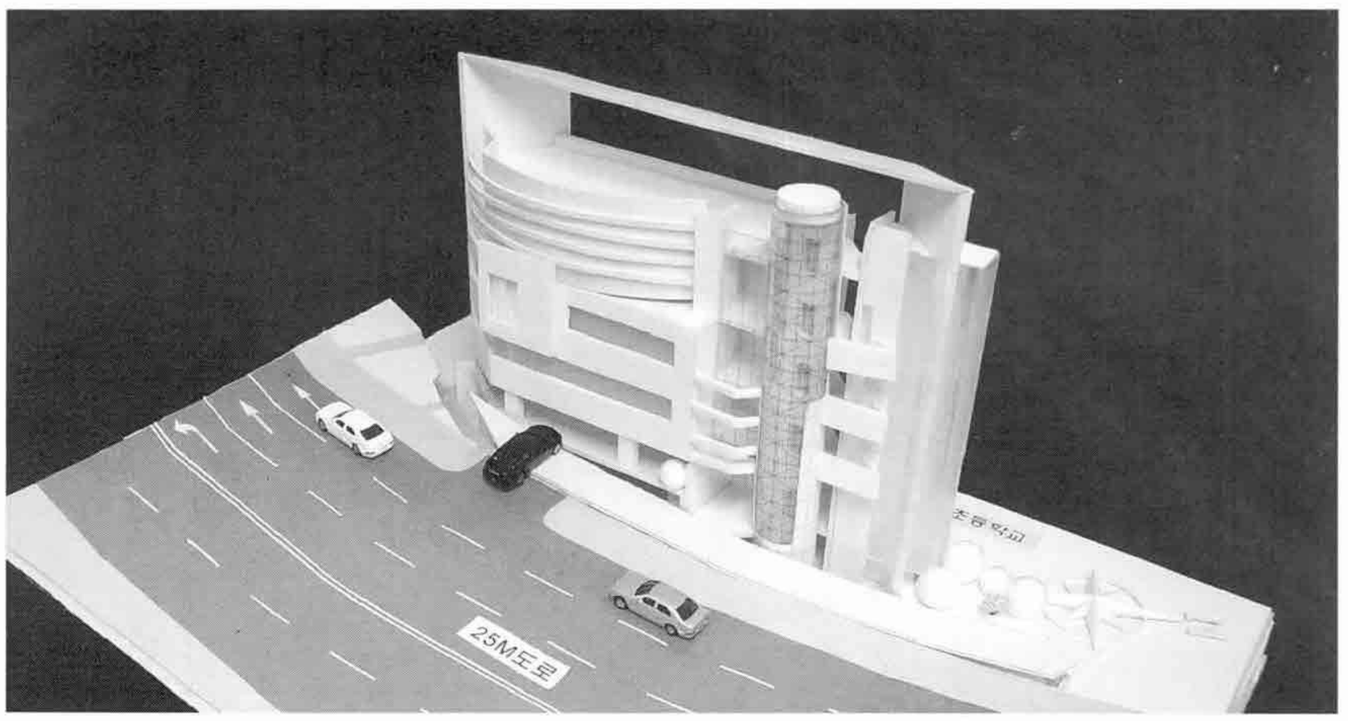
하고, ㄷ자 모양으로 연결된 지붕과 외벽은 안식처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매스의 비례와 균형을 부여 건물의 안정감 확보해 나가면서 계획은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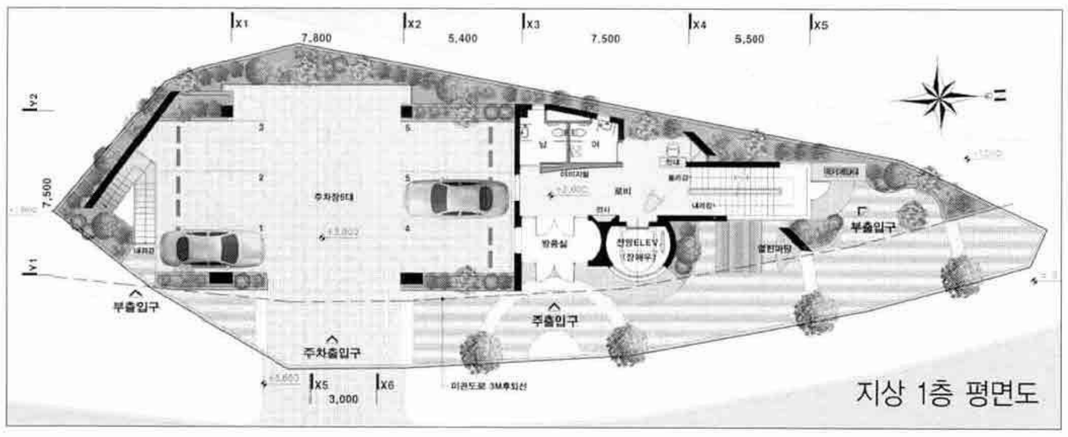
극닥적인 비정형의 대지 속에서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및 적절한 모듈계획과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형에 공간적 넓이와 깊이를 최대한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해 지붕과 전면도로와 연계된 주차장은 필로티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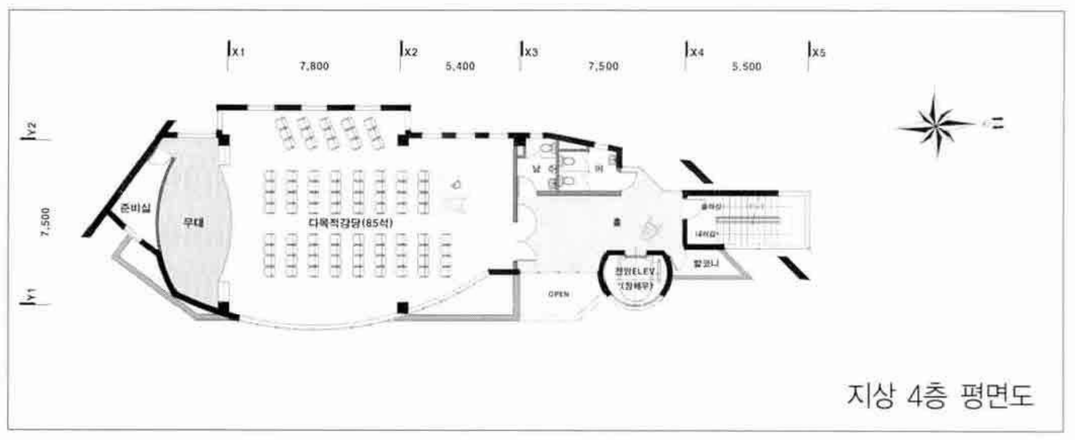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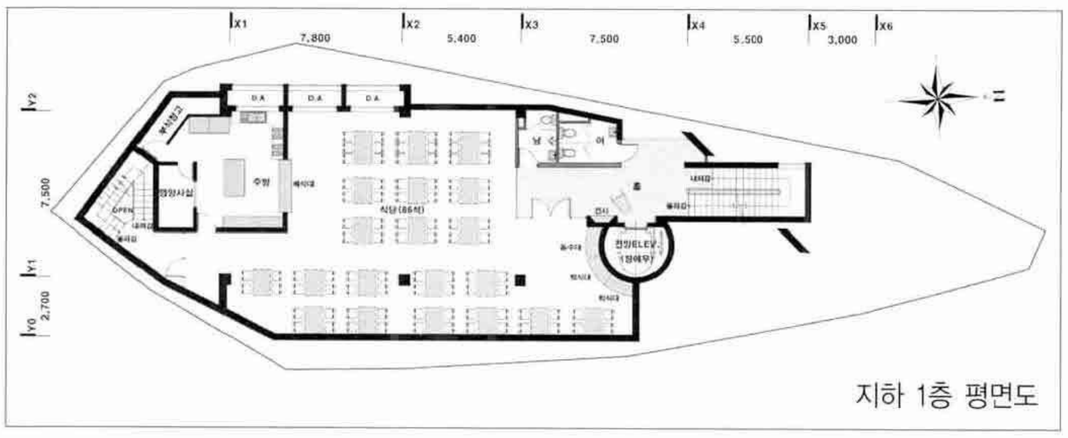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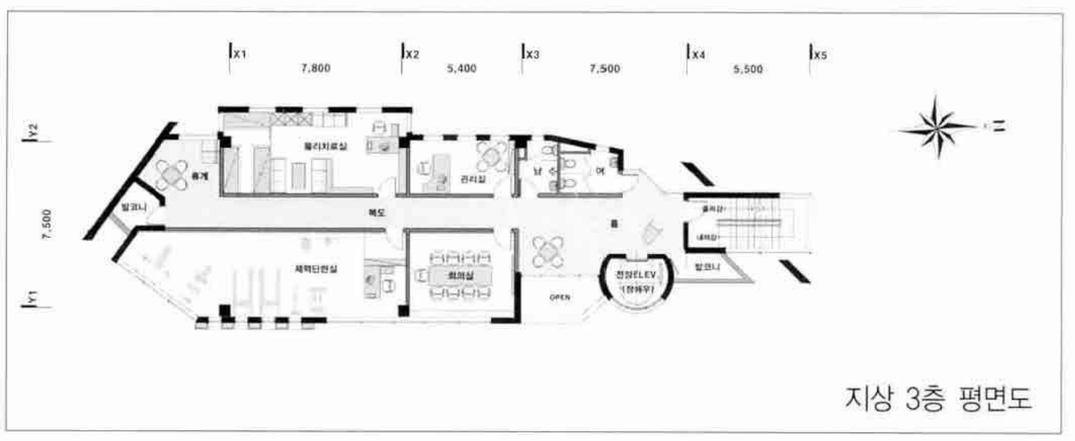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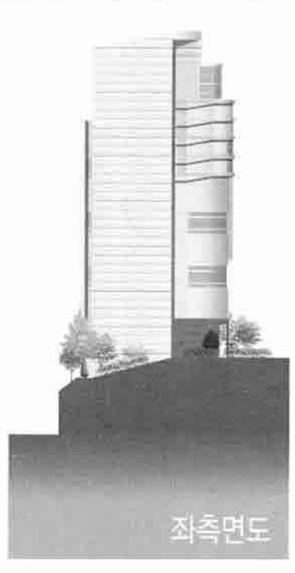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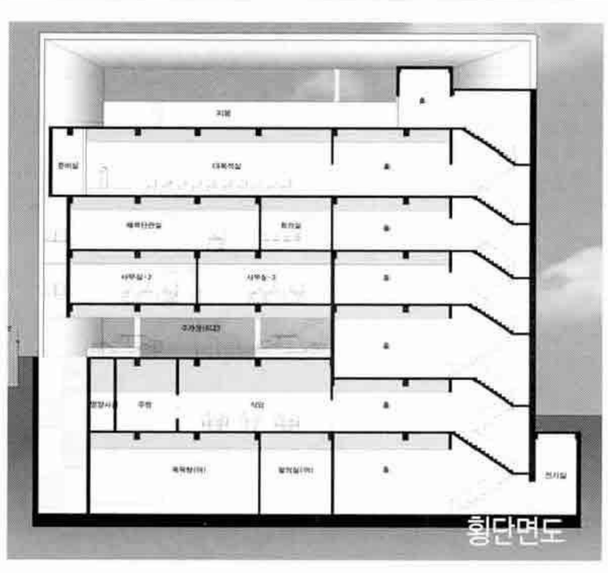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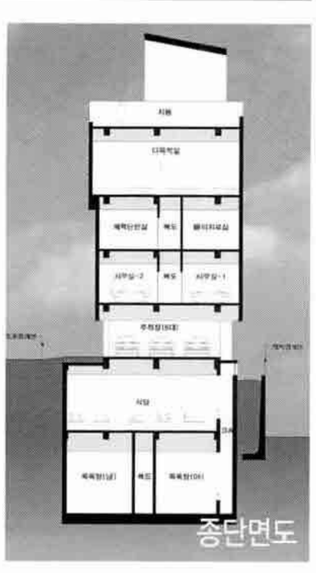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중구청 보훈회관

Junggu Bohun Assembly Hall

가 작 / 한형우
(스페이스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162-12외 9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 용 도 노유자시설 중 기타시설 (보훈회관)
대지면적 431.60㎡
건축면적 246.71㎡
연 면 적 1,259.88㎡ (지상: 753.23㎡, 지하: 506.65㎡)
건 폐 율 57.16% (법정: 60%이하)
용 적 률 174.52% (법정: 200%이하)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임윤택

기본계획방향

■ 비움 void

높은 밀도로 인하여 여유가 없는 대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의 체험을 유도하고 공공성에 그 목적을 두는 소통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하여 보이드(void)를 계획한다. 보이드는 내부 – 내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보이드와 내부 – 외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보이드로 각각 기능하게 된다.

■ 공간의 흐름

내 · 외부의 비워진 공간은 다양한 층의 다양한 위치에 계획 되어졌다. 이러한 각각의 비워진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평 · 단면상의 흐름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공간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

■ 형태와 재료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는 주변의 학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공공성이 강조되는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려하였고, 주변 상황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시도이다 . 대지상황에 의해 도출된 기본 형태를 변형한 후, 그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하드우드(IPE)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하드우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변해가는 재료로 시설 이용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공공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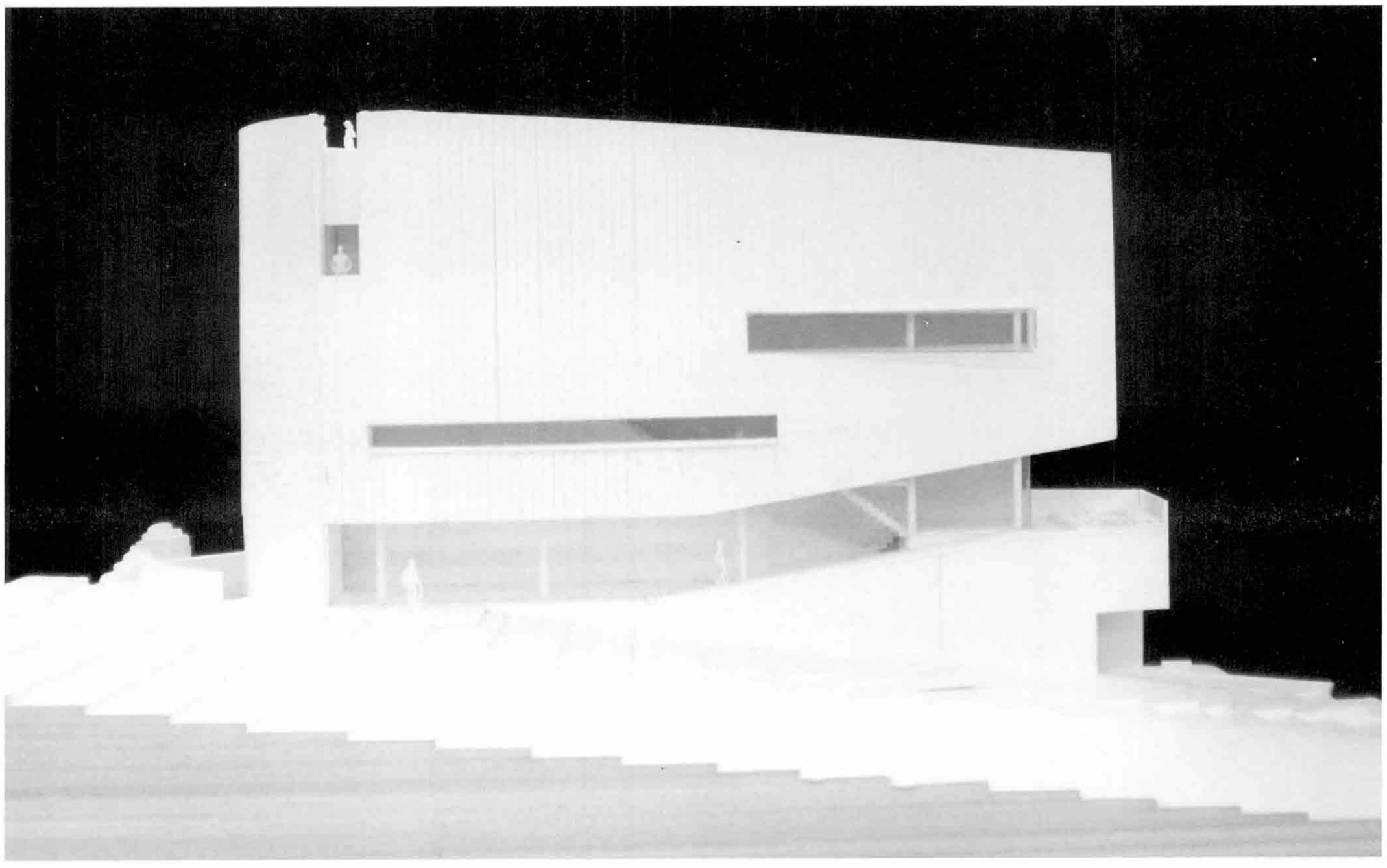
배치계획

■ 주변과의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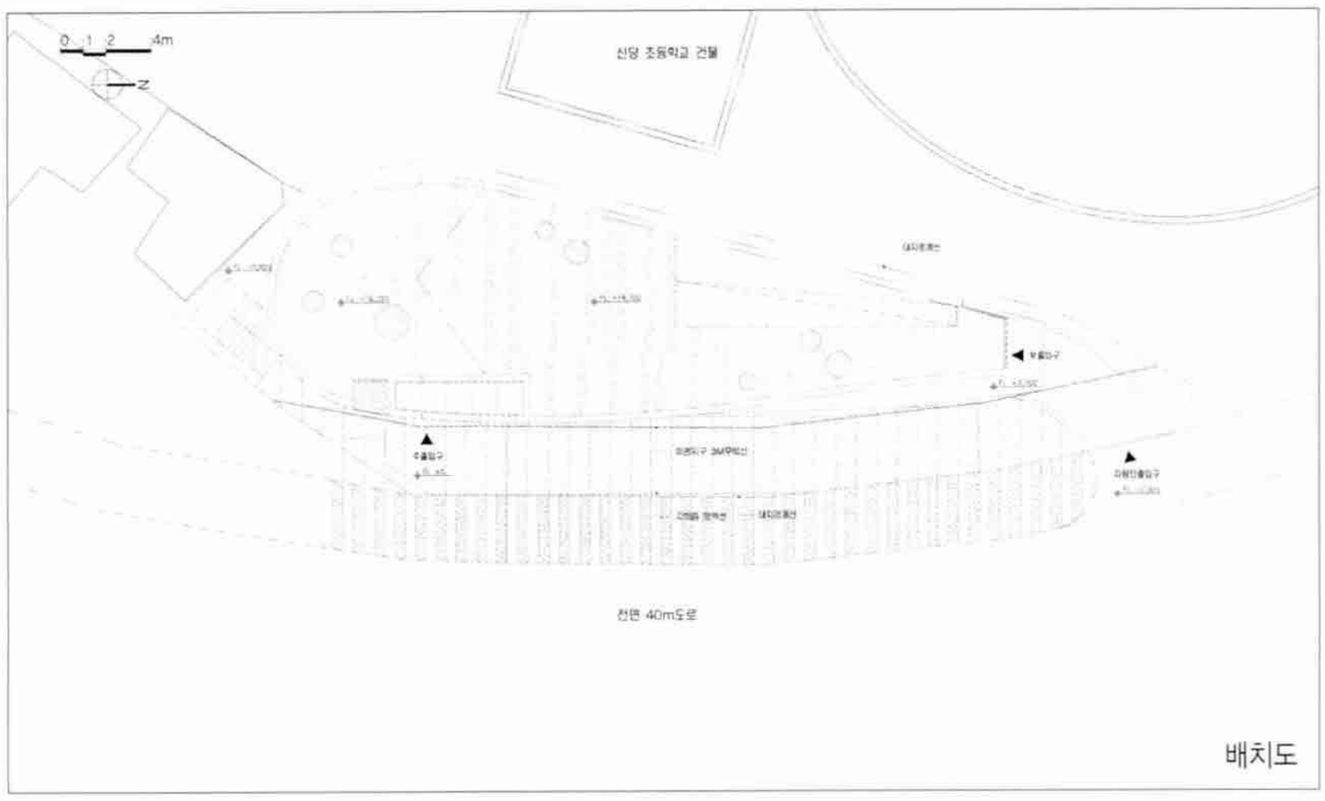
주변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완공된 주거지로서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고밀화된 공동주거의 형식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최근 확장된 40m 전면도로, 주변의 거대한 스케일(Scale)의 공공 공간(학교, 도로관리 공단 등)을 고려하면 대지의 규모가 공공성을 표방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부족하고, 대지의 형태도 이 지역이 앞으로 변모될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적절한 모습이다. 추후 변모될 이 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공공성에 대한 해석으로 단순한 형태의 조형과 함께 주변의 지형을 반영하는 배치계획을 하였다.

■ 도로와 건축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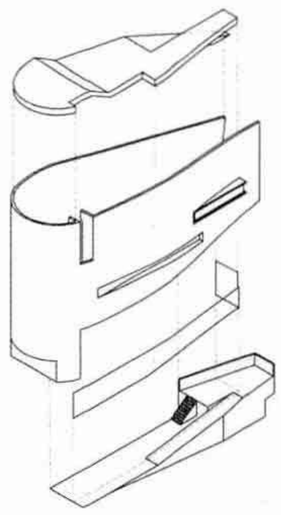
계획 부지의 남북 방향으로 확장된 도로와의



Level 차이는 최대 3,500이다. 계획안에서는 새로 조성된 도로 Level을 대지 내로 연장하여 다양한 Level에서의 진입을 강조하였다. 차량 진입은 -2,900 level, 1층 진입은 +0 level이고 2층 Deck로의 진입은 +2,000 level에서 이루어져 주변과 다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배치도





목상녹화_세덤sed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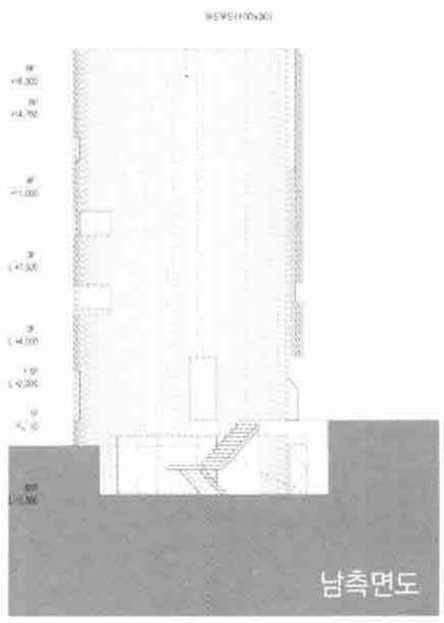
하드 우드(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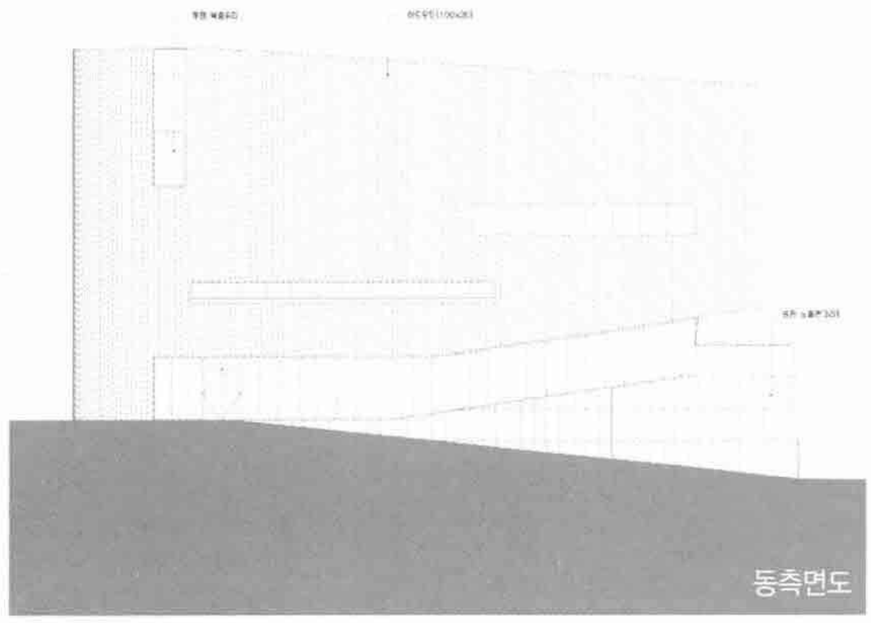
투명복층유리



송판 노출콘크리트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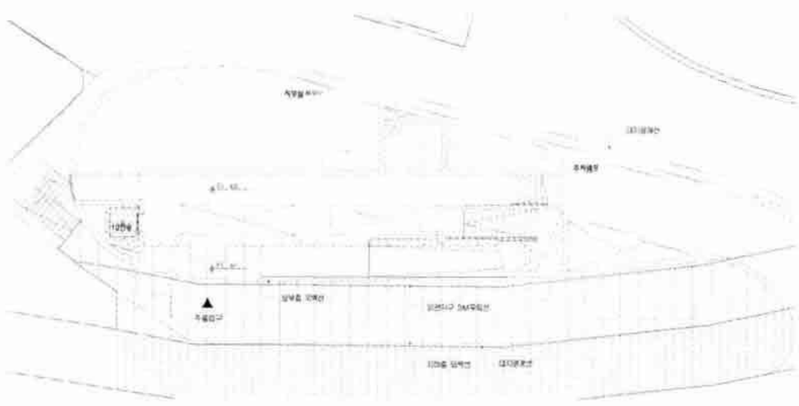


동측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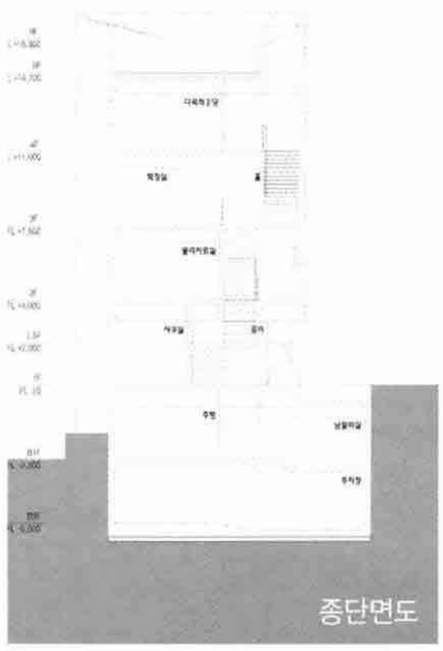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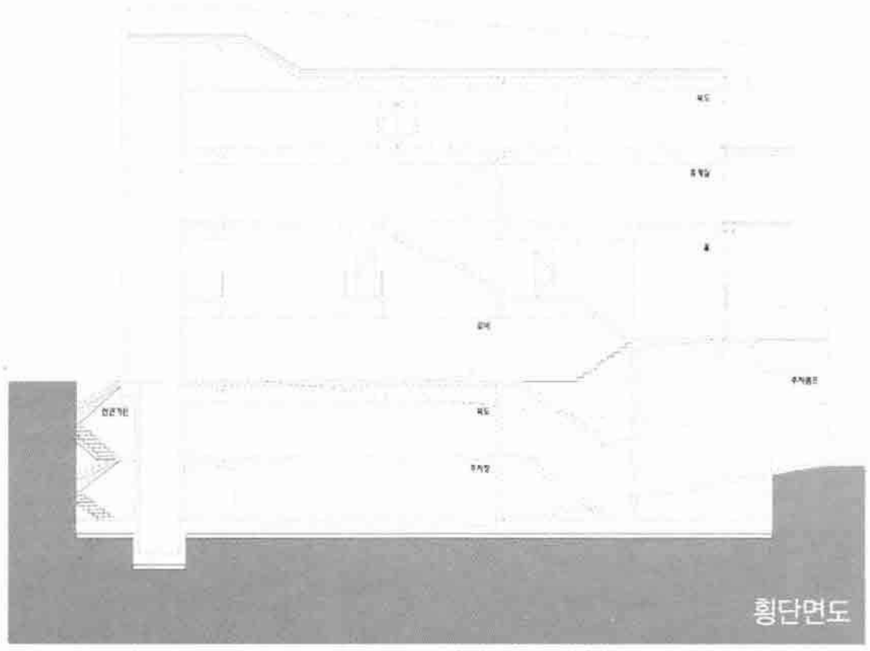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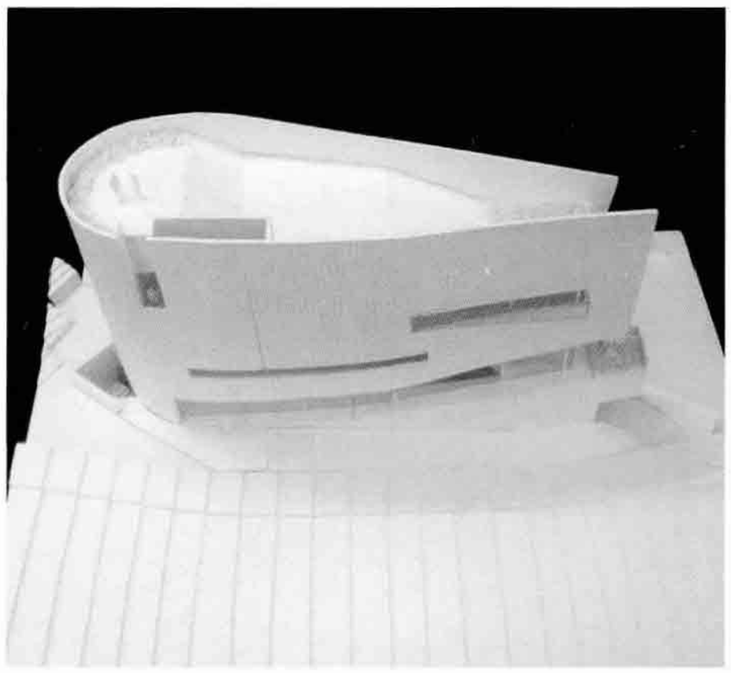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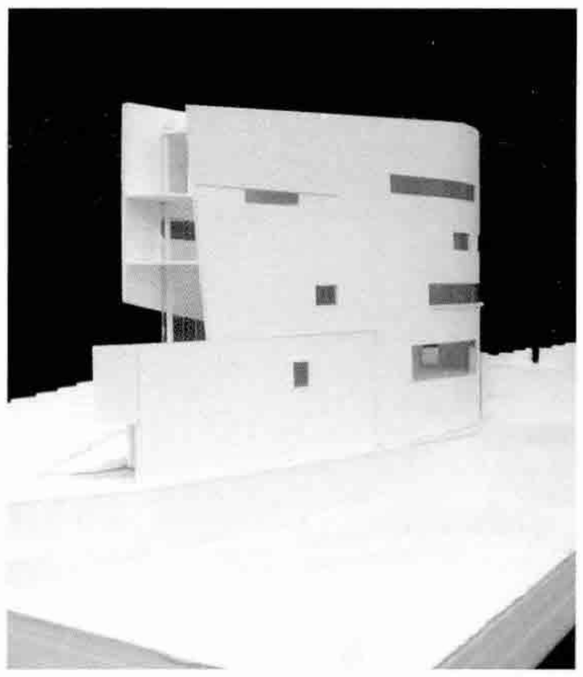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연재 SERIAL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응용 친환경건축 방향

For Sustainable Future with Sustainable Architecture

1970년 초에 배럴당 1불하던 원유가가 지금은 120불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하더라도 40불 이하 수준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유가 100불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 대한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더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우리의 활동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한편 90년대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기술은 선택적 사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고급건물 또는 데모성격의 건물에만 반영되던 미래의 기술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10년 남짓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 지속가능, 그린, 에코 등 이며, 최근 많은 건설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이 되어버렸다. 최근 유가의 급등세 보다는 더디다 할 지라도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 사회 경제적 변화 동향을 돌이켜 볼 때 건축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유가급등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 놀라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제도 확대, 보급 강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이제는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자 한다면 두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연재에서는 그동안 오랜기간 떠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건축실무자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특히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 중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건축사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측면에서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실질적 접근방법과 사례를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1. 친환경 건물의 미래상과 건축사의 역할
2.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 건물의 구현개념 및 접근방법
3. ZeSH,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의 설계 및 시공 사례와 실제효과
4.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새바람 – 개념과 건축적 설계요소
5. BiPV, 투광성 태양전지를 이용한 BiPV 자연채광 응용기술
6. BiST,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새바람
7. BiWP, 건물일체형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새바람
8.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시장을 위한 태양에너지 응용 기술, 솔라 리모델링
9. 단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 접근방법 및 보급활성화 방안
10. 단지규모의 에너지자립를 위한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및 시티(ZeC) 설계 사례

필자 : 윤종호, 현 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Jong-ho

윤종호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연수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부에서 10여년이상 근무한 뒤 현재 한밭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 이사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소(사) 이사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심의위원

1. 친환경 건물의 미래상과 건축사의 역할

Future Forms of Sustainable Building and What's the Role of Architect in it

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및 기술적 상황이 표현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겠는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 하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여러 문제들 중,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지구환경 보호 문제에 최우선권을 주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건축을 그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표현하는 문화적 차원의 예술활동 이전에, 인간의 기본 생활이 영위되는 피난처 제공 개념에서 볼 때 지구환경과 건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건축분야의 새로운 움직임인 친환경건축(Environmental Architecture) 및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 지속가능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환경, 에너지 그리고 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

오늘날 지구환경의 보존 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산업혁명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류의 편익은 극대화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각종 천연자원의 고갈,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평형을 위협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류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그 심각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지구환경의 위기상황과 심각성은 90년대 이후부터 긴박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국제적 움직임을 통해 쉽게 인식될 수 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해 1987년 서명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필두로, 탄산가스 방출에 의한 지구온실효과와 이로 인한 기상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및 1994년의 바젤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국제적 규모의 규제 움직임과 각국의 대응노력이 강화된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발효된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2005년 2월부터 정식으로 발표되어 한때 매스컴을 떠들썩 하게 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기존에 취해오던 개발중시정책보다는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고 있지만,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며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기간부터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철강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어 1990년 기준으로 5% 이상 줄이려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절반가량을 폐쇄해야 하는 등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구환경의 문제가 범국가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친환경적 경제질서가 새로이 구축됨에 따라 지구환경의 보존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경제 및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존 문제 이전에 7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에너지 파동을 통해 이미 많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970년초 배럴당 유가가 1$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100$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며, 당장 내일이라도 중동지역의 조그만 분쟁이 또다른 에너지 파동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지구의 에너지 자원중 90%이상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의 비갱신성 에너지이며, 이들의 향후 가채연수는 126년 정도이다. 현재 예측되고 있는 앞으로 30년간의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신장률은 연평균 1.2~2.4%이다.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매년 1%씩 계속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82년 후면 모든 에너지 자원이 고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최근의 환경위기에 대한 인류의 지대한 관심은 현재 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의 형태와 이와 관련된 소비 실태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수긍하는 것이다. 현 에너지 자원의 유한성과 이의 소비증가로 야기되는 온실효과 및 도시 고온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기후의 이상변동, 산림지대의 소실과 토양의 퇴화, 대기의 화학적 구성성분 변화, 공기 및 수질오염 등은 우리의 현재 행태가 부적절하며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 대책이 필요함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구환경 훼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경측면에서본 건축의 시대적 변화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우리의 선조들은 건축에서도 '자연에의 순응' 이라는 기본원리를 적용하였다. 건물의 향과 형상, 동지와 하지를 고려한 처마길이나 맞동풍을 유도하는 공간배치 및 창호계획, 적절한 건물의 외피재료 등 많은 풍토주의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의 흔적을 통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지 못했던 이 시대로서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발달된 지금까지의 기술은 건물이 유기체로

서 자연환경과 상호 작용하기 보다는 기계적 설비방법으로 환경을 조절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증가되었고 때문에 과다한 건물에너지의 사용은 지역환경과 나아가서는 전체 지구환경의 평형을 깨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건축의 역사를 돌아볼 때 20세기초 기능주의 건축이 대두되면서 건물의 인공적 실내환경조절이 이루어지고 자연적 방법에 의한 건축환경 조절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변화되었다. 고층 커튼월 구조의 유행과 함께 벽체의 환경조절능력은 점차 약화되어왔으며, 이러한 건물의 실내 쾌적환경 조성은 전적으로 설비형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기계적 설비투자의 증가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에너지 문제는 1973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세계적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건축의 에너지 절약적, 에너지 지향적 설계로의 방향전환에 의해 건축설계 과정에 건물 에너지 성능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목표를 대두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90년대 이후부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와 결합되어 '친환경 건축'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출하게된 모태가 되었다. 즉 자연환경과 기후에 순응하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 친환경 건축

가까운 미래의 건축물을 예측해 볼 때,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환경의 인식 변화와 환경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 또는 환경건축(Environmental Architecture)이라는 단어는 이미 80년대부터 자주 인용되고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70년대 에너지파동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환경건축의 의미를 재조명 해보면, 건축을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독립적 개체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주변환경과 순응하는 건축 또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건축이란 인간과 환경 측면에서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오관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극소화함으로서 감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로서의 인공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건축은 경험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주체로 하는 건축의 이념을 표방한다. 즉 환경건축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구에너지 등 각종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한편 신환경 기술에 따른 건물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 및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 지속가능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등의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설계, 환경건축의 개념과 함께 모두 동일한 배경 하에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등 건물의 물리적 환경과 에너지 지향적 설계에 주안점을 둔 80년대 환경설계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좀더 적극적 차원에서 자연 및 지구환경 보호의 개념을 건축에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즉 지구환경의 위기를 인류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명체의 영유공간인 지구의 능력을 치유하고 증대시켜 재창조할 수 있도록 건축활동을 접근하려는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격인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은 앞선 환경건축의 개념에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여 에너지성능, 고효율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건축재료의 선정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건물 사후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계획함으로서 지구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려는 건축활동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된 건축물을 그린빌딩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법규상에 정의된 친환경 관련 정의는 1999년말 공포된 건설교통부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내에 정의된 '친환경적 건축설계' 의 개념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정한 '친환경적 건축설계' 의 개념은 '지구환경 보전과 삶의 질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새로운 건축적 움직임에 대한 용어들은 결국 동일한 목



그림1_ The Solar Office, 영국 북동부 Sunderland시, Doxford International Business Park, 1998 / 친환경 건축의 기본 개념은 과거 지역기후에 순응하는 풍토주의 건축의 기반 하에 전지구적 현안문제인 에너지성능 및 지구환경 보존성능의 기술적 통합을 통해 건물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건축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용어적 의미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련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태동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 지속가능건축 등은 기존의 환경건축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한 용어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통칭하여 '친환경적 설계개념' 또는 '친환경 건축' 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건축의 전개과정과 설계원칙

건물의 근본적 역할은 외부환경 변화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절체의 기능이다. 환경조절의 기본개념은 기후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미기후의 조절이나 단열보강과 같은 기본적 에너지절약기법을 통한 조절이 선행된 후, 태양이나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연형 기법으로 최대한의 기후조절을 시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기계설비를 통한 조절을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계적이나 인공적인 수단이전에 자연적 해결책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준한 시스템 도입이전에 태양열 난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타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기 조명 시스템의 도입이전에 자연채광의 설계반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건물이나 소형건물의 경우 냉방은 자연적 수단 자체만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가능한 기계적 냉방시스템은 배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단계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의 선정이나 재활용 소재의 적용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기계설비 단계 이전의 모든 환경 친화적 설계전략은 건축 계획적 요소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설비설계와 같이 분리 독립적 과정으로는 접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환경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건물의 대지나 방위 기본사양 및 자연형 태양열 전략 등 기본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설계 초기단계이다. 초기단계에서 설계자가 이러한 환경파괴의 영향 및 에너지 절감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약간의 설계 수정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 절감의 성취 및 지구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며, 후속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친환경 건축의 설계원칙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의 정의를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설계원칙은 크게 다섯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의 최우선 목표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이다. 성능지향적 설계도 실내 쾌적성의 보장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3)

첫째는 건물 생태(Building Ecology)적 측면에서 건강한 실내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나 작업공간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이나 시스템의 대다수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건축된 뒤 몇 년간 유독성 가스나 물질을 공기중으로 방출한다. 설계과정에서 재료선정에 대한 조정과 대체가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것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으로 건축자재 및 건물 시스템이 유독성 물질이나 가스를 실내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하며 부가적으로 여과장치나 식재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로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가 접해오고 있는 에너지 지향적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에너지 부하 저감기술과 자연 및 대체에너지의 활용기술 분야가 된다. 기존의 단열기술이나 공조시스템의 효율향상, 열원반송 및 축열기술, 부하 및 시스템 제어기술 등의 기반하에 냉난방 채광을 위해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 등의 자연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화된 설계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친환경 건축 재료(Materials)의 측면으로 지구환경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재료의 적용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철, 유리, 콘크리트 등 근대건축의 기본재료 개발이래 최근 들어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건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수없이 많은 각종 신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내의 건강환경을 위한 비독성 재료 선정의 문제는 상기의 첫 번째 원칙인 건물생태의 범주로 볼 때, 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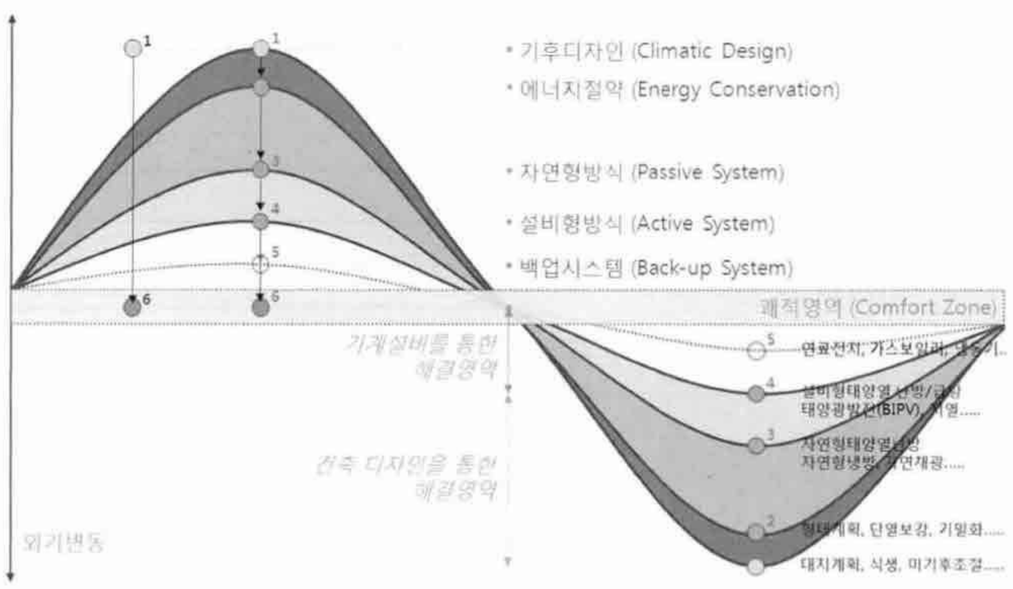


그림2_ 친환경 건축의 환경조절 및 에너지 자립화 방법 :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건축설계의 접근방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 진행이 이루어져야 성공될 수 있다. 기후디자인, 에너지절약, 자연형시스템 등 건축 디자인적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 최대한 부하를 줄여놓은 후, 잔여부하에 대해서만 기계설비 시스템 등으로 처리해야한다.



그림3_ 각종 친환경 마감재 및 식재로 구성된 AEE_Intec 태양열연구소 사옥 실내전경, 오스트리아 / 친환경 건축물의 최우선 목표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이다. 성능지향적 설계도 실내 쾌적성의 보장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재료의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건축시설 해체 및 철거에 따른 시설폐기물과 건축재료의 재활용성 측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건축 시설물의 밀도가 높고 개도국 상황에서 활발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엄청난 양의 시설폐기물 발생된다. 이는 한정된 국토상황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처리문제 이전에 이들 폐기물이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자재의 재활용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재의 생산과정에 요구되는 에너지와 제작공정 상에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발생정도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목재와 같은 재료는 생산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가 강재의 1/20, 콘크리트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재활용성 및 단열성도 매우 뛰어난 재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친환경 재활용 재료의 개발 및 활용제도가 미비된 실정이나 우리의 현실 및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원칙은 환경적 형태(Environmental Form)로서 건물의 형태나 평면이 대지 및 주변환경, 지역기후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지의 생태를 치유, 복원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도 조절되어야 하며, 건물의 형태가 거주자와 자연자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사려깊은 설계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래의 건물은 보다 많은 가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의식 속에 보다 세심하고 사려깊은 설계가 책임있게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친환경 건축의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접근방법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와 건물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담당해야할 건축활동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기술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건축물을 통한 환경개념의 구현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및 기술적 문제 이외에 친환경 건축의 실현주체인 건축 설계분야의 사고전환과 접근방법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설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과정에 대한 접근방식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계의 접근방식 변화에 따라 건물은 거주자의 열환경 및 시환경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운영상에 에너지 절감을 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재창조 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지구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건축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론과 기술은



그림4_ 건설폐기물, D대학 현장 / 친환경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료를 비롯해 시공 및 유지, 운영 등 제반과정은 전 생애과정 평가인 LCA분석에 근거해 경제성 및 투자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설계과정을 통해 하나의 물리적인 형체로 도출되기 전에는 한낱 개념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주체인 건축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건축설계업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계과정은 설계업무의 성격에 따라 철저히 분업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건축 기능적 문제와 외관 등은 건축사의 임무로 부여되어 있으며, 실내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엔지니어의 담당으로 분리되어 결국 재실자의 쾌적문제는 추후에 기계적인 설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설비관련자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각종 환경 친화적 설계개념이 건물의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없으며 결국 쾌적 실내환경 조성의 문제는 전적으로 값비싼 기계설비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친환경 건축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접근방법 상의 문제중 건축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요인 즉, 기본적인 원리 및 이론 습득의 필요성, 각 요소기술의 통합설계 필요성 및 설계과정상에 요구되는 통합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친환경설계 구현의 성패는 결국 건축사가 친환경적 설계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성능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다른 설계목표와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건물 내의 기본 물리적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난방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단순히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남측벽면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모든 자연형 시스템의 기본 작동원리가 되는 온실효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환경조절기법인 자연형 시스템은 기계설비와 같이 완성된 사양의 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구조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간창출을 위한 기존 설계과정과 동일하게 건물조건에 따라 창조적인 시스템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물리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수요건이 된다.

환경설계의 구현과정에서 주지해야할 또다른 중요사항은 설계의 진행과정에서 수행되는 친환경적 설계인자의 통합방법일 것이다. 현행의 설계과정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요소나 친환경적 설계요소의 적용은



그림5_ CIS Solar Tower, PV 높이 121m, 총 391kWp급의 초고층 BIPV 태양광발전 건물 사례, 영국 맨체스터, 2006 / 21세기 들어서는 기존의 에너지절약적 기술의 한계를 넘어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건축에 응용하는 친환경적 기술의 구현이 일반화되고 있다.

분리 독립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축사는 건물의 외피를 설계하고, 전기기술자는 조명장치를 선택하며 설비기술자는 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냉난방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다수의 설계과정에서 따르고 있는 일반적 건축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건물의 대다수는 기능적 측면에서 건축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효율측면의 잠재력을 도출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시공에 있어 경제적이고 운영에 있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팀은 환경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며 모든 건물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설계과정의 초기단계에 착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망을 위한 창과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 및 건강환기를 위한 팬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에너지 의식적 설계는 각 개별 성분의 효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창의 경우 에너지 절약적인 저방사 로이유리를, 조명장치는 고반사 고효율 형광램프를, 팬은 고효율 모터를 적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친환경설계 과정은 모든 시스템들 사이의 상호영향을 검토함으로서 보다 낳은 하드웨어의 개선 수준을 넘어 개선된 개념으로의 확장을 고려한다. 우선 창과 관련하여 조망 외에 자연채광을 통해 조명에 필요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 조명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다면, 동시에 냉방부하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냉방부하의 절감을 통해 팬의 용량 축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환기를 통해 일정시간 팬을 운영하지 않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창문, 조명, 환기 시스템은 순차적 진행이 아닌 종합적으로 통합된



그림6_ 친환경 건축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각종 요소기술의 통합화 문제이다. 건물을 구성하는 각종 성능요소는 상호간에 유기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 독립적인 적용방법을 통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위 그림의 예에서와 같이 고전적 태양열 급탕시스템은 기존 건물과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현대의 친환경 건축물은 외피 자체에 각종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부터 건물 외피의 일부로서 통합적 접근방법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상태로 동시에 고려되어 설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각 설계단계에서 수립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도구로 성능 목표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과 주위환경 및 건물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성은 상기의 친환경적 설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합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실제로 건물 기능의 다양성과 에너지 흐름의 복잡성 및 구성 시스템의 상호 영향관계로 인해 비정상 해석을 요구하는 태양열 시스템의 건물적용 설계방법은 일반 건축 실무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냉방, 난방 및 자연채광 등의 요소기술을 분리 독립적으로 해석 평가 적용할 경우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운영상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자연채광, 창호설계, 차양시스템, 에너지절약형 조명, 단열방식, 축열량, 자연형태양열시스템, 이코노마이저 사이클, 효율적 HVAC 설계 및 제어, 태양광발전, 온수급탕 등 냉난방 채광과 관련된 많은 요소기술을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일은 에너지 해석 전문가에 있어서도 손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결과로 제공되는 효과적인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각 건물시스템의 통합설계를 위해 기존의 독립적인 개별 설계인자 위주의 평가수준을 넘어 모든 설계인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서로의 상호영향을 종합 평가할 있는 통합도구들이 개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설계의 기본적 개념과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에너지관련 의사결정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최종건물의 성능 및 설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막대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건물의 미래상과 우리의 역할

산업과 기술의 급진적 발전은 건축분야에 있어도 지난 2세기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풍토주의 위주의 건축활동은 산업혁명이후 20세기초에 태동된 기능주의 건축에 이르러 건물과 외부환경이 독립되고 실내환경의 조절은 저렴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적으로 설비시스템을 통한 인위적 방법에 의존함으로서 에너지의 과다소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이른바 에너지성능이 건축설계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부하 저감기술 및 대체에너지 활용기술의 응용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구하는 80년대의 환경건축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범세계적인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된 녹색건축, 지속가능건축, 생태건축 및 친환경건축의 개념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 개념을 토대로한 건물의 미래상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와 함께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의 창조를 최종목표로 최대한의 환경오염 요소 억제, 천연자원의 절약 및 자연에너지의 활용,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재활용 소재의 응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질 전망이다. 친환경 건축은 21세기의 건강한 지구환경을 위해 모든 건축사들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건물은 앞으로 10년 이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친환경 건축을 당장 실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요소와 이를 실현시킬 주체인 건축사들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건축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은 실무 건축인들이 좀더 적극적 자세로 환경적 사고를 각성하고 이를 적극 건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개념도입 및 정립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분리 독립적인 각 인자별 성능개선의 접근방식을 배제하고 각 친환경적 설계요소의 상호영향을 고려하고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해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함으로서 유기적인 결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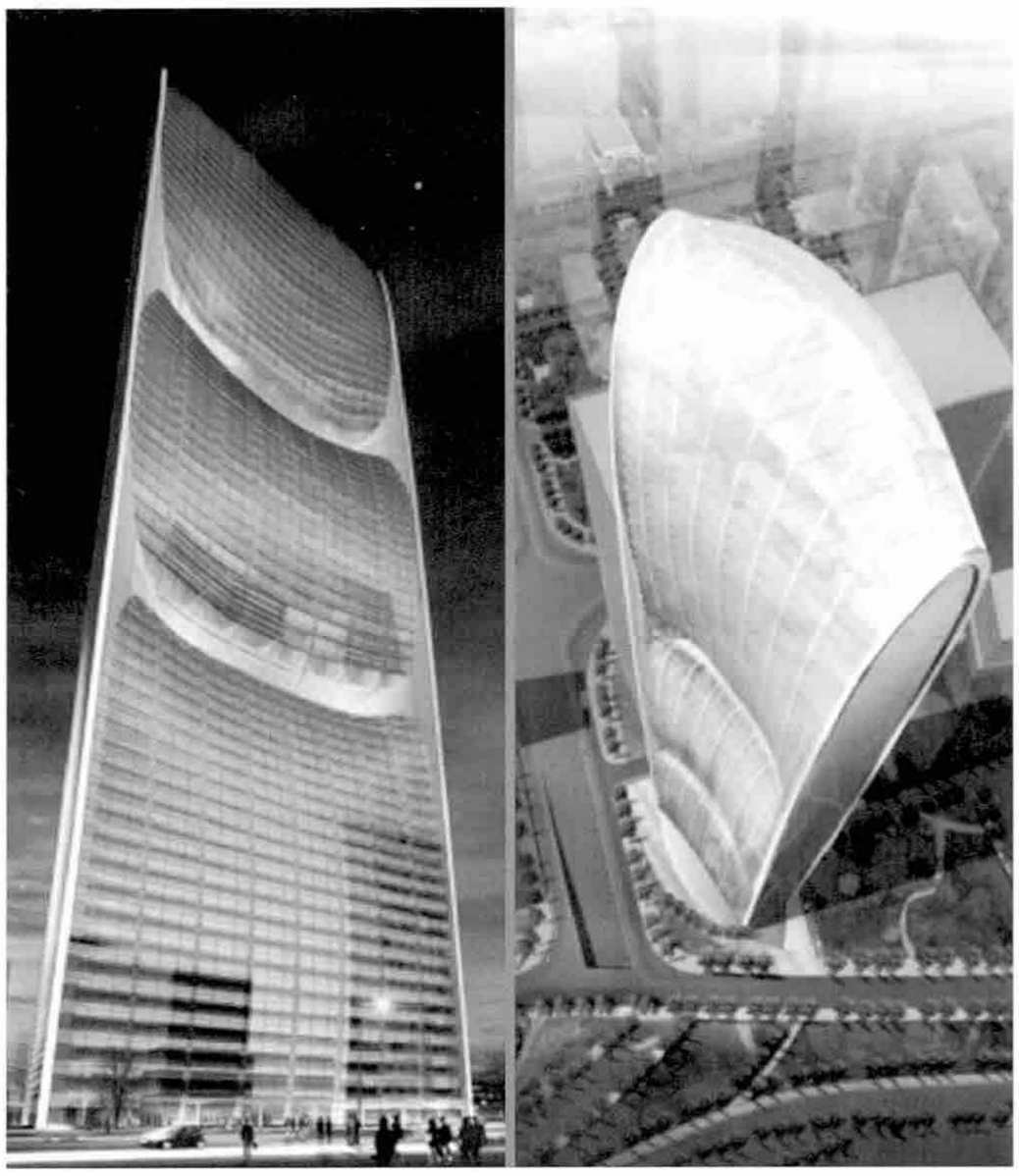


그림7_ SOM에서 설계한 세계 최초의 제로에너지 상업건물, 광동 중국, 2009 / 통합적 접근방법을 친환경 건축의 구현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 및 지구환경 문제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건물이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범세계적인 지구환경 문제의 위기의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해 근시일 내에 상당수의 건축 의뢰인들조차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최종설계단계에 구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계자를 찾게될 것이다. 결국 친환경 건축의 실현을 위한 주체세력은 에너지전문가나, 엔지니어도 아닌 실무 건축사들이며 이들의 사고전환과 설계접근방식의 변환이 세계적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요구된다. 건축활동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며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류생존의 문제이다. 건축분야가 환경파괴 및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건축인의 우선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재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주제

주제 : 'Convergency(융합)'

Situation 1(전개 상황 1)

컨버전스(Convergence)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으로 집합함, 집중성, 통합 등이며 수학용어로는 수렴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컨버전스는 단순한 통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이상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기술적, 문화적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오늘날은 컨버전스의 시대다. 컨버전스는 디지털형 문화와 잘 어울리며 현대 사회의 문화와도 코드가 맞는다. 컨버전스 패러다임은 산업시대의 패러다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산업혁명이 불러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분업이었고 그래서 전문화가 중요했다. 한 우물을 파고, 기술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의 대가가 될 수도 있었다. 분업은 사회발전과 맥을 같이 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를 불러왔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는 한계에 부딪혔다. 건축을 비롯한 과학기술영역도 마찬가지였다. 개별적인 기술과 개별적인 영역의 발전은 지속되어도 기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상승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학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이 협동연구를 해야 하는 환경을 맞고 있다.

분업보다는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고 한 가지 기능보다는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중요한 오늘날, 지금까지 '분야' 라는 용어로 분리되었던 각각의 영역들은 빠르게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고 경계를 없애고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도 일종의 '문화적 컨버전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스와 비슷한 의미인 '퓨전' 혹은 '크로스오버' 는 교차와 융합,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서로 공통점이 없거나 단절된 영역이라 생각했던 분야들이 디지털시대에 들어와 하나가 되고, 새로운 융합과 변종 융합을 거치면서 다양한 틈새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화가 촉발한 컨버전스 트렌드(Convergence Trend)가 서로 다른 분야들 속에서 융합하고 교차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가 기술적 통합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바꾸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유형도 바뀌고 있다. 환경과 인간 유형의 변화는 점차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우리 모두 이런 변화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컨버전스 시대를 리드하는 컨버전스형 신인류가 향후 우리의 미래를 이끌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컨버전스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디지털화가 촉발시킨 컨버전스의 물결에 역행하는 것은 도태와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 컨버전스형 신인류가 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 어떤 분야에서 큰 관심을 모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를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해 전혀 필요 없는 곳까지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컨버전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컨버전스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컨버전스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Situation 2(전개 상황 2)

최근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 등을 놓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이다. 지방의 경쟁자는 더 이상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글로벌 지역' 이 바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 상대이다. 각 지역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국토의 건설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토를 1/n식으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다 같이 잘살자는 취지의 중앙 분배 식 개발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는 자립적 개발 등의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해법 또한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상기 두 가지 상황은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중 일부이다. 특히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존 및 발전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장기간 생활했던 지역(고향 등)이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근무지 등) 등 해당 지역 상황의 파악이 용이하고 본인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Convergency'**라는 열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아이디어의 제안을 기대한다.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왜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이런 측면에서 제안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등 근거를 함께 제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어야 한다.

국토의 개발과 활용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며 어떤 시설을 제안하던 간에 그 내부에는 인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안사항에는 **'주거(Dwelling)' 의 기능을 반드시 포함(주거 +α)**하기로 한다. '주거' 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계획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설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거주' 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시 주거의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3)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 · 육성 · 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목 차

1. 건축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

2.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상형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디자인 정책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 비전형성 전략

필자 : 신재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by Shin, Jae-woog



·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수료
· 도시+건축 인허가 노트(2008.8 예정) 등 3권 실무서 발간
· 현재 행복도시에서 도시경관, 건축문화정책 등을 담당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디자인 정책

Architectural Design policy of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도시와 건축

OECD 26개국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민소득, 생산성 등 각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전환기 도시, 내셔널 스타, 월드스타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1]

상위그룹인 월드스타(런던, 파리, 도쿄, 뮌헨, 밀라노, 뉴욕 등)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초기지로서 국제적인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도시이다. 중위그룹인 내셔널 스타(시카고,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등)는 탄탄한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하고 국제적인 연결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도시이다. 전환기 도시(서울,부산,베를린,몬트리올 등)는 경제구조 조정 도시로 시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성장엔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 및 전략이 없을 경우 쇠퇴될 수 있는 도시이다.

한편, 중국의 주요도시들은 노동인력 전문성 확보나 도시 인프라 정비 및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어 괄목한 성장을 도모중이다. 이러한 세계도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한 경우 경우 우리도시들의 경쟁력은 더욱 후퇴될 우려를 넘어 사실상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적,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활기차며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도시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이미지 고양과 도시매력 증진은 이러한 총체적인 도시개편과 업그레이드를 함축하는 패러다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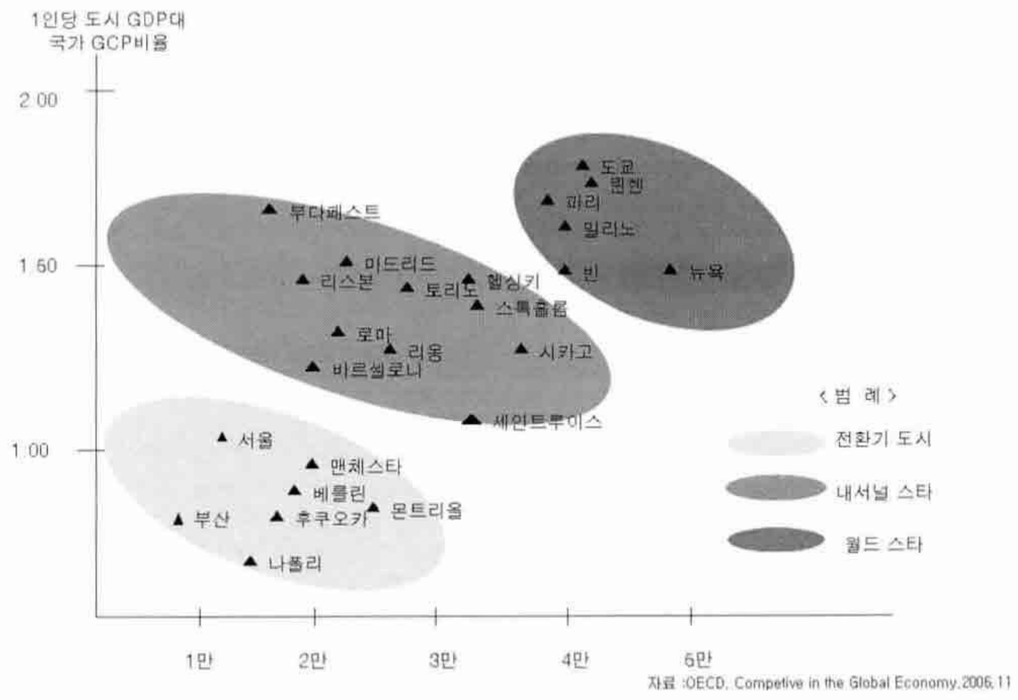


그림 1. 주요도시 경쟁력 평가결과

도시설계 실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공원,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 등은 주제와 시행자가 뚜렷하고 통합조정이 용이한 반면 건축은 3차원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된 종합예술이라는 독특함 때문이다.

외면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시경관계획에 활용하고자 하면 그러한 시행착오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건축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면 다양한 건축디자인의 유형을 추출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절차상의 필요성을 행복도시 실무에 참여하며 느낀다. 그간 행복도시 계획에 참여하며 느낀 21세기 건축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無常), 통합성(無二), 개방성(無碍)이 아닌가 한다.[2]

지속가능성(無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건축에 대한 사조 및 기준 역시 변화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시대를 반영한 장소성 있는 건축,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 등과 같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더욱 요구된다.

행복도시의 건축 디자인정책 또한 자연과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3]

도시통합 이미지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형 도시' 로 설정하였고, 7대 경관과제중 하나인 '건축물 미관기준' 에서는 기준설정 목표를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시이미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 자료 : OECD,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Territorial Review by OECD, 2006.11

2) 경관 폴리틱스, 21세기 새로운 도시경관의 발견(임승빈, 2008) 자료를 편집하여 재구성

3) 행복도시 건축관련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정책프로젝트적인 계획이 추진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계획은 체계적인 경관계획 등에 의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미관기준 등 7대 경관과제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기본계획수립시에 '미래형 주거지 조성방안' ,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관조성방안' , '자원절약형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환시스템 구축방안' 등 12개 전략과제를 시행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은 건축정책 프로젝트로 마련하여 건축디자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정책 관련 프로젝트로는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건축기준 연구」,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건축경연사업」, 「도시상징프로젝트 시행방안」, 「생활권 공모」 등을 시행하였다.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건축기준연구,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등 프로젝트는 연구가 완료되어 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리고 건축경연사업, 도시상징 프로젝트 등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행복도시의 건축물 수준향상과 좋은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를 시행하였다.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등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건축 관련 연구로 시행한 '건축기준 연구'에서는 지구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공생형 친환경 건축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예시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배치에 관한 기준	• 자연 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구분하고 배치
지붕 및 벽체에 관한 기준	• 평지붕의 옥상부를 녹화하여 마당 및 정원으로 활용 • 구릉지와 조화되도록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 완전경사지붕의 형태를 권장하고, 경사도는 10분의 3에서 1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로 설정 • 붕과 벽체의 색채 및 재료는 블록별로 사용가능한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료는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
담장 및 조경에 관한 기준	• 담장 및 울타리는 1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개방적인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목재나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 • 경사지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옹벽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경사를 유도하여 녹화 •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높이 1미터 이하의 석축이나 화계 등을 설치하여 녹화
에너지에 관한 기준	• 경사지붕의 경우 경사면 일부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활용방안을 유도 • 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너지 관련 기준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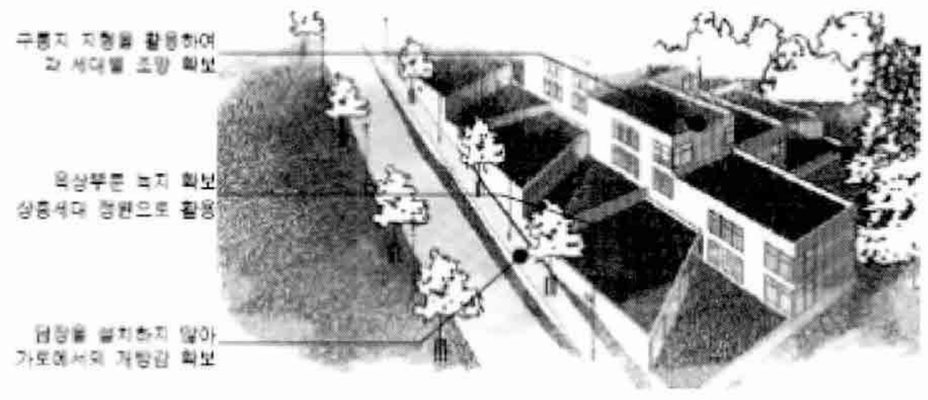


그림 2. 테라스형 주택 기준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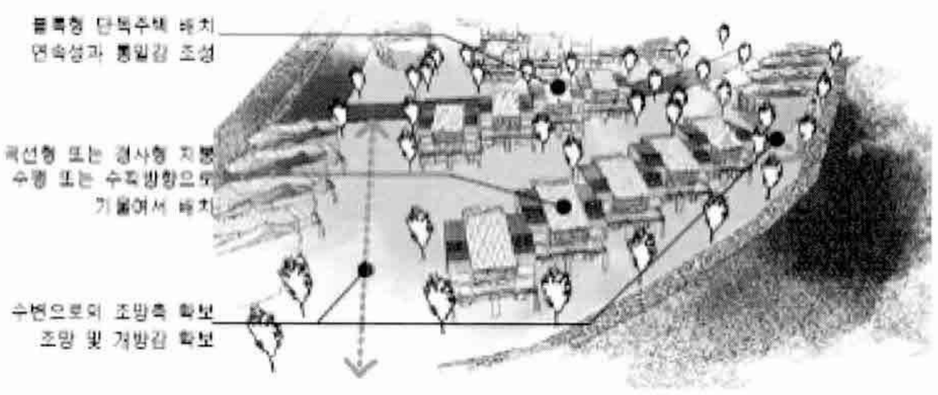


그림 3. 수변형 단독주택 배치(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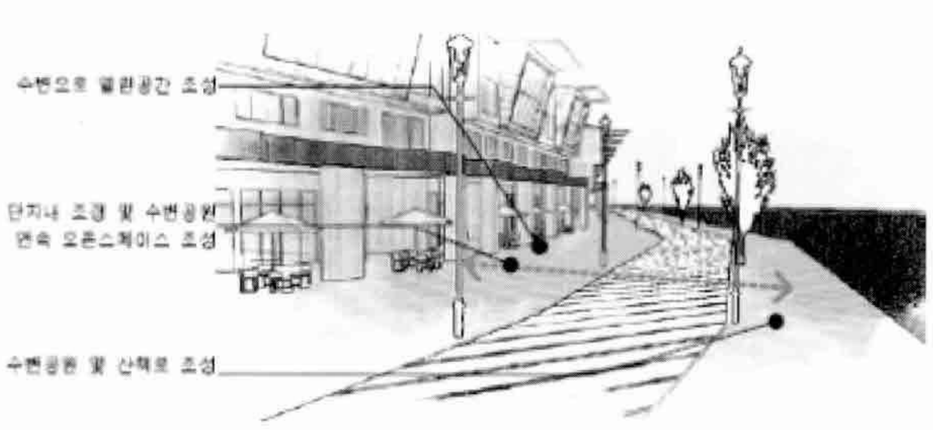


그림 4. 수변형 단독주택(오픈스페이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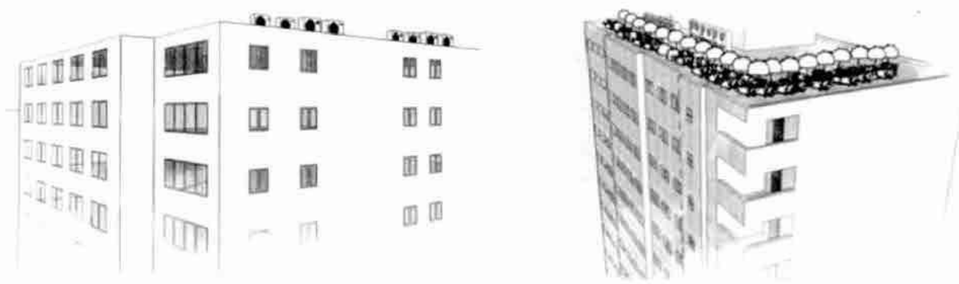


그림 5. 옥상에 실외기 설치시 차폐기준

자연이 살아숨쉬는 '건축물 미관기준'

행복도시 건축물 미관기준은 도시에서 건축되는 개별적인 건축물 하나하나가 행복도시 전체 도시차원에서 상호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목표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형 도시라는 도시이미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건축물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개별 건축요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도시내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의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였다. 미관기준은 건축물 용도별 기준[4]과 부위별 기준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도출한 기준에 관한 예를 살펴보면, 경사지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기준은 배치기준, 지붕 및 벽체기준, 담장 및 조경기준, 에너지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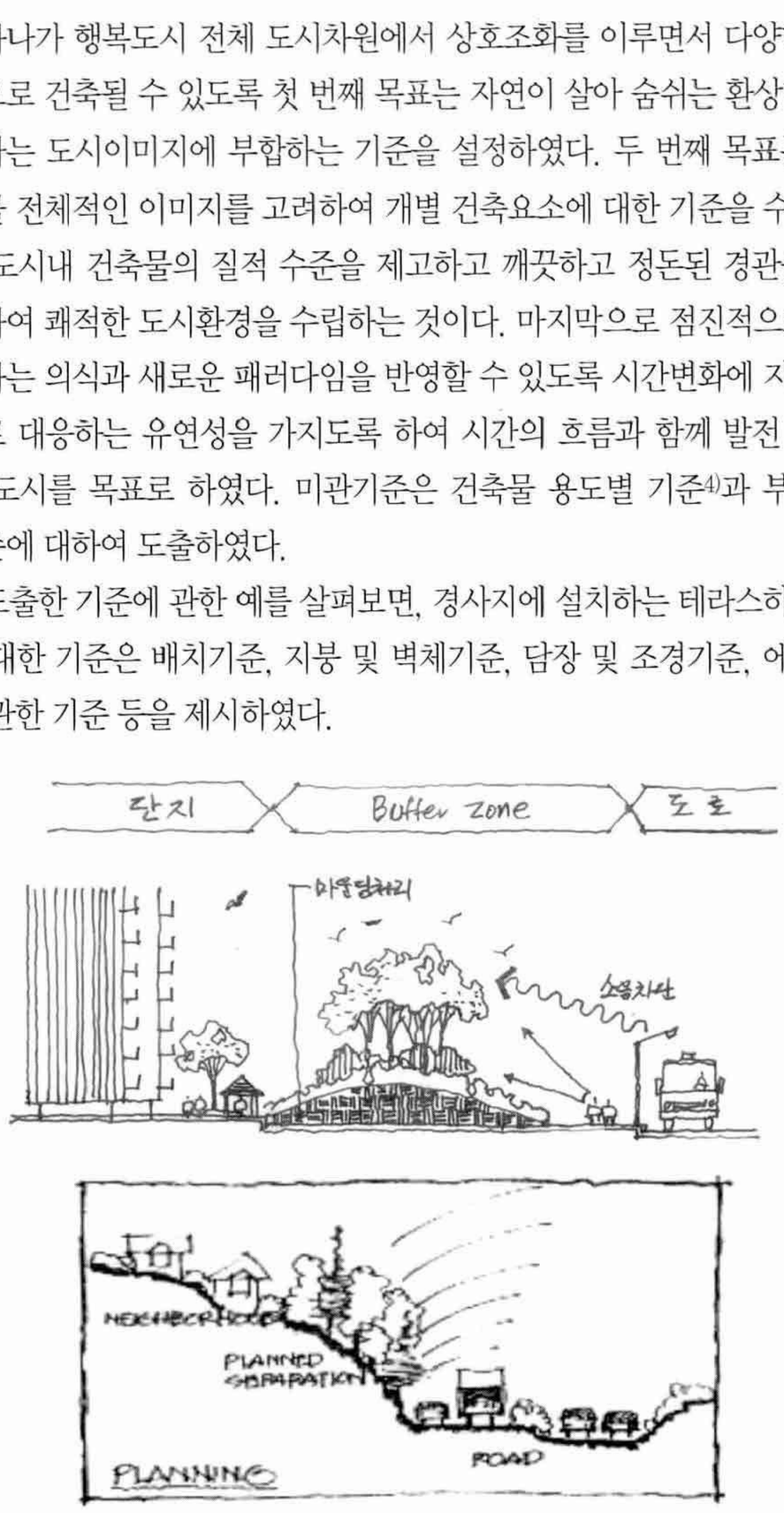


그림 6. 외부소음 차단을 위한 디자인 사례

4) 용도별 : 단독주택(경사지, 공원주변, 수변형) 공동주택(경사지 , 커뮤니티 가로변, 단지형), 상업?업무시설(보행가로 주변, 대중교통축 주변, 기타 간선도로변형),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 행정기관), 기타시설(산업시설, 공급처리시설, 주차시설)

그리고 부위별 기준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옥상에 설치하는 실외기는 옥상 조경과 입면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실외기 및 배관 등을 설치하여 차폐기능에 자연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친환경적인 공간계획 유도를 위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축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좋은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에서도 지표로 설정하였다. 좋은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① 친환경적인 조경 및 내 · 외부공간 ② 디자인 측면이 고려된 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 ③ 디자인이 고려된 좋은 조망을 확보 ④ 디자인이 고려된 건축물에 냉방 혹은 난방 ⑤ 디자인이 고려된 건축물 외부소음의 차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건축기준 연구'

행복도시 건축관련 또 하나의 연구인 건축기준연구에서는 연도형 주택활성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을 고려한 환경공생형 친환경 건축', '살기좋은 인간중심적인 도시에 적합한 건축', '최첨단의 정보통신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축', '한국적인 정서와 세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수준이 높은 건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간의 도시적 상황이 시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건축기준 또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도형 주택활성화 기준을 살펴보자. 기존도시의 공동주택단지의 '길'은 단순한 통로의 의미였다. 그러나 담장으로 둘러쌓인 통로공간으로 전락하여 삭막함 등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아파트 길'에 대하여 다른 장소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활성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연도형 주택의 건축기준으로 근린상업시설의 주택에 대한 악영향 배제, 1층 주택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가로연계성 강화방안, 1개동에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도로소음방지, 보도와 대지내 공지설계 등을 제안하였다.

친환경 · 생태를 고려한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중 친환경 관련 지침의 주요내용은 지역내 물순환시스템을 위한 우수 · 집수 · 저류기법,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신 재생에너지, 건축물의 옥상 · 벽면 · 테라스 등 녹화 등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지의 친환경 기술적기준으로는 생태면적률[5], 식생이행대[6], 옥상녹화시스템, 우수집수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권장을 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단독주택용지는 40% 이상, 아파트단지는 3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용지내 식생이행대의 조성을 위해 단지내 실개천 주변에 최소 폭 3미터 이상의 생태녹지대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한다. 그리고 평지붕의 경우 하중 부담이 적은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친환경 건축의 기술적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 공동주택은 지붕우수 집수시설과 지하주차장 빗물저류조를 통해 우수를 집수하는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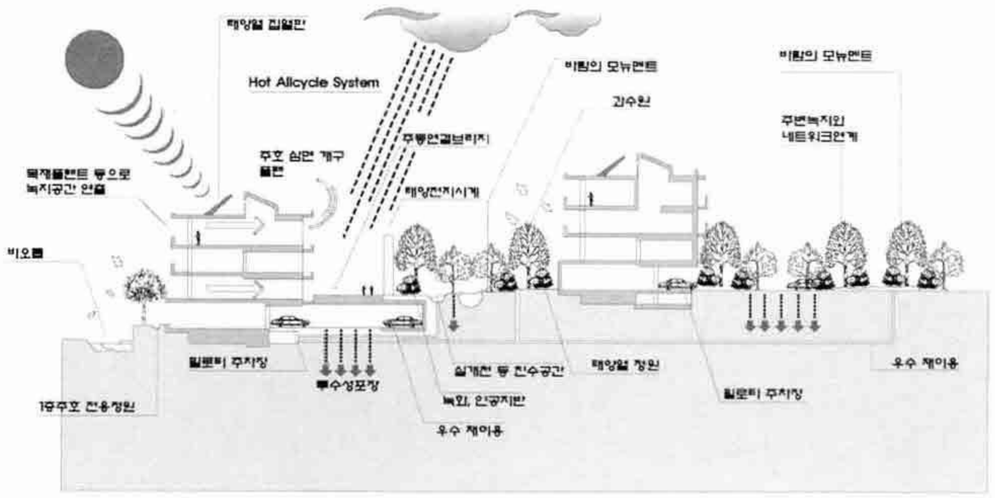


그림7. 태양열 및 우수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방안

통합성(無二)

우리는 이분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자연과 인간, 개인과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과 같이 양극대립적 사고의 바다에 살고 있다. 그간 우리는 건축과 도시에 대하여도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여 왔다. 도시계



그림8. 중앙행정기관 생활권 마스터플랜



그림9. 첫마을 생활권 마스터플랜

5)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면적중에서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백분율
6) 인접하는 생물 군집 간의 이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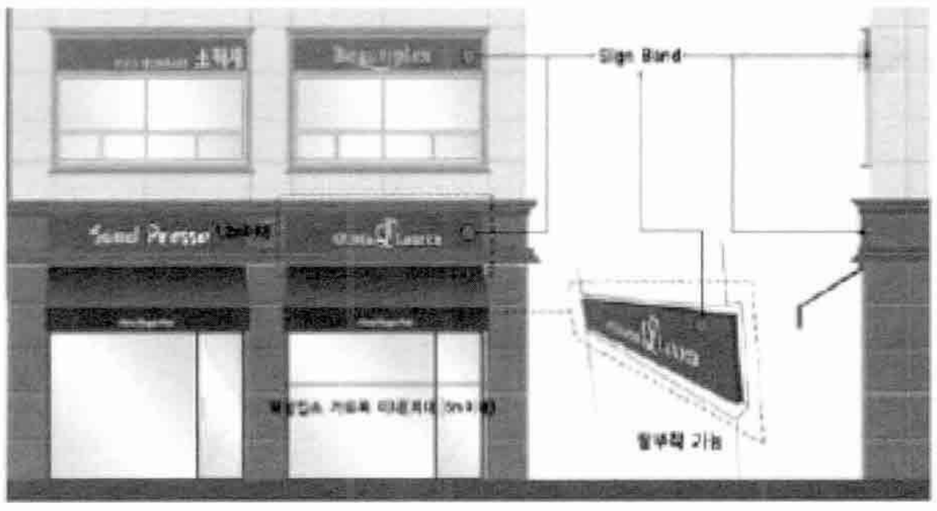


그림10. 탈부착이 가능한 사인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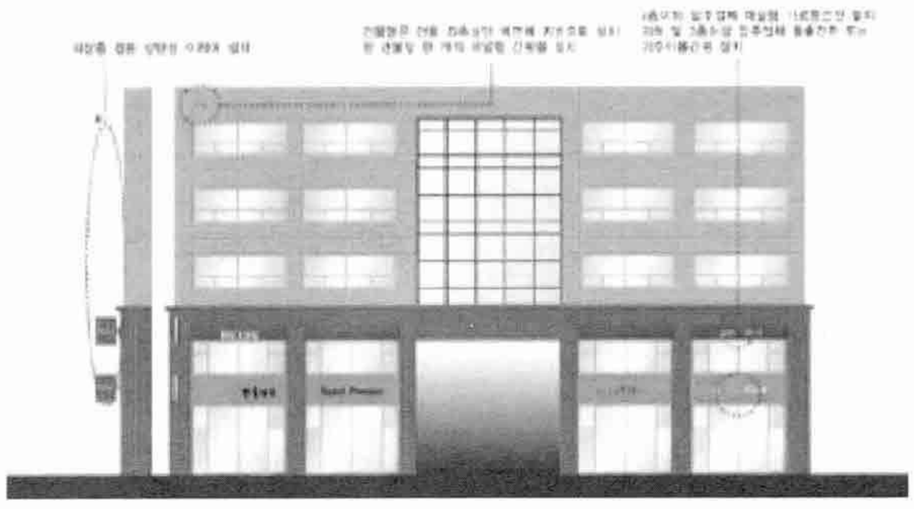


그림11.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예시도

획은 기능주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건축은 주변과 대화할 틈새도 없이 주변보다 돋보이게 경제적으로 건축하였다.

건축과 도시의 통합

그러다 보니 개성있는 건축물을 건축하여도 도시는 특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가 노후화되어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도시와 건축이 통합되어야 한다.

행복도시에서는 첫마을 생활권, 중심행정타운 등 2개 생활권에 대하여 건축과 도시를 통합된 설계를 한 성과가 있었다. 두 개의 작품은 도시와 건축이 융합된 계획을 하였다. 이제까지 도시와 건축은 기반시설이 배치되고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이 마련된 후 건축계획을 추진하는 이분적 방식이였다면 격자형의 직선도로 계획에 익숙한 우리에게 꾸불꾸불하며 변화있는 도로 등이 계획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제까지 건축사는 건축물을 필지별로 충실히 디자인하였다면 앞으로는 도시와 건축이 소통하며 융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위대한 창의력이 도시의 힘으로 구현하고, 도시는 위대한 건축물을 배양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건축과 간판의 통합

비록 일부 생활권에서는 여건상 첫마을이나 중앙행정타운과 같이 통합설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건축사님께 건축설계시 통합설계를 요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간판과 건축설계의 통합이다.

이제까지 우리 건축문화가 간판에 의해 왜곡되어 왔음에도 우리는 간판을 건축주나 간판업자의 일이고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하여 왔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간판위치를 지정하고 색채와 서체를 계획하여야 한다. 로버트 벤츄리는 "간판도 건축의 일부로서 그것은 건축 디자인의 한 요소"라며 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깨웠듯이 우리의 건축문화를 왜곡하는 간판에 대하여 건축설계부터 간판관리단계까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행복도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건축심의 및 허가도서에 간판계획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하였다. 건축사님께서 건축설계시부터 애정을 가지고 간판계획을 하고, 행정청은 건축허가 및 도시관리 단계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우리 건축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행복도시에서는 간판을 중요한 경관과제로 인식하여 7대 경관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업소의 잦은 변경을 고려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Sign Band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개업소에 1개간판 설치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가로형 간판은 2층에만 설치가능하고 3층이상 업소는 최소화 크기[7]의 돌출형 간판을 허용하고 있다. 지하층 업소는 통합된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개방성(無碍)

건축은 프라이버시 등 폐쇄성과 공공재로써 개방성이 함께 요구된다. 건축의 개방성은 폭이 넓다. 인접 건축물과 대화하고 도시와 조화하는 개방성,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불편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개방성, 공지공지 등 다양한다.

인접건축물과 대화를 하는 개방성

이제까지 우리 건축은 심미적, 기능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채워진후의 가로환경은 특성없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도시정책의 부재이니 건축사의 지나친 상업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이제까지 우리 도시는 이렇게 건축에 의하여 채워졌다. 가로를 걷다보면 주변과의 대화가 막힌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도시는 정당한 규칙을 만들어 질서를 조성하고 건축은 질서속에 창의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창의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규칙은 최소한의 획일화된 질서를 추구하고 규칙으로 형상화하지 못한 질서는 건축사가 인접건축물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건축(Barrier Free)

7) 벽면으로부터 1.2m, 높이은 1m이내, 두께는 0.26m 이내로 규정

인간이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런데 건축물은 인간을 이방인을 대하듯이 한다면 실패한 건축이다. 21세기 건축은 인간에게 친근하고 소속감을 주는 개방된 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 구분없이 누구에게는 편리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하여야 한다.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경사로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어느 도시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도시의 미지를 범죄도시로 인식하게 된다. 좋은이미지보다 나쁜이미지는 그 도시이미지를 떨어뜨린다.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될 수 있기 위하여 건축설계서 안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복도시에는 안전한 건축환경계획 기준으로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건축기준(CEPTED)을 지침으로 제정하였다. 자연적 감시활동의 일환인 시야선 확보, 조명사용, 사각지대해소, 지역활력을 강화한 기준과 자연적 접근통제와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수목, 조경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용지의 조경은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고, 창문 전면부에는 눈높이 이하의 관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도로, 보행로 쪽으로의 창문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 등을 피하여 배치하고 도로나 인접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도로와 출입구 사이 준 · 사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담론의 방향

이제는 건축과 도시를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질서라는 규칙을 건축에게 요구하고 있고 건축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릇으로 도시의 색깔을 만든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목표는 화장술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화장술 이전에 도시와 건축은 인간을 위하여 조성된 것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본고에서 인간을 위한 건축담론으로 '건축의 지속가능성(無常)', '통합성(無二)', '개방성(無碍)'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성' 또한 많은 건축사들의 화두가 아닌가 한다. 이 밖에도 많은 건축담론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활발하고 다양한 담론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복도시 건축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아직 국내는 도시디자인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 도시 · 건축 디자인 정착'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부터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핵심요소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담론이 계속되어 똑같은 도시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드러나는 도시가 진정한 지방화가 아닌가 한다.

우리 건축인들은 이러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하여 성과를 돌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후손에게 우리의 위대한 고민이 담긴 문화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연회 안내〉

※ '행복도시 건축문화의 진단 및 발전방향' 초빙강연회

일시		초빙	주제	장소
강연회	6.4(월) 16:00	김대익 교수	통합 이미지 관점에 본 행복도시 건축의 진단	건설청 국제회의장 (참석:건설청,토공)
	6.11(수) 16:00	이희정 교수	행복도시 건축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및 방향	
	6.12(목) 16:00	송복섭 교수	행복도시 건축문화의 발전방향	
	6.13(금) 14:00	한형우 소장	현장 건축사가 기대하는 행복도시의 건축문화	
토론	6.17(화) 13:00	종합 토론회	행복도시 건축문화의 진단 및 발전방향	토공 서울지역본부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4회 이사회

2008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자재추천 · 인증업무규정 개정의 건,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세칙 개정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축자재추천 · 인증업무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상근부회장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함.
  –성 명 : 신인기 상근부회장(연임)
  –임 기 : '08. 5. 16 ~ '10. 5. 15(2년)
· 제6호의안 :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세칙 개정의 건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개정(안)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나머지는 재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제1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세칙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외주제작 및 담당기자 채용에 관한 건, 편집국장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세칙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의 원고료 지급의 탄력적 운영 및 광고 수주의 활성화를 위해 제1조(목적) 등 8개의 조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료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외주제작 및 담당기자 채용에 관한 건
  –외주제작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함.
  –다만, 현재 신문 담당기자가 없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담당기자의 채용은 당장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채용하기로 하되 신문담당 전 직원의 노동위 사건 결과에 대처하기로 함.
· 제3호 : 편집국장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

에 관한 건
–편집국장의 사퇴에 따라 3월 중순부터 편집국장 대행체제로 맡고 있는 백민석 이사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키로 함.

■ (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설립 실무위원회

(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설립 실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6일 서울건축사회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창립발기인대회 준비관련 세부사항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창립발기인대회 준비관련 세부사항의 건
–협의회 창립발기인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 의결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

▲기타사항
· 조세특례법 개정은 창립총회 이후 추진키로 함.

■ 제3회 법제위원회

제3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법제위원회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및 2호 : 2008년도 법제위원회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짝수 달 첫째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주 운영을 1분과, 2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함. 또한 긴급 사항의 발생시 별도의 T/F, W/G을 별도 운영함.
· 제3호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개정안의 일부문구를 수정 · 조정하여 건의하기로 함. 또한 협의된 내용외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법제회의실에 4월21일(월)까지 올리고, 그 내용을 위원장이 검토하여 건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건
·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공포에 관한 건
·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에 관한 건

■ 제5회 여성건축사위원회

제5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세부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세부계획에 관한 건
–2008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함

■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업무별 소위원회 구성의 건, 협회 정관개정에 따른 제규정 정비계획의 건, 시 · 도건축사회 회칙 제정 및 개정의 건, 용역대가기준 보완 요청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위원회 업무별 소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별로 소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
· 제2호 : 협회 정관개정에 따른 제규정 정비계획의 건
– '08년 정관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5개 대상규정 중 우선 「위원회 운영총칙」과 「협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외, 「이사회업무규정」, 「회원인증규정」, 「회원교육규정」은 추후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함.
· 제3호 : 시 · 도건축사회 회칙 제정 및 개정의 건
–정관 및 표준회칙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건축사회 회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다만, 대전, 경기도, 충남건축사회 회칙(안) 중 아래사항을 수정토록 협의함.
▷대전건축사회 : 제33조제1항의2호 중 "가. 나. 사항" 삭제 필요
▷경기도건축사회 : 제4조에 표준회칙 제4조제3항의2호를 추가 필요
▷충남건축사회 : 제27조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 필요
· 제4호 : 용역대가기준 보완 요청에 관한 건
–건축사업무의범위와 대가기준에 물가변동에 의한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 근거를 반영토록 건의함.

▲기타사항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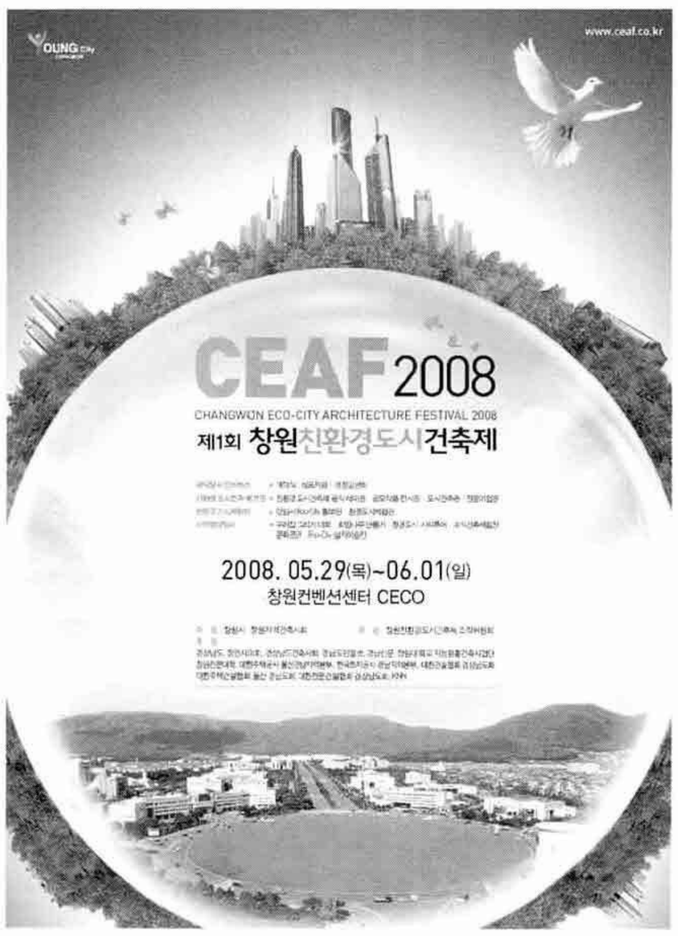
'2008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이 지난 5월 4일 홍익대학교에서 치러졌다.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 4개 과목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간 연속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6,669명이 출원해 이중 4,128명이 응

시하여 6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예비시험의 결과는 엄정한 채점을 거쳐 5월 23일 합격예정자를 발표했다.(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참조)

창원지역건축사회, 2008 창원친환경 도시건축제 개최



우리협회 창원지역건축사회에서는 창원시와 창원의 건축문화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8 창원친환경도시건축제(Changwon Eco-City Architecture Festival 2008)' 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건축을 위한 환경수도 창원의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강화, 세계도시 창원의 친환경 도시건축 발전 기여를 주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 및 창원시청광장, 용지공원 등 시내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행사는 해외유명 건축사의 초청강연회(말레지아 생태건축사:켄냥), 심포지움, 창원 도시건축 학생 아이디어공모전, 창원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친환경 건축물 설계 및 작품전시, 세계 건축관련 사진전 및 아름다운 광고물 전시, 내집 모형만들기, 내가 살고 싶은 집그리기 대회와 국내 최초로 서예와 건축을 접목한 퍼포먼스, 열기구 체험전 등이 개최된다.

■문의 : 창원친환경도시건축제 조직위원회 www.ceaf.co.kr, 055-287-3595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 디자인 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서울 디자인 올림픽' 의 일환으로 '서울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Design is AIR' 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생활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며, 전 세계 디자이너 및 학생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지(地, Environment), 수(水, Communication in Flow), 화(火, Objects in Urban Culture), 풍(風, Experience in Media City Scape)이며, 1차접수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7월 31일에 발표된다.

대상 1팀에게는 미화 5,000달러와 서울디자인투어 및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에 초청되며, 금상, 은상은 분야별로 1팀씩 총 4팀이 선정되며, 각각 미화 2,500달러와 1,500달러 및 행사에 초청되며, 동상(분야없이 총 10팀)과 특별상 약간명, 입선 등으로 선정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혁신적 개념, 사용자의 체험, 기술의 적합성, 미적 우수성, 주제와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국내외 권위 있는 디자인전문가 전문심사위원단이 심사한다.

응모방법은 홈페이지(http://sdo.seoul.go.kr)에서 응모신청서 작성 후 작품 및 작품설명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시되는 아이디어들을 '한강 르네상스', '맑고 푸른 서울' 등의 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02-6361-3434

2008안양시건축문화상 Festival 작품 공모



안양시는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의 관계자와 지역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미래를 이끌 후진 발굴과 안양시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8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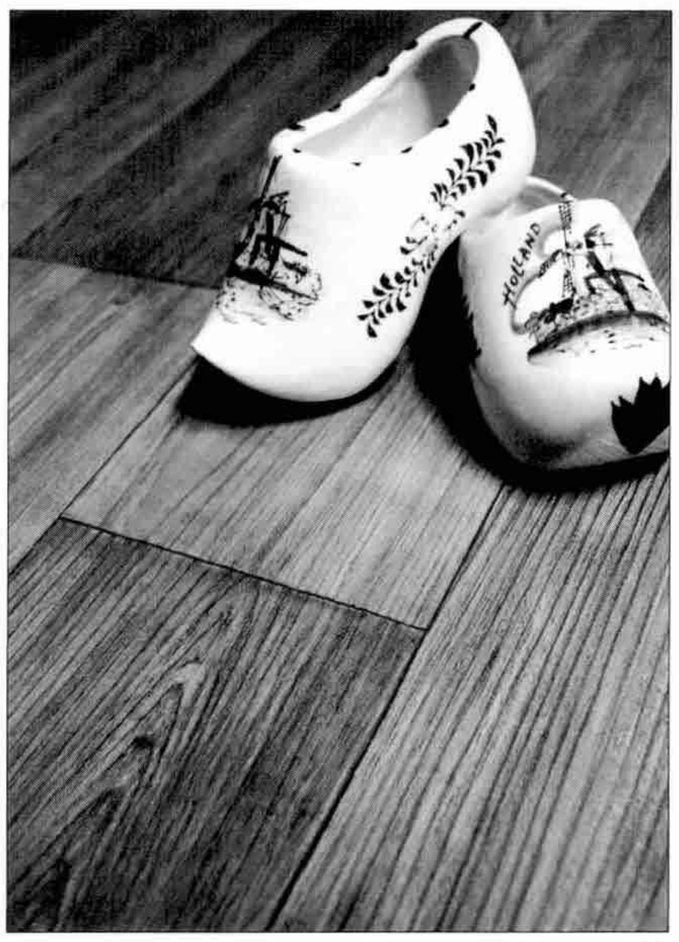
올해로 6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건축물' 과 '계획부문 학생부' 로 나뉘어 개최되며, 아름다운 건축물부문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사이에 사용 승인된 안양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건물, 교량, 육교, 조형시설물 등에 대한 작품설명서와 건축물사진 전경,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부문은 전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도시 · 건축 · 조경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양천 Vistor Center와(구)유유산업부지 박물관 건립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건축설계부

문', 만안재정비촉진계획의 '도시디자인부문' 등 두개 부문에서 응모할 수 있다.

■ 문의 : www.anyang.go.kr, 031-389-2041

KCC, 2008~2009 신제품 PVC 바닥재 '뉴 테마여행' 과 '모닝캄' 출시



모닝캄



뉴 테마여행

KCC(www.kccworld.co.kr)는 2008~2009시즌 PVC 바닥재인 '뉴 테마여행' 과 '모닝캄' 2가지 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두 제품에는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풍부한 미네랄과 우수한 탈취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화산재를 첨가하여 건강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이다.

'뉴 테마여행' 은 2.7mm의 두께에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접목하여 주거공간에 신선함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새로움을 재발견하며, 일반화된 바닥재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난 트랜디한 제품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마루재 및 타일류와 차별화된 패턴으로써 시장에 신선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바닥재 제품의 두께가 1.8 ~ 3.5mm인 반면 '모닝캄(Morning Calm)' 은 4.5mm의 두께감으로 편안한 보행감과 소음감쇄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란 뜻의 제품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에게 아늑함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대우건설 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 대비 24dB의 경량충격음 감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2008 ~ 2009 시즌 신제품의 컨셉은 PVC 바닥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쿠션성 및 유리관리에 용이한 장점을 극대화한 점과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뉴-트랜드 디자인을 접목하였다는 점. 또 마루재 및 경쟁사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 구조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KCC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은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 만큼 이번 신제품에는 과거에는 시도되지 못했던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디자인을 선도해 가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요구와 트랜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등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2008년 건축허가 현황(3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3월)			누계(1~3월)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21,316	19,520	-8.4%	48,807	49,310	1.0%
	연면적	10,657,288	8,076,020	-24.2%	26,074,418	23,921,419	-8.3%
주거용	동 수	7,505	6,867	-8.5%	15,237	15,775	3.5%
	연면적	3,617,298	2,308.361	-36.2%	8,167,106	6,323,117	-22.6%
상업용	동 수	6,515	6,121	-6.0%	16,294	15,415	-5.1%
	연면적	3,333,548	1,986,716	-40.4%	8,341,553	6,601,582	-20.9%
공업용	동 수	2,038	2,047	0.4%	5,647	5,826	3.2%
	연면적	1,410,312	1,729,318	22.6%	3,783,043	4,544,913	20.1%
교육및 사회용	동 수	1,286	1,058	-17.7%	3,164	3,021	-4.5%
	연면적	1,039,374	855,533	-17.7%	2,824,346	3,081,370	9.1%
기 타	동 수	3,972	3,427	-13.7%	8,465	9,273	9.5%
	연면적	1,256,756	1,196,092	-4.8%	2,958,370	3,370,437	13.9%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3월)			누계(1~3월)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21,316	19,520	-8.4%	48.807	49,310	1.0%
	연면적	10,657,288	8,076,020	-24.2%	26,074,418	23,921,419	-8.3%
철 근 철골조	동 수	17,584	16,353	-7.0%	40,852	42,108	3.1%
	연면적	10,349,481	7,812,038	-24.5%	25,368,755	23,306,039	-8.1%
조적조	동 수	2,677	2,241	16.3%	5,726	4,924	-14.0%
	연면적	215,325	190,155	-11.7%	513,869	428,928	-16.5%
목 조	동 수	892	814	-8.7%	1,876	1,973	5.2%
	연면적	72,077	68,062	-5.6%	161,413	166,354	3.1 %
기 타	동 수	163	112	-31.3%	353	305	-13.6%
	연면적	20,405	5,765	71.7%	30,381	20,098	-33.8%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누계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21,316	19,520	-8.4%	48,8.7	49,310	1.0%
	연면적	10,657,288	8,076,020	-24.2%	26,074,418	23,921,419	-8.3%
수도권	동 수	6,583	6,809	3.4%	16,217	17,939	10.6%
	연면적	4,129,428	3,185,279	-22.9%	10,010,311	10,365,302	3.5%
서 울	동 수	1,243	813	-34.6%	2,929	2,490	15.0%
	연면적	1,455,591	585,697	59.8%	2,655,505	2,456,464	7.5%
인 천	동 수	629	575	8.6%	1,462	1,544	5.6%
	연면적	477,669	271,538	43.2%	1,129,051	1,057,423	6.3%
경 기	동 수	4,711	5,421	15.1%	11,826	13,905	17.6%
	연면적	2,196,168	2,328,044	6.0%	6,225,755	6,851,415	10.0%
지 방	동 수	14,733	12,711	-13.7%	32,590	31,371	-3.7%
	연면적	6,527,860	4,890,741	-25.1%	16,064,107	13,556,117	-15.6%
부 산	동 수	409	447	9.3%	1,485	1,273	-14.3%
	연면적	450,395	163,637	-63.7%	1,362,073	939,627	-31.0%
대 구	동 수	575	517	-10.1%	1,512	1,274	-15.7%
	연면적	415,760	145,903	-64.9%	1,389,652	500,929	-64.0%
광 주	동 수	421	351	-16.6%	1,154	815	-29.4%
	연면적	376,858	251,624	-33.2%	829,861	569,657	-31.4%
대 전	동 수	349	335	-4.0%	868	745	-14.2%
	연면적	226,616	283,414	25.1%	516,727	513,886	-0.5%
울 산	동 수	1,613	428	-73.5%	2,443	1,238	-49.3%
	연면적	1,087,713	363,804	-66.6%	1,526,797	987,827	-35.3%
강 원	동 수	1,159	1,004	-13.4%	2,592	2,494	-3.8%
	연면적	349,732	211,837	-39.4%	1,276,978	783,629	-38.6%
충 북	동 수	1,321	1,296	-1.9%	2,724	3,146	15.5%
	연면적	435,740	403,778	-7.3%	1,223,351	1,251,306	2.3%
충 남	동 수	1,576	1,576	-0.9%	3,491	3,557	1.9%
	연면적	723,025	728,610	0.8%	1,604,799	1,756,707	9.5%
전 북	동 수	1,165	1,043	-10.5%	2,359	2,774	17.6%
	연면적	417,192	281,185	-32.6%	921,773	917,284	-0.5%
전 남	동 수	1,413	1,389	-1.7%	3,120	3,751	20.2%
	연면적	460,599	408,245	-11.4%	908,430	943,000	3.8%
경 북	동 수	2,370	2,095	-11.6%	5,147	4,143	-19.5%
	연면적	604,339	533,302	-11.8%	1,619,954	1,400,105	-13.6%
경 남	동 수	2,100	1,834	-12.7%	4,896	5,277	7.8%
	연면적	910,528	987,337	8.4%	2,568,048	2,652,600	3.3%
제 주	동 수	248	39.6	59.7%	799	884	10.6%
	연면적	69,363	128,065	84.6%	315,664	339,560	7.6%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8년 3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71	5,171	128	256	15	47	5,314	5,474	1,605	1,605	283	566	70	210	25	100	34	239	2,017	2,720		7	7,331	8,194	100.0%	100.0%
서울	1,078	1,078	33	66	8	25	1,119	1,169	905	905	176	352	42	126	15	60	20	140	1,158	1,153		6	2,277	2,752	31.3%	33.9%
부산	471	471	18	36	2	6	491	513	89	89	20	40	5	15	1	4	3	22	118	170			609	683	8.5%	7.9%
대구	413	413	25	50	4	13	442	476	62	62	21	42	7	21	0	0	2	10	92	135			534	611	7.5%	7.7%
인천	242	242	2	4	0	0	244	246	53	53	8	16	0	0	0	0	0	0	61	59			305	315	4.0%	3.8%
광주	208	208	1	2	0	0	209	210	37	37	7	14	1	3	3	12	2	15	50	81			259	291	3.6%	3.7%
대전	212	212	14	28	0	0	226	240	32	32	7	14	5	15	0	0	2	19	46	80			272	320	3.5%	3.7%
울산	171	171	7	14	0	0	178	185	19	19	4	8	1	3	0	0	0	0	24	30			202	215	2.7%	2.6%
경기	681	681	2	4	1	3	684	688	222	222	18	36	2	6	2	8	3	17	247	289			931	977	13.0%	12.2%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3	23	2	4	0	0	0	0	1	5	26	32			196	204	2.6%	2.6%
충북	183	183	5	10	0	0	188	193	30	30	4	8	2	6	1	4	1	11	38	59			226	252	2.9%	3.0%
충남	195	195	3	6	0	0	198	201	37	37	5	10	1	3	2	8	0	0	45	58			243	259	3.0%	3.1%
전북	204	204	4	8	0	0	208	212	27	27	1	2	2	6	1	4	0	0	31	39			239	251	3.2%	3.0%
전남	153	153	0	0	0	0	153	153	10	10	1	2	0	0	0	0	0	0	11	12			164	165	2.2%	1.9%
경북	325	325	5	10	0	0	330	335	31	31	3	6	0	0	0	0	0	0	34	37		1	364	372	5.0%	4.6%
경남	363	363	7	14	0	0	370	377	22	22	6	12	1	3	0	0	0	0	29	37			399	414	5.5%	5.0%
제주	104	104	0	0	0	0	104	104	6	6	0	0	1	3	0	0	0	0	7	9			111	113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94	10	8,204	100.0%	23
서울	2,752	3	2,755	33.9%	10
부산	683	1	684	7.9%	9
대구	611	0	611	7.7%	0
인천	315	0	315	3.8%	0
광주	291	0	291	3.7%	0
대전	320	1	321	3.7%	0
울산	215	0	215	2.6%	0
경기	977	2	979	12.2%	2
강원	204	0	204	2.6%	0
충북	252	0	252	3.0%	0
충남	259	3	262	3.1%	0
전북	251	0	251	3.0%	0
전남	165	0	165	1.9%	0
경북	372	0	372	4.6%	1
경남	414	0	414	5.0%	1
제주	113	0	113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474	2,720	93	8,287	
비율	66.06%	32.82%	1.12%	100%	
사무소수	5,314	2,017	-	7,331	
비율	72.49%	27.51%	-	100%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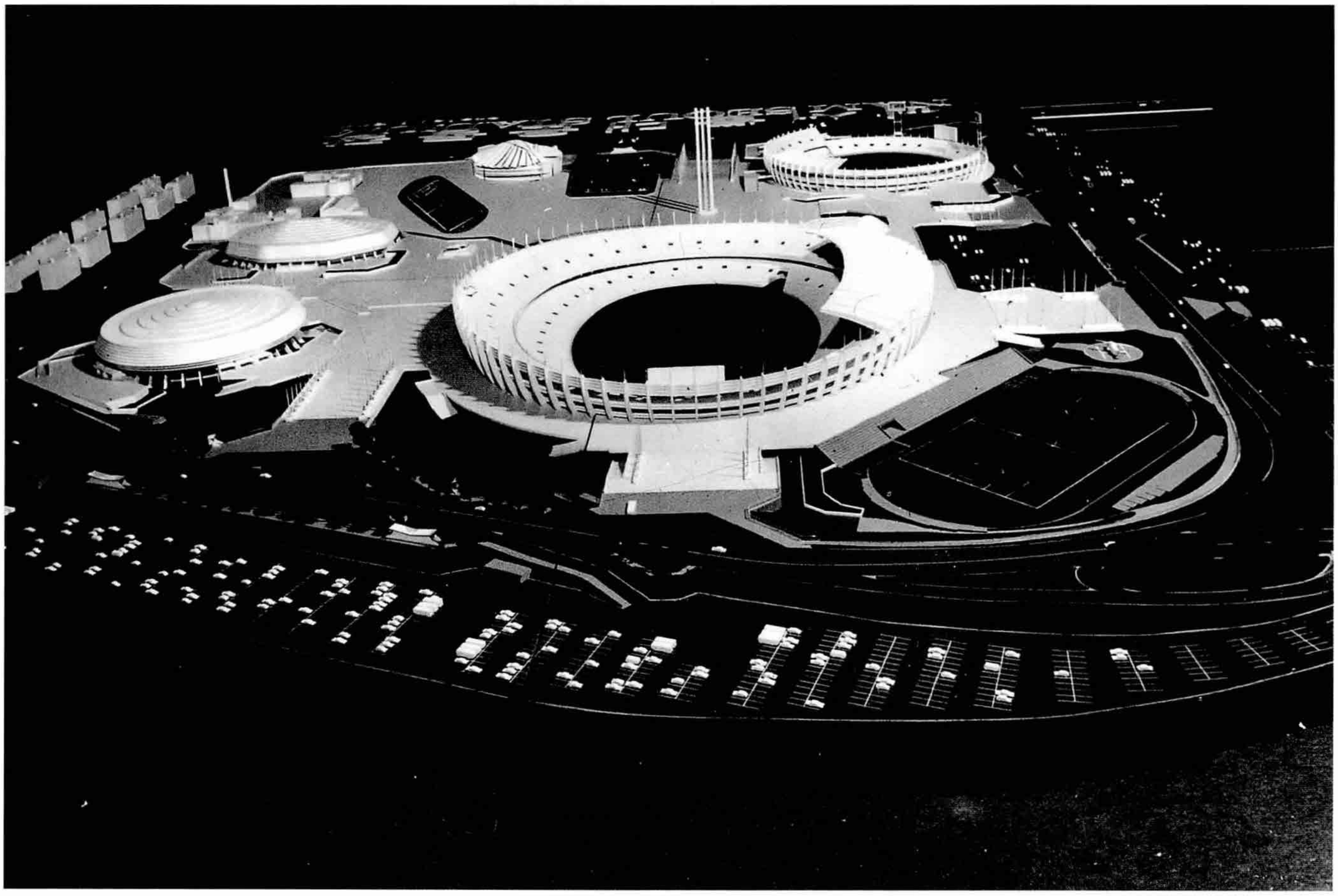
건축모형 제작은 건축계획에서 완공돼가는 과정들을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형제작은 이러한 건축 과정들을 더욱 알기 쉽게 보여 주기 위한 일환의 작업이다.

건축모형을 만드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티로폼(styrofoam)이나 우드락(woodrock)과 같은 재료들이 있으며, 최근 들어 건축모형들은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계계획에서는 검토 과정에서부터 진행상황에 따라 몇 가지 시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형들은 용도에 따라 촬영방법이 다르다.

현상설계에 응모하기 위한 모형인가 또는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설명용으로 제출되는 것인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진도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 촬영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형촬영 방법은 투시적인 아이레벨에서의 촬영방법이나 조감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터디 모형의 재료들은 대부분 스치로폼과 같은 색깔이 대부분이



잠실 주경기장 모형사진 / 1975

어서 모형배경은 검정색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 모형재료가 아크릴이나 검은색종류의 재료들이라면 밝은 색의 배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형을 흑백사진으로 표현 할 때에는 주변의 밝기를 떨어뜨리는 라이팅 기법이나 인화시에 닷징(dodging) 기법 혹은 포토샵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면 주제인 모형이 강조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실내에서 모형 촬영시 준비물

- 배경지 – 모형의 색깔에 따라 검정색 혹은 흰색이나 하늘색 종류의 반사가 나지 않는 무광종류의 천이나 종이 우드락판 선택
- 조 명 – 사용하는 필름(칼라, 흑백)의 종류에 따라 블루램프 혹은 화이트램프 선택(300왓트~500왓트)에서 태양의 효과를 생각한다.
- 반사판 – 백색 우드락판을 사용하면 어두운 디테일 부분을 살려주는 효과를 만들어 준다.
- 트레팔지(tracing paper) – 실내모형 촬영 시 빛을 부드럽고 확산시켜 주는 효과를 만든다.
- 삼각대 –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 노출계 – 정확한 타임의 수치와 조리개를 계산해 준다.
- 케이블 릴리즈 – 흔들림을 방지해 준다.

실내에서의 촬영요령

모형들은 스터디 모형의 단계에서 완성된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모형이 있다.

단독건물과 같은 단일 모형에서부터 대단위 단지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형전체가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점심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건축모형들은 움직이지 않는 정물들이므로 조리개를 우선적으로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경우는 단일 건축모형 촬영보다는 단지모형 촬영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됨으로 세심하게 이 방법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은 태양의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순광보다는 측면광이나 역광을 잘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준다.

아울러 모형의 표현방법에서 스터디과정에서 보여주는 우드락이나 스티로폼과 같은 흰색종류들의 모형들은 가급적 흑백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완성된 모형들은 칼라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의 촬영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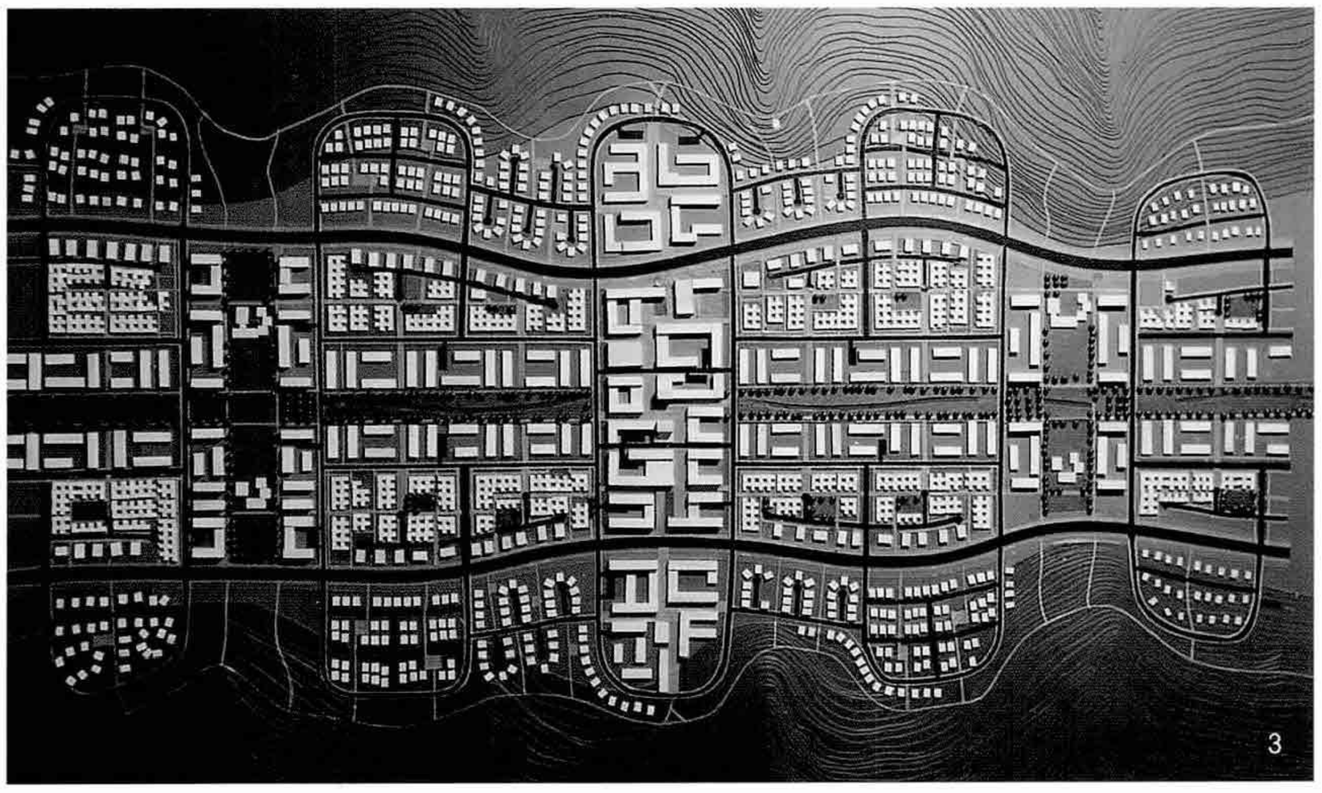
빛이 좋은 야외에서의 촬영은 실내에서 촬영할 때의 준비물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의 빛을 잘 이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



1



2



3

1. 레저단지 모형사진 / 2007
2. 강원 랜드 모형사진 / 2005
3. 행정수도 도시계획 모형사진 / 1978

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파란 하늘의 자연배경은 실제의 자연 모습으로 촬영하게 됨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형 촬영에서는 건축모형을 안정되게 놓여 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설계대를 잘 이용하면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촬영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은 촬영하는 장소가 가급적 옥상이나 널따란 평지에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특히 뒤 부에서 나타나는 건물이나 나무 등 불필요한 물체들이 모형사진에 같이 촬영되어 나타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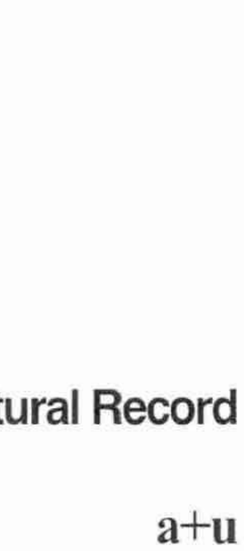
야외촬영은 자연의 태양 빛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됨으로 실내에서의 모형 촬영보다는 더욱 쉽게 촬영이 가능하여 타임이나 조리개의 수치를 일반 촬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촬영할 수 있음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이 촬영방법에서 단일 건물과 같은 모형촬영은 측면 광으로 촬영해 주는 것이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단위 단지 모형과 같은 모형들은 역광이나 반 역광으로 빛의 흐름을 이용하여 더욱 입체감 있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Architectural Record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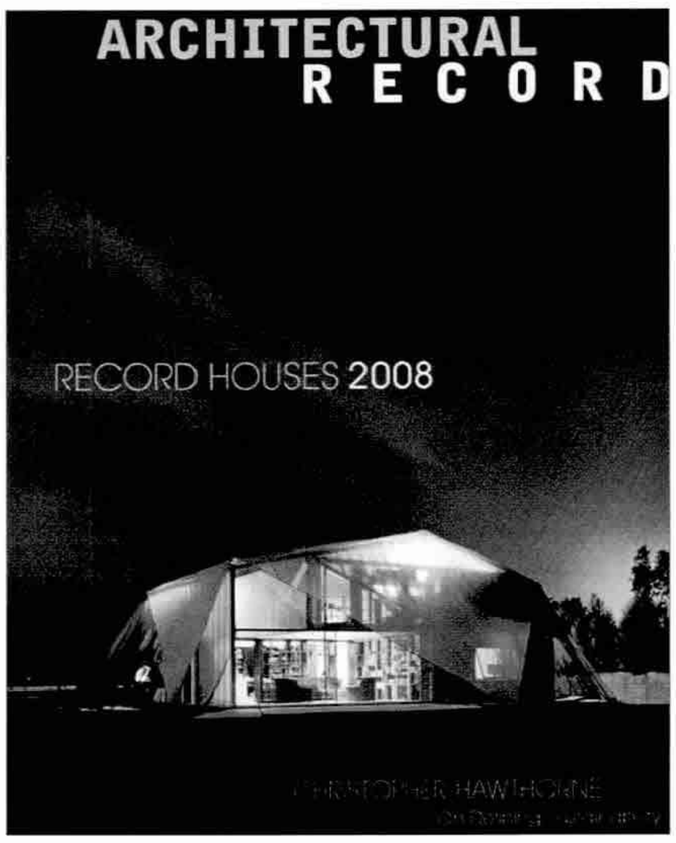
新建築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Architectural Record



2008년 5월호의 프로젝트 섹션에서는 'Record House 2008' 이라는 제목으로 Record가 선정한 주택에 대한 에세이가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에는 객원 편집자인 Christopher Hawthorne이 환경친화적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그의 견해를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여 그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선정하였으며 Sean Godsel의 Glenbrun House, Atelier Bow-Wow의 Nora House, Drisko Studio Architects의 Maltman Bungalows, Darren Petrucci의 VH R-10 Ghouse 등 9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다. 건축기술 섹션에서는 대나무, 코르크, 울, 짚과 같이 10년 미만의 재생산 기간이 짧은 대체 자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Building With Light in the Pacific Northwest: The Houses of Thomas L. Bosworth, by Erika Rosefield: Art Publishers, Inc., 2007

Thomas Bosworth의 주택은 시선을 끌지 않는다. 그가 설계한 주택은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디테일 면에서는 모던하지만 그 본질은 고전적이다. Bosworth의 조상은 미국 대륙에 300년 전부터 살았고 그는 1930년에 태어났다. 전통적 학자 집안의 아들로써 Bosworth는 그리스 부흥양식의 집에서 살았고 건축교육은 Oberlin 대학에서 받았으며 Yale에서 M.Arch를 받았다. Bosworth의 태평양 북서쪽 건축은 1980년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책은 그가 1980년과 2004년 사이에 지은 60개의 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Bosworth를 태평양 북서쪽의 팔라디오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의 내부공간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이고 균형이 잡힌 안정정인 디자인' 이라 표현하고 있다. Bosworth는 실내를 모두 흰색으로 칠하고 있으며 그 까닭은 사람의 안락함과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는 구조와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Julia Morgan: Architect of Beauty, by Mark A.Wilson: Gibbs Smith Publisher, 2007

비평가 Allan Temko가 1959년에 Julia Morgan가 설계한 750개의 건물에 열렬한 찬사를 보냈을 때 그녀는 절충주의적인 건축사로 희미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미국 건축에서 그녀가 눈에 띈다. Wilson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Morgan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가 스스로 그녀의 건물들을 탐험하게끔 만든다. 미국 건축에 있어 Morgan의 위치는 미국 문학에 있어서 Emily Dickinson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Dickinson이 교회의 찬송가를 시적인 퍼즐로 뒤엎어 버렸듯이 Morgan도 고딕 성당의 아치를 붉은 미국 삼나무 스팬으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의 가장 기억에 남는 광대한 구조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기쁨에 대한 칭찬할 만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Venice, CA: Art + Architecture in a Maverick Community, by Michael Webb: Abrams, 2007

Michael Webb이 해변가의 주택이나 남

부 캘리포니아의 생활에 대한 책들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내 건축에 대한 조사는 이 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Ed Ruscha와 Billy Al Bengston과 같은 촉망받는 아티스트들의 간략한 소개를 책의 앞과 뒤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은 절망에서 빠져나온 매력적인 현대적 감각의 주택을 다루고 있는 중간부분인데 제목과 부제목에 맞추어 간단한 글과 매력적인 사진들을 담아 놓았다.

■ Project

이번 프로젝트 섹션에서는 2008년 레코드가 선정한 주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하에 혁신적인 디자인적 해결방법을 사용한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특히 환경적 효용성과 건축적 우수성, 창조성을 추구하는 주거디자인 그룹을 찾아 소개하였다. 객원 편집자인 Christopher Hawthorne은 LEED(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ng: 미국의 민간 전문가단체인 그린 빌딩 위원회가 1998년 제정한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실내환경 수준 등 6개 분야별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가 매기는 등급이나 근래 발표된 Michael Specter의 에세이 「The New Yaoker」에서 이야기하는 'Food mile(바나나나 토마토가 해당 지역 식품점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 의 환경적 척도는 환경의 개념을 매우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Brandon Koerner의 온라인 뉴스 Slate.com에서 조사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우리들의 환경전략이 나아갈 바를 알리고 있다. 즉, 온라인 뉴스를 보는 것과 프린트된 신문을 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이냐는 것을 알아 본 바 온라인 뉴스를 보기 위해 컴퓨터와 모니터를 켜는데 드는 에너지나 신문 인쇄소와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럭이 달리는 데 쓰이는 탄소 소모량은 거의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그린 전략(Green strategy)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추구하는 최선책은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건축적인 것이든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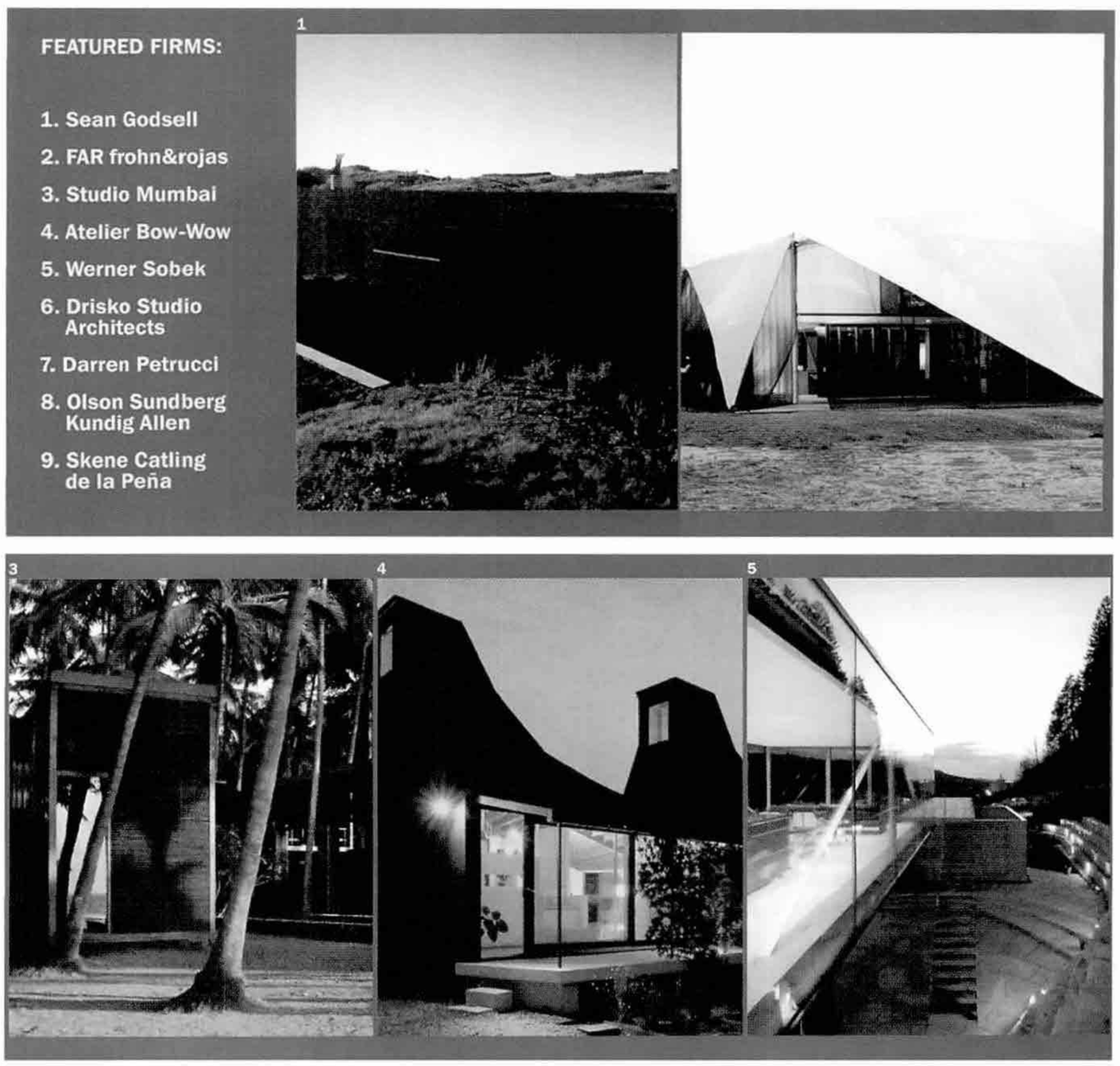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정신에 중심을 두고 선정되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다양한 방법을 건축적 뿐 아니라 생태적 장점을 갖춘 아담한 규모, 기술력이 뒷받침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 유기적 건축과 아트 앤 크래프트에 있어서의 근원, 보존과 사회라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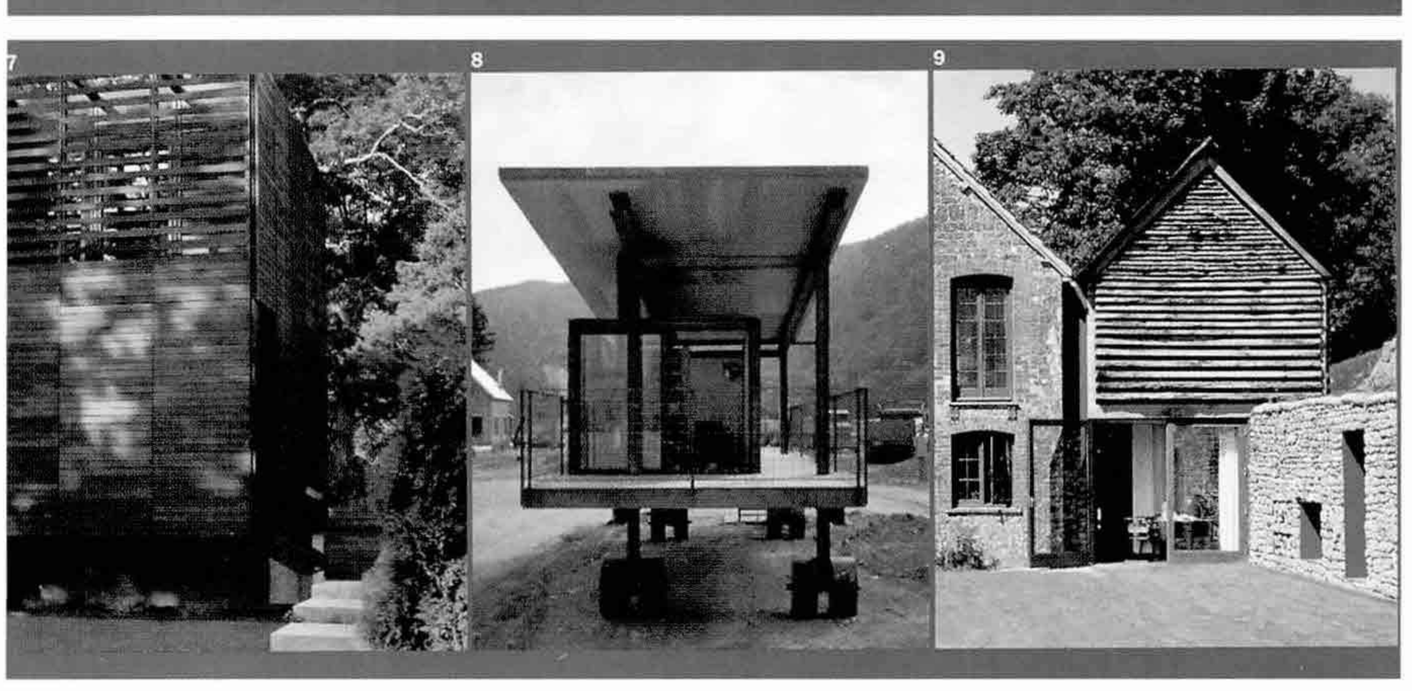
Glenburn House, Australia / Sean Godsell

건축사 Sean Godsell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원에 Glenburn House을 지어 주거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프로토타입을 완성시킨다.

80%의 오스트레일리아 인이 바다로부터 80마일 이내에 살고 있으며 또 그 50%는 해변으로부터 8마일이 채 못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사 Sean Godsell은 사각형의 형태를 주택의 형태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주거의 프로토타입을 바닷가에 실현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Melborune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90분 가량 걸리는 곳이 위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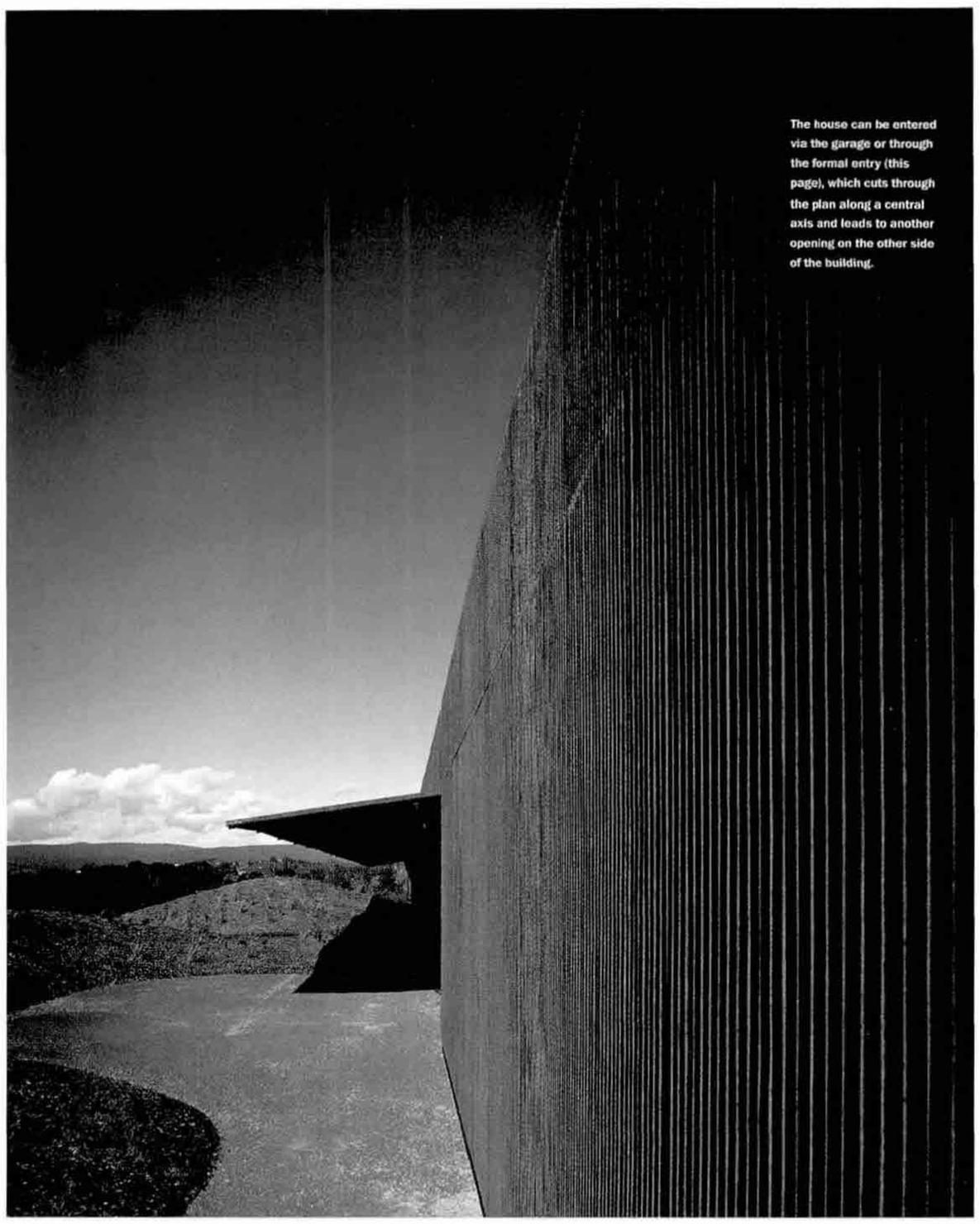
Glenburn에 지어진 이 주택은 주택과 물 사이의 관계가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스 형태는 파도에 의해 나뉘어진 듯한 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주택의 북동향으로 긴 형태는 이 섬 형태의 대륙의 메마른 듯한 실내공간, 특히 거실과 게스트룸에 동쪽 해변과 산에 의한 절경을 제공한다.

이 집의 출입은 머드룸(흙 묻은 옷 · 신발 등을 두는 곳)을 거쳐 차고를 통하거나 이 박스의 중간에 나 있는 현관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와 뜨거운 물의 수집장치와 더불어 이 주택의 환경친화적인 속성은 따스한 바람을 비껴지나가게 하는 흙으로 된 작은 언덕과 수동으로 움직이는 그릴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한다.

현관의 홀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거실과 주방은 북동쪽의 풍경과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은 태양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흙으로 둑이 만들어 졌다. 이 둑은 내부공간에서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름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공간 내부의 프로그램도 간단하다.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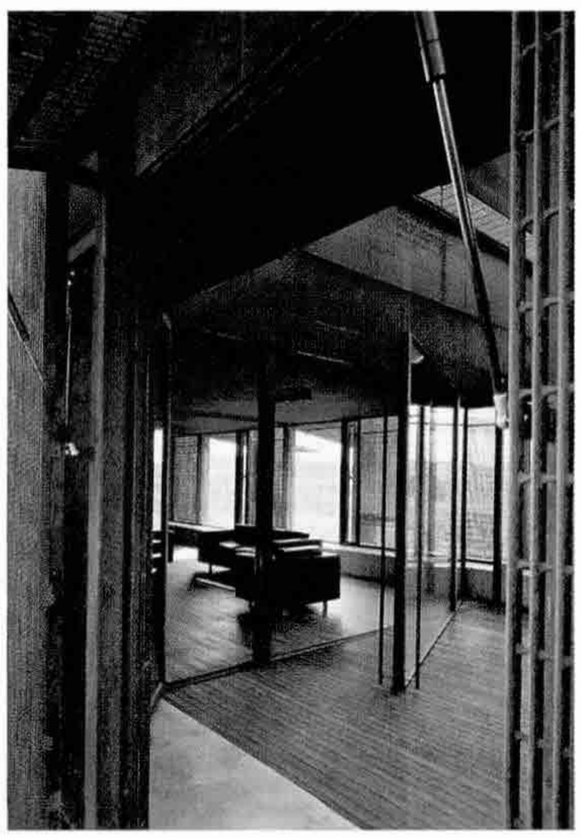
The house can be entered via the garage or through the formal entry (this page), which cuts through the plan along a central axis and leads to another o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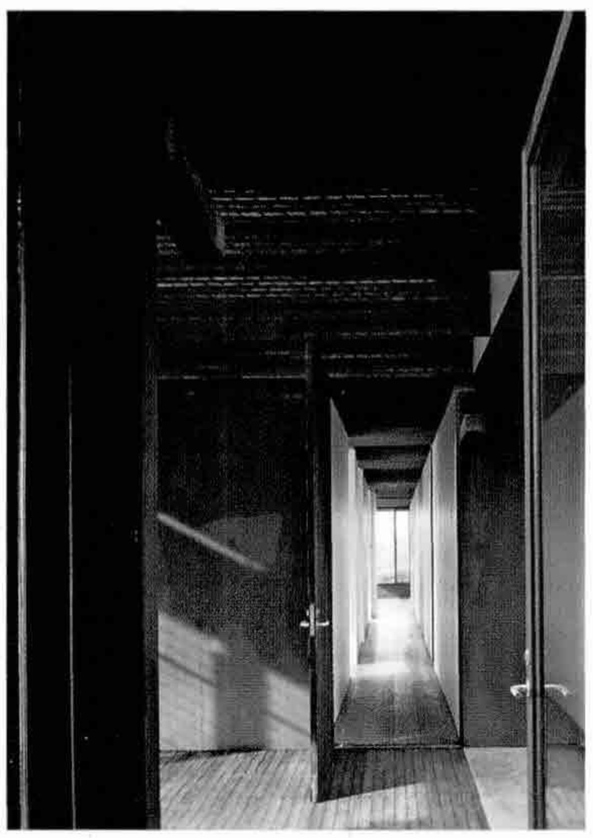






The living and dining space faces the landscape on its northern side. The southern side is partially banked in the earth to shield it from the sun.





주방, 침실과 욕실공간이 사각형의 평면에 나뉘어져 있으며 또한 뛰어난 실내디자인을 자랑한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의 스킨이다: 외부공간과의 차단과 시야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사용된 골격형태의 그릴과 주방, 세탁실, 창고, 현관과 게스트룸, 욕실공간을 가리기 위한 패널이 그것이다.

그릴 형태의 건물의 외부 스킨에 의해 리셉션과 거실공간의 북쪽면이, 그리고 흰색으로 도장된 나무 패널에 의해 남쪽면이 디자인되어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거실 공간의 패널은 주방공간, 창고, 세탁실, 그리고 현관을 주침실과 게스트룸, 그리고 욕실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 이 주택의 내부공간은 차폐되고 개방된 공간과 마찬가지로 내외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

클라이언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원했다. 공간 내부의 수동적인 냉각 시스템과 빗물 수집장치를 비롯하여 조경설계에 있어 물의 사용을 최소화한 가뭄대비용 시스템을 갖추었다. 건물의 북서쪽에 있는 흙으로 만든 언덕은 건물과 여름의 더운 바람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냉각효과를 가져오도록 계획하였다.

Nora House, Japan / Atelier Bow-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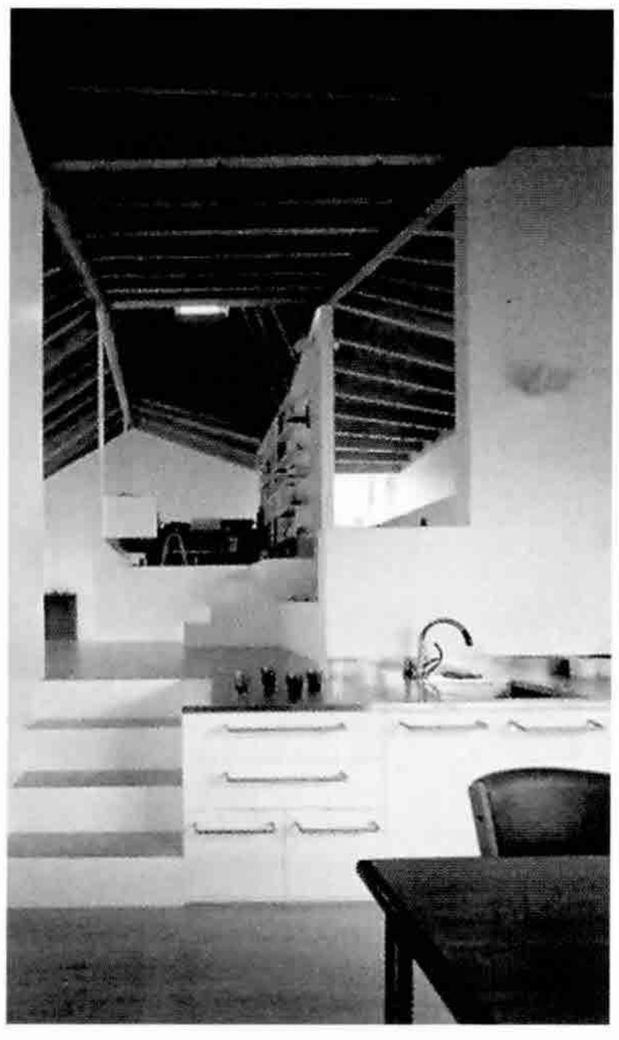
Atelier Bow-wow는 Nora House를 통해 센다이 교외에 전통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주거생활에 아주 신선한 방법을 되살아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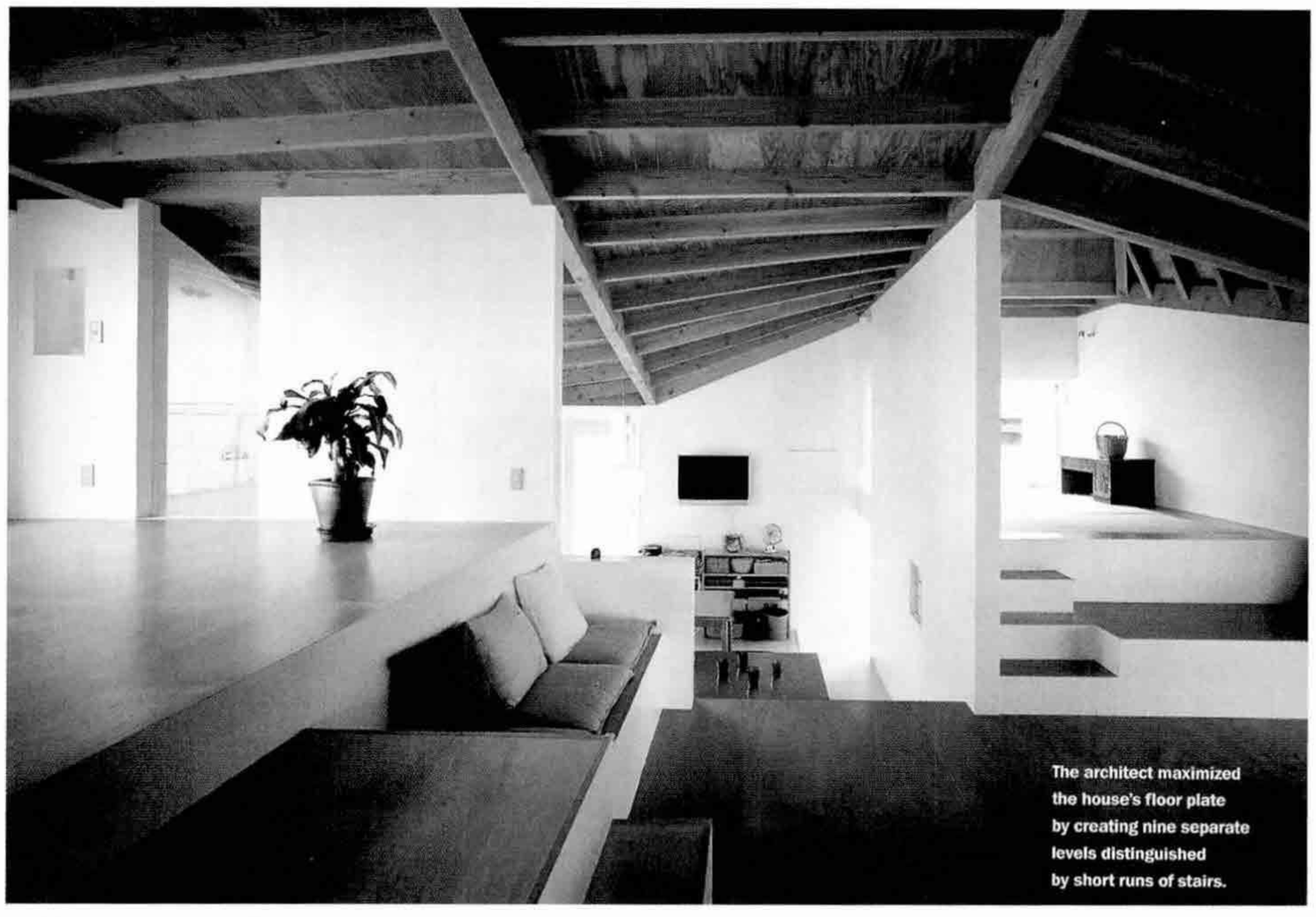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일본은 현재 건축계에서 폭풍같은 이슈인 환경친화적 경향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못한 듯 보일이지 모른다. 그러나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수 세기 동안에 걸친 주거건축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자연환기나 일조는 일본 도시나 교외의 주거건축에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Atelier Bow-wow의 Yoshiharu Tsukamoto가 전통적인 건축에 대한 노하우를 아주 노련하게 이 주택에 변형시켜 적용하였다.

이 센다이 지역은 일본의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두 수도 도쿄 근처로 이사를 가 현재 인구가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Tsukamoto의 클라이언트는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가족소유의 경작지 위에 집을 짓기로 하였다. 이 주택은 지붕이 있는 현관이라든지 흐르는듯한 실내공간, 목재 구조, 특히 전체 건물을 보호하듯이 놓여있는 거대한 지붕 등 일본의 전통적 주택이 가진 특징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Nora House는 전통적인 전원풍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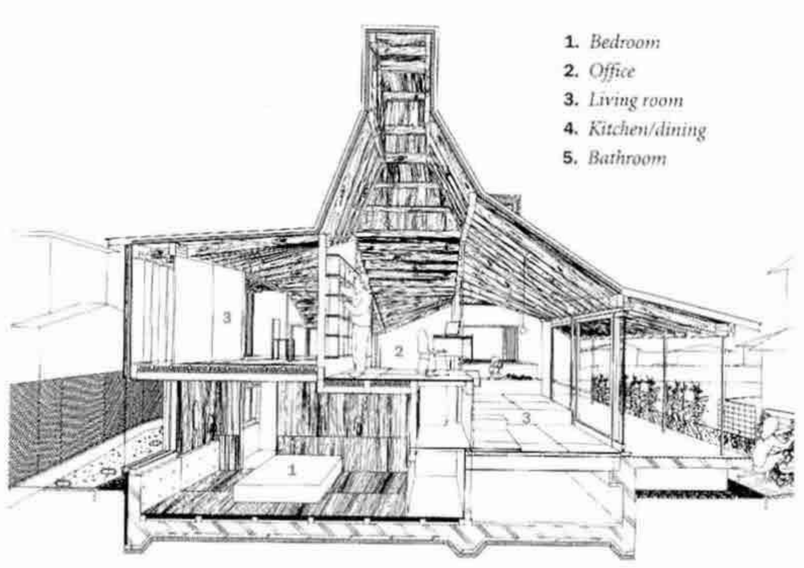
• Nora House





The architect maximized the house's floor plate by creating nine separate levels distinguished by short runs of stairs.





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광활한 경작지에 면해 있다.

비례적으로는 현대적인 감각이지만 단층 구조, 헛간같은 건물처럼 보인다. 이 주택의 평범하지 않은 지붕선이 과감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상상하게 한다.

건축사는 이 공간을 수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한다. 건축사는 짧은 계단에 의해 아홉 개로 각각 분리된 레벨을 만들어 냄으로써 주택의 바닥면을 최소화 했다. 가장 낮은 곳인 창고공간과 가장 높은 레벨인 딸의 놀이공간까지 건축주의 벽에 의해 막힌 공간이 아닌 연속되는 실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짧은 계단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세 개의 프리스탠딩 파티션이 있어 공간을 나누어 주거나 합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계단은 파사드를 만드는 지붕있는 포치로 연결해 준다. 천장 높이의 슬라이딩 유리창 덕분에 포치는 로비를 향해 쉽게 열린다. 이 로비는 주택의 가운데에 위치한 모던한 거실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한다. 이 곳으로부터 계단은 놀이공간 공부방, 또 아래 층에 있는 주방공간에서부터 욕실공간까지 여러 방향으로 동선을 연결시켜 준다.

이 계단은 또한 사무공간으로부터 부엌을 거쳐 침실로 유도한다. 이 곳의 침실은 일부 반지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 주택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다.

남쪽에는 전통적인 툇마루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서쪽면에 있는 포치는 가족들의 거실 공간을 확장시켜 주고 오픈된 실내로 빛이 들어오게 해 준다.

Tsukamoto의 이 새로운 주택은 젊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가족은 일본 교외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사의 자연의 힘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직관적인 작업 전략인 것이다.

VH R-10 gHouse, Massachusetts / Darren Petrucci Architect

Darren Petrucci는 Martha의 포도밭 위에 휴가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 아우스인 VH R-10 GHouse를 고쳐 지었다.

건축에 필요한 공간보다 대지가 제한적일 경우 이러한 상황은 건축적의 창조적 발명에 있어 그 모태가 된다. 건축사 Darren Petrucci에 의해 Martha의 포도밭에 거친 겨울을 이겨내고 지어진 VH R-10 gHouse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구역인 R-10의 지역적인 제한에 의해 심도있게 고려된 형태로 지어졌다.

Petrucci와 그의 부인 Renata Hejduk은 이 포도밭을 방문객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건축사와 그의 부인이 만들어 낸 간결하고 검소한 VH R-10 gHouse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득하다. 그림, 사진 그리고 건축사 고 John Hejduk의 테이블이 창문을 통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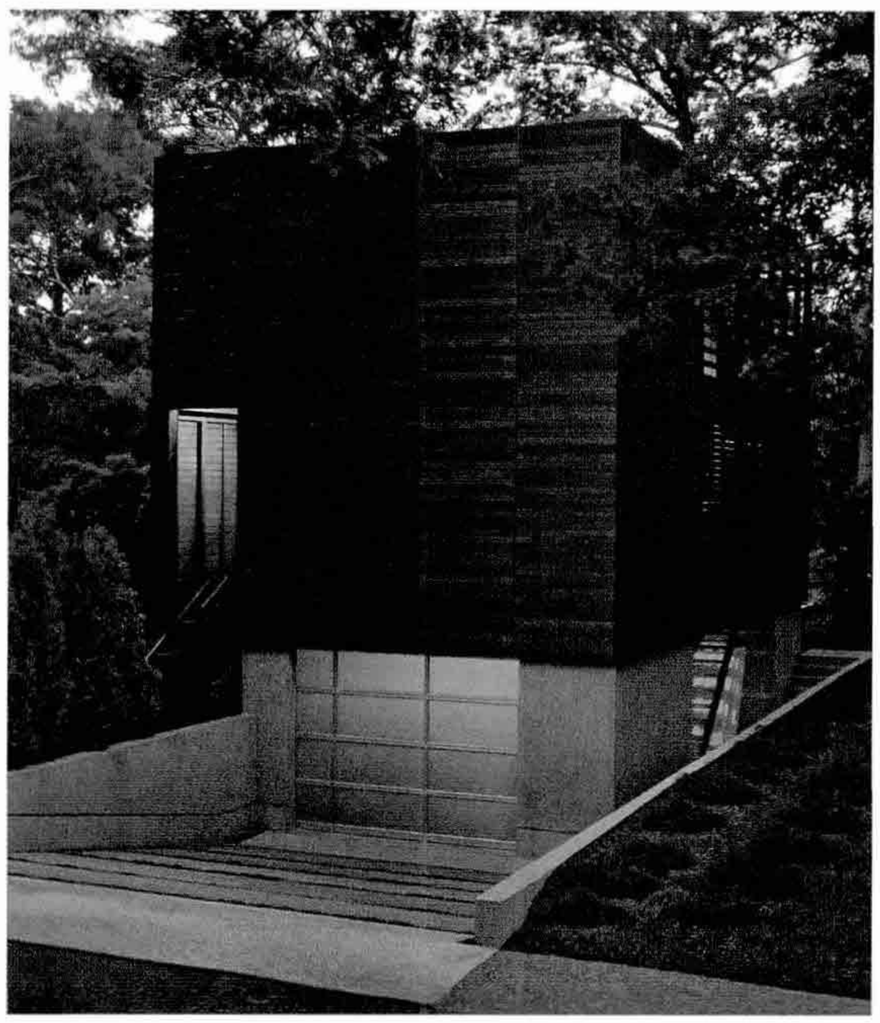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차도는 청회색 사암과 콘크리트로 만들어 졌으며 1층의 앞면 파사드에 사용된 비를 가리기 위한 스크린은 바라던 대로 해을 가려주고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입구는 이 스크린들 사이에 있다.

침실의 천정 디자인을 위해 건축사는 마당에 있는 오래된 단풍나무의 그림자를 사진으로 찍은 후 디지털 드로잉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리고는 건축용 섬유판을 중간 정도의 밀도로 레이저 커터로 잘라내어 장식하였다. 맨 위층에 있는 서재는 거실로부터 놓여진 사다리에 의해 올라가도록 디자인 되었다. 또한, 계단은 낮은 레벨로, 혹은 지붕에 있는 데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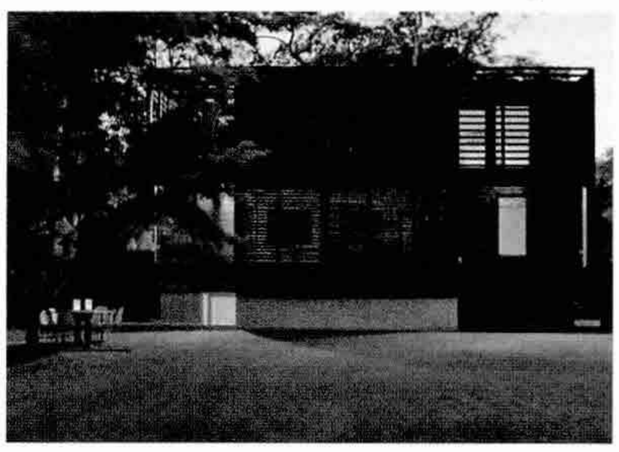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수수하고 조용한 집을 원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첫 번째 건물에 모두 쏟아넣으려는 우를 범한다고 인정하면서 Petrucci는 그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절감하였다. 비를 가리기 위한 스크린으로부터 검소한 인테리어까지 이 주택은 깨끗한 선과 흩어지지 않은 감수성은 조용한 피난처 같은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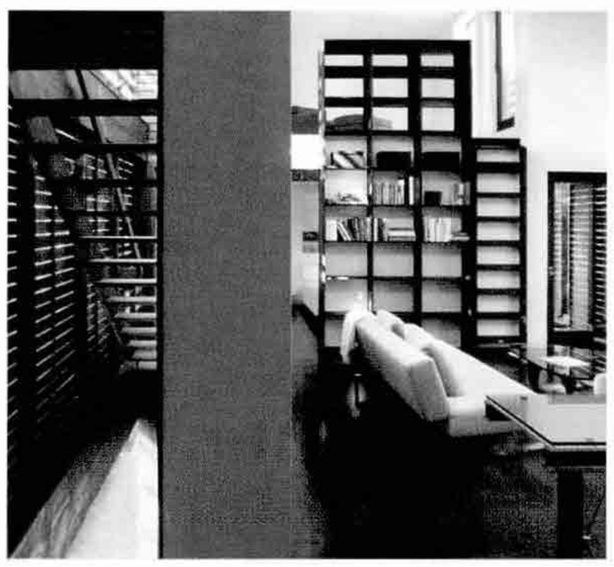
이 건물에 대해 건축사 Petrucci는 다른 건물과 차별된 것은 그림자들 안에서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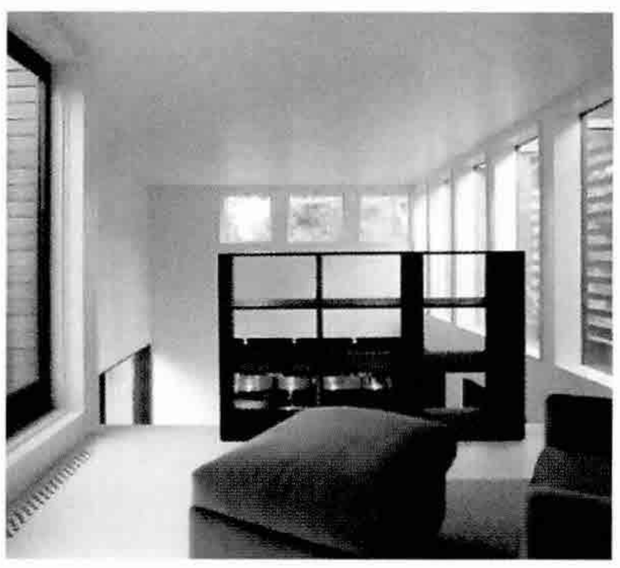
• VH R-10 gHouse











않게 되고 자연환경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마 이 건물은 건축사가 'less is more'라는 디자인 이념을 실현한 모델로서 흥미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Dairy House, England / Skene Catling de la Pena

Skene Catling de la Pena는 England, Somerset 지역의 Daiary House에서 지속가능성과 매력을 결합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용어들 – '유기적인',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과 같은–이 실제로 각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운 건축적 용어로써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녹색(green)' 을 외치지만 실제로 건물들은 회색일색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Skene Catling de la Pena' 의 사장인 건축사 Charlotte Skene Catling은 England, Somerset에 있는 이 주택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 이론을 적용한다는 자체에 회의적이다. 거기 무너져 가는 오래된 주택이었기에 오히려 다시 짓는 것이 비용상 이익이었겠으나 이 건축사와 건축주는 이 건물이 가지는 오래된 역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리노베이션을 결정하였다.

Catling은 내부를 모두 부수고 지붕부터 목재 바닥판까지 새로이 고쳤다. 또한 세 개의 욕실공간과 더불어 1층과 2층 사이에 유리와 참나무 판을 세웠으며 수영장을 여름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열탱크로 고쳤다.

집의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Catling은 이 프로젝트를 이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 지역 출신의 작업자들을 쓴 것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이라는 것이다.

Catling은 믿어지지는 않는 계기에서 이 주택에 대한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18세기 Jean Francois de Bastide의 소설인 La Petite Maison(영어로는 1996년에 '작은 집(The little house)이라고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다)에서 라고 한다. 이 책의 이상야릇한 성애와 인테리어 디자인 논문에 대한 기묘한 결합은 이 프로젝트의 감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주 순환 축을 따라 양쪽으로 보이는 이 주택의 모던함은 기존의 구조와 환경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1층에 Catling은 기존에 있던 구조와 새로운 구조가 결합되는 보를 강조한다. 이 형태가 2층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부분에는 거울을 사용하여 수영장에서 반사하는 듯한 시적인 느낌을 주도록 유도하였고 위쪽은 일반 유리를 사용하여 하늘이 보이고 또 이를 통해 빛을 유입하였다. 농장스타일의 주방은 기존의 낙농장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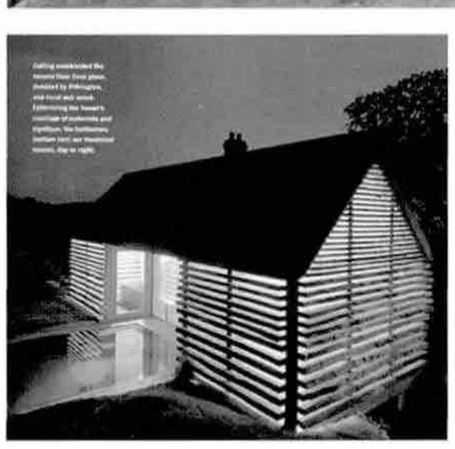
Catling은 Pikington이 기증한 유리와 이 지역 특산물인 참나무를 이용하여 2층을 디자인하였다. 재료와 신비주의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욕실공간은 하루 종일 극장 같은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다.

불행히도 지속가능성이란 황폐하고 극도로 절약해야하는 스타일로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사용편리성 뿐 아니라 역사와 건축사의 시각적 환경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지속가능한 건축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었다. 이 Diary House는 이러산 인식에 대한 반증으로 보다 우아한 미적인 감각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작품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Dairy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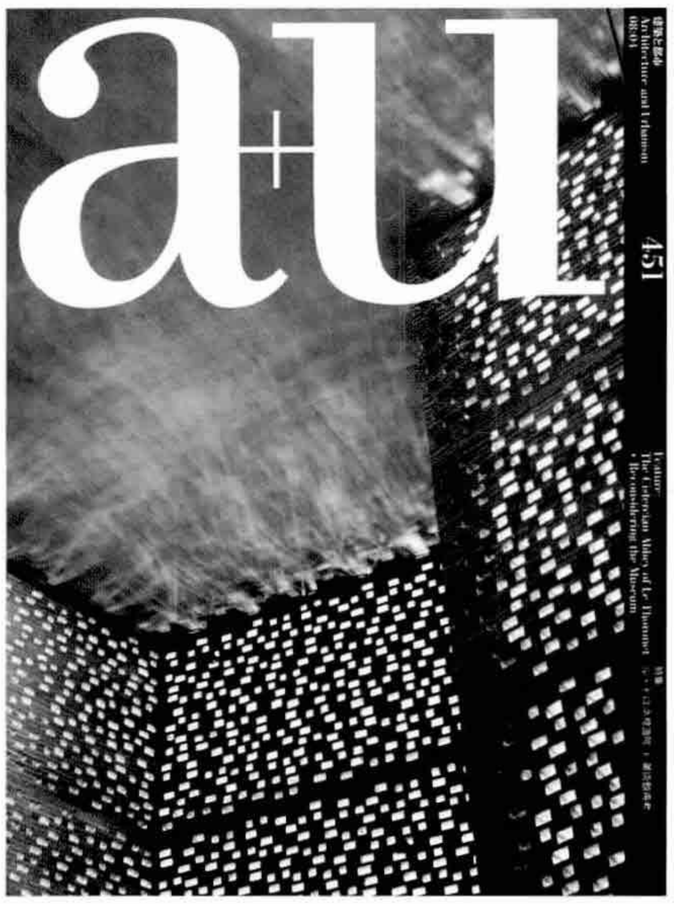








a+u





박종철 / 정회원,
(주)인터스페이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cheol,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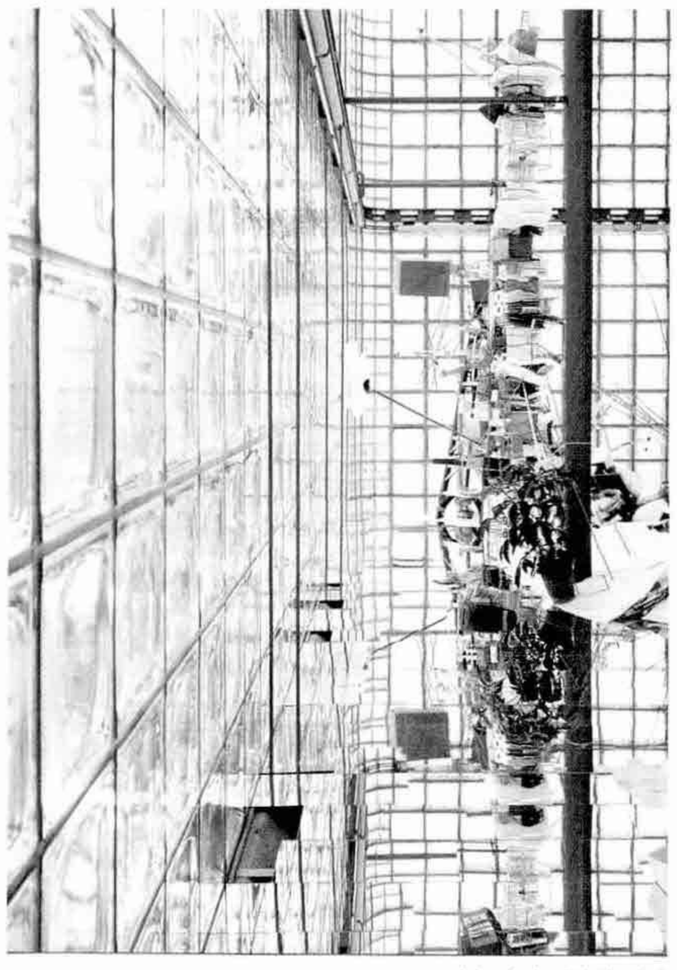
약력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현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의소리(건양) 대변인

이번 2008년 4월호 A+U(451호)에서는 최근 소식으로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Office)에 의한 하펜시티(HafenCity)의 과학센터와 수족관 최종안, FO아키텍트(Foreign Office Architects)에 의한 툴루즈(Toulouse) 비행장계획, WORK Architecture가 MoMA의 제9회 P.S.1 젊은건축사 프로그램에 선출된 것 등을 다루고 있다.



• 툴루즈 비행장계획 건물투시도

전람회 리뷰에서는 '건축에 이끌린 아트'라는 이름으로 사라 지(Sarah Sze)의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사라 지는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건축과 회화를 배운 후 창작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흔해빠진 물건들을 소재로 사용,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설치예술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연의 작품은



• 사라 지의 전람회 사진

뭐라고 좀처럼 형용하기가 어렵다. 일견 구조체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집적물과 같이 다루어져 뭔가 생명력 있는 물건으로 보여 진다.

'물건과 빛이 분리되기 이전의 장소(A Place Where Matter and Light are not yet Divided)' 라는 제목으로 소우 후지모토(藤本壯介)가 그리고, '근대종교건축과 르 토 로 네 수 도 원 (Sacred Modern Architecture and the Abbey of Le Thoronet)' 이라는 제목으로 카라 브리톤(Karla Britton)이 에세이를 적고 있다.

그리고, 특집으로 르 토로네修道院(The Cistercian Abbey of Le Thoronet)을 소개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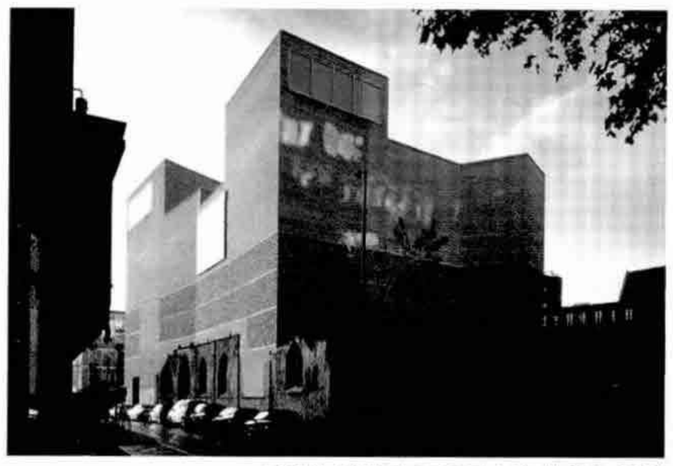
12세기,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에 시토 수도회 소속의 수도원이 창건되었다. 그 엄격한 계율에 근거한 건축형식은, 일체의 양식을 배제한 조금은 굵고 거칠지만 정밀한 석조건축을 탄생시켰다. 시각조차 억제되어진 내부공간을 시작으로 그 건축적요소를 극한까진 제한한 수도원은 몇 세기가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2007년 11월 이 중세의 빼어난 건축을 촬영한 기회를 가졌다. 본 호에서는 정적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현재의 르 토로네의 자태를 전달함과 함께 현대건축역사상에 있어서의 그 의의를 더듬어 본다고 적고 있다.

또 다른 특집으로는 美術館再考(Reconsidering the Museum)라는 제하에 13개의 미술관, 박물관, 건축센터와 그곳의 디렉터, 큐레이터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콜룸바 大司敎區敎會美術館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세계속의 도시가 '빌바오 이펙트(Bilbao Effect)'로 불려진 변환을 자신의 고장에 요구하고, 미술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미술관 본래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고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세계를 대표하는 많은 미술관 디렉터, 큐레이터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들었다. art scene 현장에서부터 이후 미술관건축의 최신활동과 건축전람회의 기

획, 운영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다. 더불어 피터줌토(Peter Zumthor)의 최신작 콜룸바 대사교구교회미술관(Art Museum of the Cologne Archdiocese)을 수록했다고 전하고 있다.

Peter Zumthor
Kolumba, Art Museum of the Cologne Archdiocese / Cologne, Germany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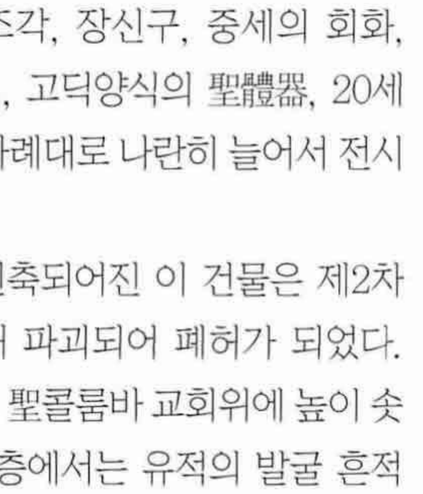
• 콜룸바 대사교구교회미술관 남서측 전경

콜룸바 대사교구교회미술관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는 것이다. 상설 컬렉션 내용은 '고대의 것이 있다면 최신의 것도 있다.' 라는 것처럼 그 연대는 여러 갈래로 복잡다단하게 미치고 있다. 로마네스크양식의 조각, 장신구, 중세의 회화, 「라디칼 페인팅」, 고딕양식의 聖體器, 20세기의 일용품이 차례대로 나란히 늘어서 전시되고 있다.

도시중심에 신축되어진 이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후기 고딕양식의 聖콜룸바 교회위에 높이 솟아 서있다. 지상층에서는 유적의 발굴 흔적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그 중에는 1세기 반 만에 건설되어진 舊교회유적과 1946년에서 1950년에 고트후리드 뱀(Gottfried Bohm)에 의해 세워진「페허의 성모마리아」예배당도 있다. 이러한 여건부터 미술관내에는 크기나 밝기도 서로 다른 갤러리가 모두 17개실, 연면적1,750㎡가 3층에 걸쳐 설계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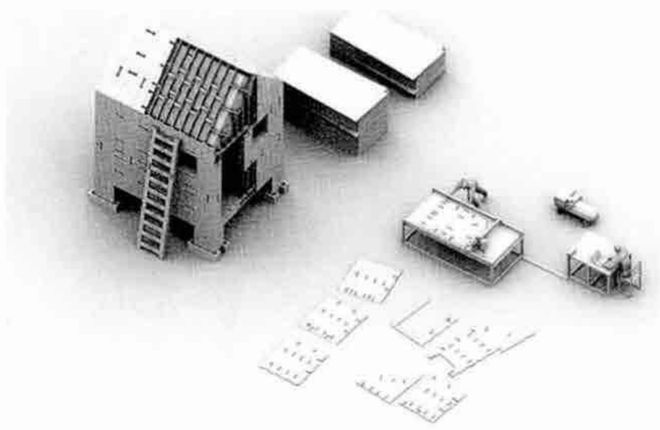
그리고 피터줌토(Peter Zumthor)의 전람회 '빌딩과 프로젝트' 를 소개하고 있다.

피터줌토는 1943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다. 家具職人, 디자이너, 건축사로서 수련을 쌓고, 1979년 스위스에 사무실을 하고, 스위스, 이탈리아대학 아카데미아교수, 미스 반 델 로에상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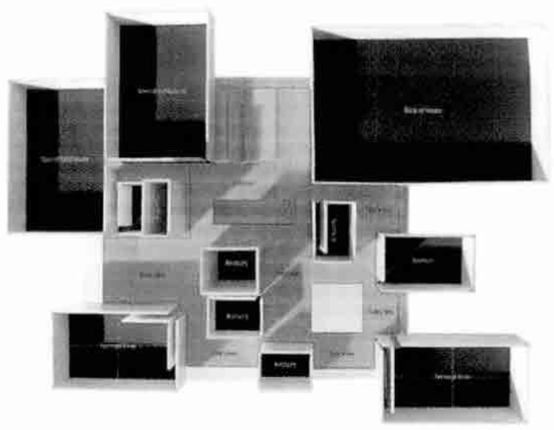
• 빌딩과 프로젝트 전람회의 스케치, 도면, 모형의 전시

1.뉴욕근대미술관 -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뉴욕근대미술관의 건축75년의 궤적」展(기간 : 2007.11.14~2008.3.10)을 소개하고 있다.



• 로렌스사스와 MIT에 의한 뉴올리언즈를 위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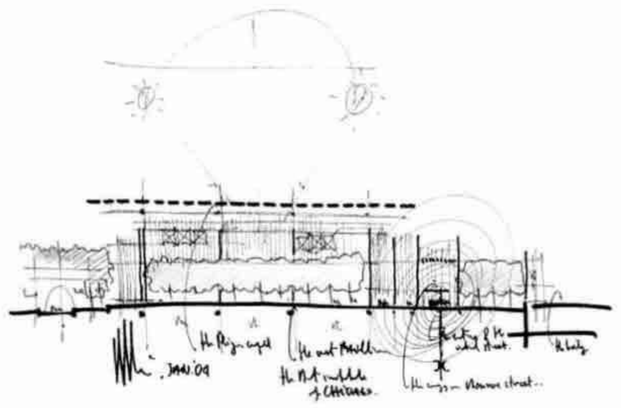
2.마이애미미술관 - Miami Art Museum (MAM)
「뉴욕근대미술관의 건축75년의 궤적」展(기간 : 2007.11.14~2008.3.10)을 소개하고 있다.



•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3.로스앤젤레스미술관 -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MOCA)
1979년에 설립된 MOCA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일한 현대미술전문 미술관이다.

4.시카고미술관 -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미술관은 당초, 시카고디자인아카데미라는 학교로 1866년에 설립되었다. 1879년에 학교와 미술관의 명칭은 시카고미술아카데미로 변경되었다. 그때 부여받은 사명은「커뮤니티의 예술적인 발전에 공헌한다. 미술박물관, 학교, 미술도서관을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 렌쪼피아노의 스케치

5.캐나다 건축센터 - Canadian Centre for Architecture (CCA)



• CCA의 항공사진

6.샤이요궁 - 건축역사박물관



• 柱頭 컬렉션



• 지오메트리의 전시공간. 앞에 있는 모형은 프레스톤 스콧 코헨인 디자인한 텔 아비브 미술관

7.퐁피듀 센터 - Centre Pompid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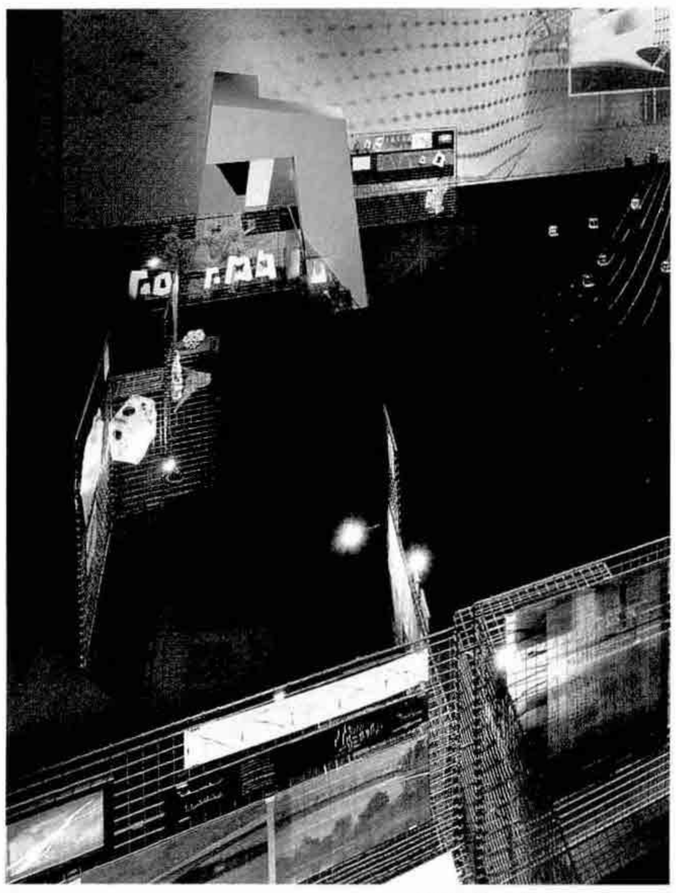
• 반 시게루(坂茂)가 디자인한 퐁피듀멧츠의 외관

8.루브르 렝스 - The Louvre-L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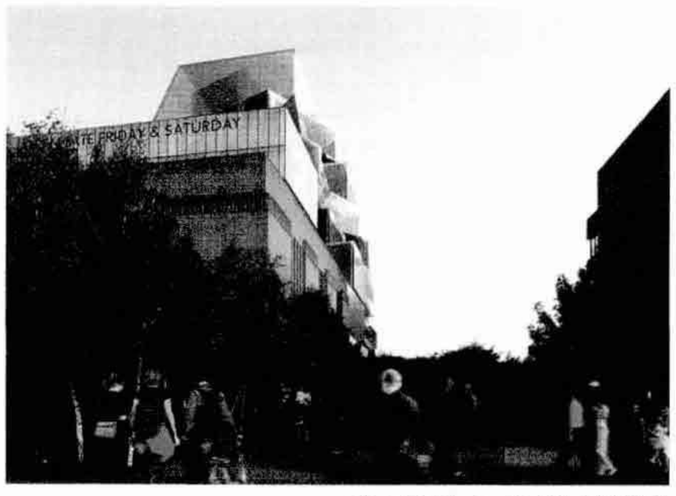
• 대지 조감사진

9.루이지아나 근대미술관 -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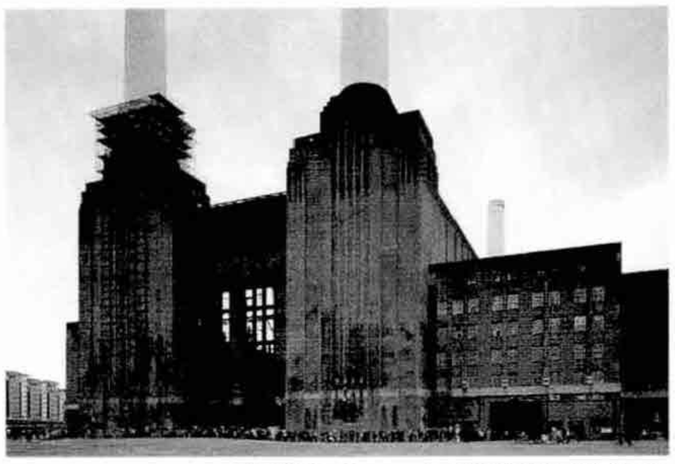
• 전시홀을 내려다 본 전경

10.테이트 모던 - Tate Modern (TM)



• 헤르조그와 드 무론이 디자인한
Tate Modern 2[TM2, 2012년에 오픈예정

11.서펜타인 갤러리 - Serpentine Gallery



• 바터시(battersea) 화력발전소유적에서의
「china power station」展, 2007년

12.오스트리아 응용미술박물관 - 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 / Contemporary Art



• 코프 힘멜브로우(Coop himmelblau)의
Beyond the Blue의 전시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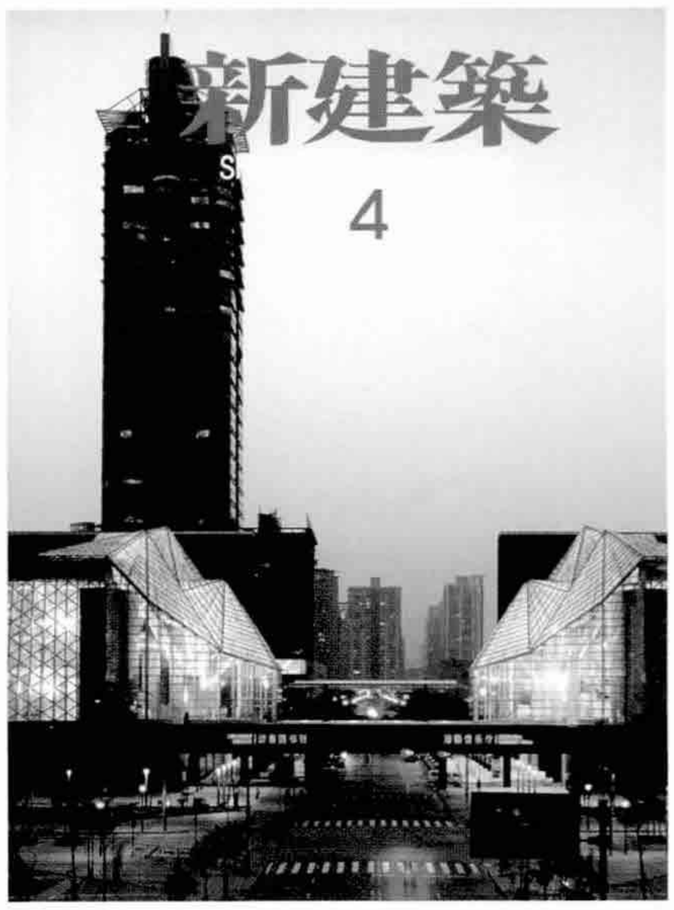
13.암스테르담 건축센터 - Amsterdam Centre for Architecture (ARCAM)



• 갤러리에서의 토론의 토론풍경

간단한 건물이라도 간단한 조직, 기관은 없다. 암스테르담 건축센터(ARCAM)는 무엇보다도 우선 도시 가운데의 Statement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끊임이 없는 건물이 사고되어지는 場, 協力과 調整의 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되고, 심오해지고, 전개되어져가는 場, 그것이 여기 ARCAM다. ARCAM는 1986에 설립되었다.

新建築



이번 2008년 4월호 신건축 에세이에서 무라카미 슈조(村上周三)는 '문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라는 제목으로 20세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형의 물질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자연환경」과「문화」의 열화(劣化)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자연환경의 열화는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는 없고, 지역스케일에서 지구스케일까지 열화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지속가능성이 강하게 염려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문화의 열화도 같은 모양으로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문화의 파괴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요시다 케이지(吉田桂二)는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 를 주제로 다루면서, 일찍이 유럽에서 건축의 기계생산화가 시작됐을 때, 그 추세를 리드한 건축사들이 기능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건축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건축군을 창조하였다. 르 꼬르뷔제의「주택은 거주하기위한 기계다」라고 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로부터 약 80여년 일본은 전후시대의 공백을 겪고, 건축의 기계공업 생산화가 극도로 발전하여, 정밀한 재료와 부품, 시공태세가 현실로 나타나고, 그것은 건축이 건축산업 측면의 손에 넘겨져 주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건축사는 불필요하다. 적어도 all might인 건축사는 불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설계자라고하

는 직능뿐, 그것도 건축을 생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집합의 가운데에서 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짊어질 의식을 잃게 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요시다 케이지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위해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특이하다고 생각한 조형물이라 쉽게 찾을 것 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작품 앞에까지 와 있어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가우디의 작품은 환경에 융화되어 일체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합리한 조형과 주변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직감적으로 결실시킨 사람이었다. 가우디는 자신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무를 자기에게 묻는 것이 전혀 없어도 이미 육제화한 것으로 내재되어 완벽하게 책무를 다하도록 생각하였다. 자신의 체질이 된 것이 반응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억지이론으로는 참된 조형물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맺고 있다.

마카베 토모하루(眞壁智治)의 '도시는 아름답게 되어지는가' 라는 제하에 법규완화에 의한 시장원리의 기치아래, 동경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잇따르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칼럼으로는 '한꺼풀 벗겨진 건축의 영역' 이라는 제목으로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가 글을 쓰면서, NHK 「꿈의 미술관, 세계의 名建築 100選」을 그 소제목으로 하고 있다. NHK는 매년 「꿈의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미술방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작년에는 고대유적을 테마로 하여 세계 50개 고대유적을 소개하였고, 올해는 100개의 건축을 채택하여 소개하고 있다.

巻頭인터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문화」라는 題下에 심천의 10년/ POST 9 · 11/ 상해, 북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심천의 10년, 심천 · 상해 · 두바이- '3C' City, 쯔나미 「탈것」인가 「받아 넘길것」인가-문화의 가능성, 중국문화, 현장에서의 身體性, 기존의 조직(Institution) 재편성, 한자문화와 건축의 구성, 미술과 전시공간, Art 와 Market, 의도하지 않은 아이콘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소주제를 구성하여 인터뷰하고 있다.

심천은 중국 가운데서도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198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인구의 폭발적인 증대를 경험한 도시다.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씨가 「심천문화중심」의 설계에서 심천에 관하여 처음부터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도 심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 국내의 변화뿐만 아니고, 9 · 11, 아랍(페르시아) 연안 도시의 급성장, 작금의 미국 서브프라임론 문제 등,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세계 속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일과 사건이 상호 보다 강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이소자키 아라타씨는 어떻게 세계와 관계할 것인지 AMO의 太田佳代子씨, 톳도리스씨에 의해 구성된 인터뷰를 기초로, 중국에서 세개의 프로젝트를 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편집자는 전하고 있다.

신건축 이번 호 특집으로는「풍경을 만드는 오피스」로 7개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시대와 함께 일하는 방법이 변하는 것처럼 오피스의 본래 모습도 다양화되고, 그저 책상에서 일만을 하기 위한 장소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다. 작은 오피스 인테리어부터 하나의 가로와 함께 말할 수 있는 복합적인 대규모 개발까지, 그 규모는 다르지만 도시 속에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내는 시험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다. 생활공간으로서의 오피스의 풍부함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간단한 문장으로 함께 기술하고 있으며, 건물의 외장재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아카사카 사카스 - 가로에 조화되고 가로를 끌어들인다.



• **아카사카 사카스** 남측에서「아카사카 Biz tower」를 올려다 사진. 타워의 남면은 세라믹루버, 라임스톤, 스틸샤시로 구성되어있다.



• **아카사카 사카스** 사카 더 레지던스에서 사카스 사카와 사카 Biz tower의 아트리룸을 내려다 본 사진. 아카사카BLITZ과 아카사카ACT씨어터의 외벽은 갈바륨강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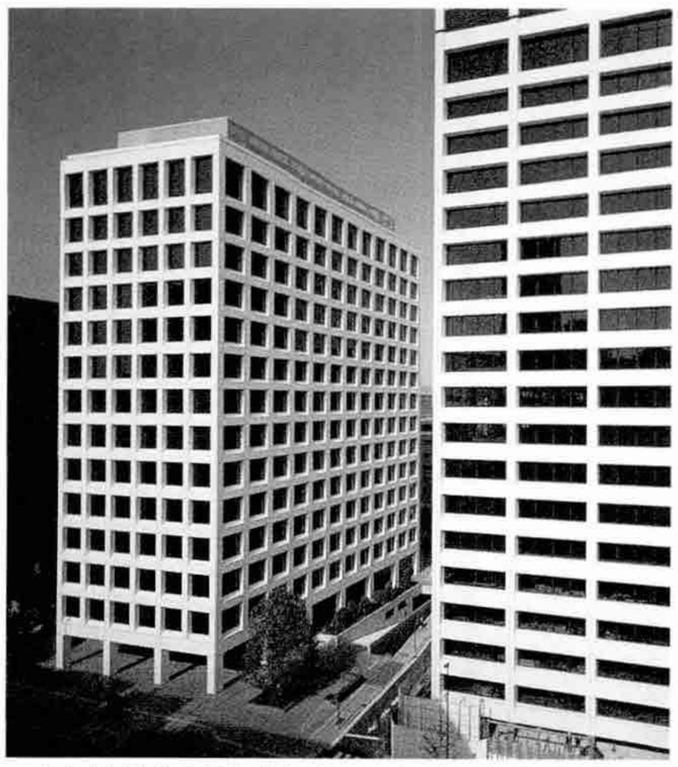


• 이소자키씨는 눈 수술을 막 끝낸 상태여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2.카지마 본사빌딩 - 컴펙트한 본사기능을 목표로



• **카지마 본사빌딩** 카지마본사와 별관 배치도



• **카지마 본사빌딩** 동측에서 본 카지마본사빌딩 전경. 하얀그리드로 둘러싸여진 부분은 유로그레이유리로를 사용한 개구부

3.카지마 아카사카별관 빌딩 - 부지의 Potencial을 유효하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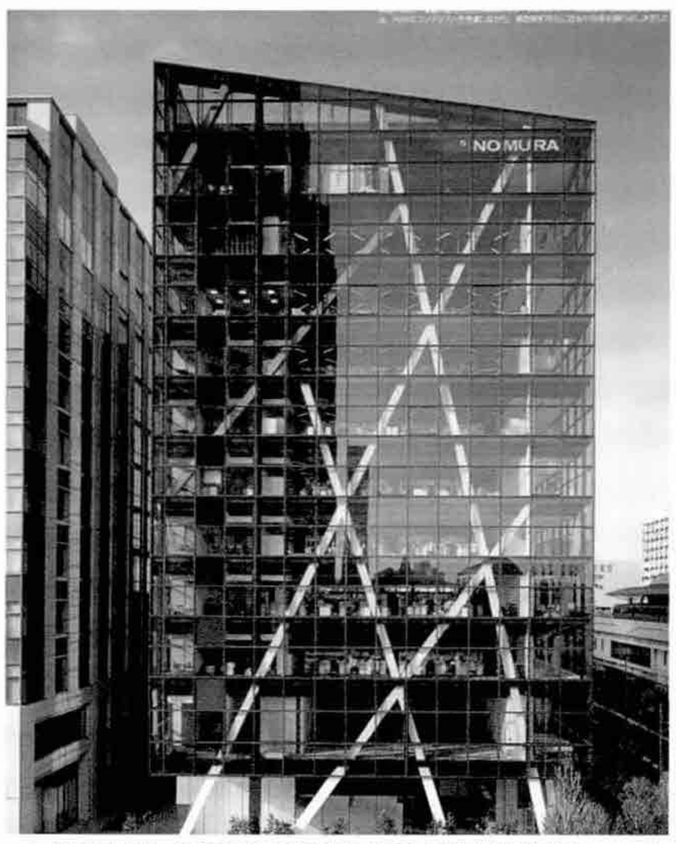


• **카지마 아카사카별관 빌딩** 북서측 외관을 올려다 본 사진. 위의 6개층은 주거로 되어있지만 기둥안쪽에 설치해서 외관상으로 용도의 다름이 모르도록 되어있다



• **카지마 아카사카별관 빌딩** 1층사무소 출입구. 벽은 고투과 페인트유리로 일부는 곡면가공

4.노무라공예사 본사빌딩 - Activity를 도시로 Display한다.



• **노무라공예사 동측전경** 복잡하게 배치되어진 외관부의 race가 Facade에 표정을 부여한다. Brace의 배치는 내부의 ontext를 고려하면서, 구조해석을 기초로 추가와 삭제를 되풀이 하면서 결정하였다.

5.DWJ 오피스 - 유리관의 불안정함이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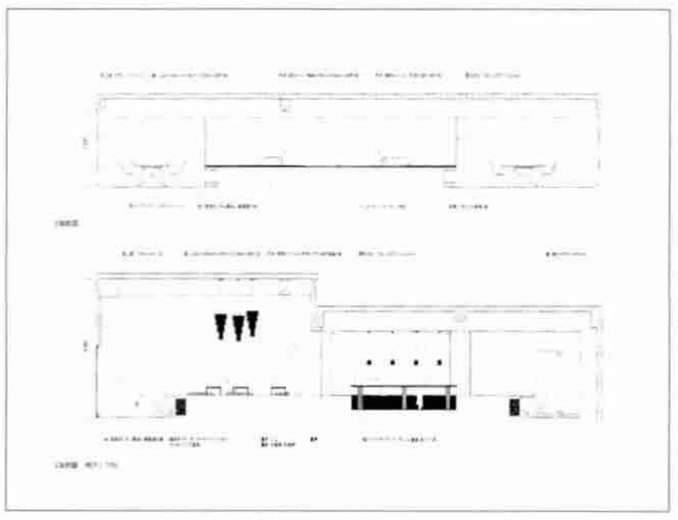


• **DWJ오피스** 통로부분과 각실을 분리하는 칸막이의 유리관 두께는 5mm, 직경60mm, 유리관과 카페트색의 바뀐 라인이 어긋나는 것으로 불안정함을 표현하고 있다.

6.카약 - 큰 테이블이 만드는 Office Landscape



• **카약** 다다미위에서 사장실을 바라본 사진



• **카약** 3층단면도와 2층단면도

7.우메신 제일생명빌딩 - 사무소빌딩의 공공성과 Privacy



• **우메신** 서측외관 전경. 국도1호선이 국도2호선으로 바뀌는 梅田新道 교차점에 면해서 서있다.